

누가보름

S. D.

II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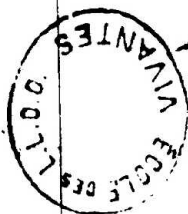


갑사이십본

유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누가보구음

대조선국오백사년을미





# 누가복음

## 제일장

더 오빌노대인이여 대개 만흔 사람이 근본도를 전하는 이가 처음부터 천히 보  
 고 우리의 계준대로 우리가 기뻐히 밋을 일을 글에 기록한 거시니 나 도즈세히 샹고하고 츠레로  
 써서 네게 보내는 거손너로 하여곰 비흔 거시 확실한 거슬 알게 할 이로라 ○ 유다 왕 헤롯시  
 절에 아비아 반렬의 제스 하나 히잇스니 일홈이사 가리아 그 안히는 아론의 조손이니 엘리  
 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는 남압헤의 인이라 주의 계명과 레의 룰 조차 힘하야 음이 업고 엘  
 니 사벳이 슈티를 못하야 무즈고 두 사람의 나히 또 만흔 지라 못츠사 가리아가 그 번의 반렬  
 대로 제스의 직분을 하는 남압헤 힘히 제스의 절례를 따라 제비를 씹아 주의 성년에 드러가  
 분향하니 분향할 즈음에 모든 백성은 밋고 서 비하더니 주의 사자가 향단우편에 선 거시 뵈  
 니 사가 리아가 보고 놀나며 무서워하거늘 텨스가 닐너 끌으디 사가 리아여 무서워 말나네  
 가 비는 거슬 드르시고 네 안히 엘니 사벳이 아 들을 나하 너를 주리니 일홈을 요한이라 하라 너  
 도 깃뵈고 즐거워 할 거시오 그 난 거슬 인하야 깃뵈 할 자가 만흐리라 대개 주의 압헤 큰이 가  
 될 거시오 술이나 쇼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티로 브터 성령으로 득음을 얻어 이 스라엘 조  
 손을 만히 제하는 님셔로도 오게 할 거시오 또 엘니아의 성정과 지능으로 써 주의 압헤 힘하  
 는 거손 아비가 조식을 사랑케 하코 거스리는 이가의 인의 슬과 를 스모케 하야 주를 위하야 세운  
 빅성을 예비하랴고 흠이니라 사가 리아가 사자 드려 닐너 끌으디 내가 이일이 잇슬 줄을 엿지  
 알니 오내가 늙고 내 안히 나히 만흐니이다 하대 사자 디 답하야 끌으디 나는 이케하는 남압헤  
 서는 갑열이니 나룰 네게 말하고 도흔 쇼식을 네게 전하랴 보내섯는 나라이일이 일우는 날 사  
 지네가 병어리 되여 능히 말을 못하리니 아논네가 내 말을 밋지아나 홍일식니라 때가 나르면 내  
 말이 마지리라 하더라 빅성들이 사가 리아를 기다리고 오래 성년 안헤 잇숨을 이 샹이 너이

누가복음 1장 1절

일

더니 나 오매 능히 말을 못하니 빅성들이 그 성년안혜서 묵시를 본줄 아는 거슨 형용으로써  
 을 무르치고 못춤내병어리 됨어러라 그 직분의 날이 못치매 그 집에 도라가니라 그 후에 제  
 안히엘니 사벳이 슈티하니 다스듯동안혜 숨어잇서 클으디 주셔셔나를 권고하샤 인간에 부  
 그러음을 씻게하라 고이러케나를 보신다 하더라 ○ 여섯들에던스 갑열이 하는님의 보내심  
 을 밧드러갈 날이나나사렛이라 하는 고을에 가서 다위조손요셈의 계명 혼흔 처녀의게 나르  
 니 그 처녀의 일홈은 마리아라 던스가 마리아에게 드러가 클으디 온체를 밧은 자여 평안할지  
 어다 주니 나와 혼가지로게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놀나 이런인스엇지 혼인고 생각할대  
 스자가 날너클으디 마리아는 무셔워 말지어대 개네가 임의하는 님셔 온체를 엮은 자라  
 잉티하야 아들을 나흐리니 그 일홈을 예수라하라 더장춧꿈이 되여 지극히 높흔이의 아  
 들이라 날너클거시오하는 님셔서 그 조상다위의 위를 주샤 영영이 야곱의 집에 왕이 되샤 그나  
 라히곳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리아가 스자가 드러날너클으디 나는 출가하지 아니하엿사니  
 엿더케이러홈이 되리잇고 던스가 디답하야 클으디 성령이 장춧게림하시며 지극히 높흔  
 신자의 능이 너를 덮히보우하시리라 이르므로 장춧나흐시는 바거룩하신이가 하는 님의 아들  
 이라 날너클며 또 혼내 친척엘니 사벳이 늙엇사니 아들을 비엿고 근본 슈티하지 못하는 자  
 라도 이 제임의 여섯들이 니이다 대개 하는 님는 능히 못하시는 거시 업는 니라 마리아니 클  
 으디 주의 종이며 괴잇스오니 원컨대 내말씀과 처내게 일우여 지이다 하니 던스가 드디여떠나  
 가니라 이때에 마리아니 내려나 쉼니 산중에 가유다 속한 고을에 니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니르러 엘니 사벳의 계명안함을 무르니 엘니 사벳이 마리아가 평안함을 못는 소리롤드르매  
 잉티하거시 그복중에서 뒤노는 자라 엘니 사벳이 성령의 득함을 엿어 소리를크게하야 클  
 으디 모든녀인중에 내게 복이잇스며 내게 잉티하신이의게 복이잇는이다 우리 주의 모친이  
 내게 림하시니 내가 엿지하야 이러홈을 엿엇는고 대개 내안복을 못는 소리가 혼번내귀에 드

누가복음 제 일 장

이

러오매 오히려가복음에서기버하고뛰노는도다 네가밋었시니복이있도다대개주의말씀하  
 신거시반드시못치리라하니 마리아—끌으되내마음이오직주로큰거슬삼고 내령혼이  
 오직하는님로락을삼을거시니곳나를구할자—라 대개그종의노고적음을도라보샤이제  
 후로는만세에장차나를널으기물복이있다하리니 그능하신이가나를위하야이큰일을일  
 으신지라그일흥이이에거룩하도다 그불상이녀이심이두려워하는이의게잇서되되로니  
 르리니—더—풀노써힘을베퍼모음과뜻이교만할자는호호시며어좌에서권잇는자는내치  
 시며느준이틀드러올니시며 주리는자는요흔거스로빈를불니시며부자는공슈로내여보  
 내시며—더—그종이스라엘을붓드시기를—마치이전우리조상의게말씀하신것과맞치아  
 브라함과밋그손들을되되로불상이녀이심을괴역하시리라하더라 마리아가석들을나흐니  
 치잇다가본집으로도라가니라 ○ 엘니사벳이허산홀과약이니르리에아들을나흐니  
 그리웃과친척이슈—크게불상이녀이심을듯고웃즐거워하더니 팔일이되매무리가  
 히의게할례를하러와셔부친의일흥을느라사가리아—라하고저하니 그모친이디답하야  
 클으되그러치아니하도요한이라할거시라하니닐너끌으되 네친척중에이일흥으  
 로닐너론이가업다하고 형용으로그부친의게되여그무슴일흥으로닐너라무르니 부  
 친이분관을달나하야써끌으되제일흥이요한이니라하니무사론이다그이히녀이더라  
 그입이곳열니고혀가풀녀말하야하는님을찬송하니 리웃이다놀나고이말이온유데야산  
 협디경에드루퍼지매—듣는이들이다모음에샤여끌으되오히려가장차엇더할고하더니주  
 의손이홍상붓드려주시더라 그붓천사가리아가성령의그득흥을엇어미리말을말하야끌  
 으되 주이스라엘의하는님을찬송할지어다대개그백성을도라보샤속량하시고 우리들  
 을위하야구속할별희를그종다위의집에나러나게하섯시니 이는주께서기벽흥으로브러  
 거룩하신지의입으로말할바와맞치—우리들을우리원슈와우리로위워하는모든자의손에



서구하시고 우리 조상을 불상이니 시고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니 곳우리 조상이 브  
 라함의 계명을 하시기로 장차 우리를 원수의 손에 구하여서 우리들이 두려움이 없게  
 하고 의로움으로 하시는 압해 항상 아섬기게 하시리라 올도 다 이히야 너는 지금  
 하신 의선지자라 날 크르니 네가 길홀 닥고 주와 압해몬져가서 백성의 구속함을 알  
 고 하리니 곳 죄 사함을 얻는 거시라 이는 우리 하신 백성 불상이니 시는 믿음  
 을 힘입음이라 일노써히듯는 거시 우흐로 우리의 계온 거손 어 두온 디와 죽을  
 그늘에 안전자의 빛치고 우리 발을 평안길 노잇글라 고 함이라 하더라  
 오히는 점점 자르매 믿음 이 강건 하야 저이스라 엘의 계나 타나는 날  
 사지들에 잇더라

### 제이 장

이때에 가이사 어구스도가 령을 내려던 하로 하여곰 다 호적에 올니게 하니  
 구레니가 수리아 감스 되엿실 때에 이 호적이 처음으로 행하는 지라 모든 사

림이 호적을 하라 고 각각 제 본고을 노도라 가니 요셈도 갈닐니아에서나 사렛으로  
 브터 유다 에올나가 다위의 고을 벧엘에 나르니 더나 다위의 집 조손이라  
 영혼한 마리아와 혼가 지로 호적을 하러가 더나 마리아가 잉태하였는 지라  
 더나 잇서 산홀 때 가나라 맛아 들 을나 하강보로 싸구 유제 누이니  
 이는 각디에 용납할 곳이 없습이라 ○ 그 근처에 양기르는 이가 들에  
 잇서 밤에 그 양의 무리를 직히 더나 주의 스자가 꺾혀서 고유의 영광이  
 두루 빛치매 그 사 롬들이 크게 두려워하거늘 스자가 날니 곧 디놀나  
 지말나 내가 회개 크게 짓버홀아 림다 온 쇼식을 가져오니 이는 만민의  
 계 밋출지니라 ○ 오늘 다위의 고을에 너희를 위하야 혼구 쥬가나  
 섰시니 곳 그리스도 주시니라 ○ 성험이 이거시니 너희 장차가 서  
 하야 기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거슬 보리라 하니 홀연이 이허다  
 하눌 군스가 스자와 곳치 잇서 하는 님를 찬 미하야 곧 디지  
 극히 높흐신 디하 님씩 영화를 돌녀 보내고 싸헤서는 깃버  
 함을 님은 사 림이 평안홀지어 다하더라 ○ 못춤던 스들이  
 셔나 하눌 노올나가니 목동이 서로 말하야 곧

디 우리들이 곧 맛난 알은 쥬니 우리 세 죄 신거 슬 보러 베틀 들 험스 지라도 가자 하고 셜니가 마리  
 아와 요셉과 야기를 구유에 누인 저 슬 처지니라 목동이 보매 곧 아귀를 알년 말을 전파하니  
 듯는 자 다 목동의 고하는 일을 귀히 녀이디 오직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믿음에 잠잠이 류  
 녀니 목동이 그 듯고 본거시 다 알년 바와 호심으로 써 영화를 하느님 세 돌녀 보내고 찬미 하  
 고 도라가더라 ○ 팔일 만에 할례 날이 되매 그 일홈을 예수라 닐키니 곧 잉태하시기 전에  
 뎡스의 닐키런바러라 모세 법대로 조출할 날이 임의 니르매 예루살렘에 드리고 와서 쥬셔  
 드리라고 할거슨 법에 쓴 것과 호치 호이러라 쥬 디 첫 아들마다 쥬의 개 기록이 된다고  
 하시니 쥬의 법에 말 할 때로 비뉘이 호쌍이 나후어 린 반구 들 노제스 드림이 러라 예루살렘  
 에 호사 롬이 잇스니 일홈은 시몬이라 이 사람의 롬고 정성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 받기  
 를 기드리는 이 호호 성령이 림호섯는 자라 제가 임의 성령의 묵시를 빛아 쥬의 그리스도를  
 보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호겟다 하더니 성령에 감동호야 성령에 드러가 매 못춤 북모가 쥬  
 의 법대로 호호고져 호야 아기를 수를 드리고 올찌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느님을 찬미호야  
 쥬 디 쥬의 제종을 말습호신대로 평안이 노하 주쇼셔 대개 눈을 이너의 구속호심을  
 보앗는 이다 이는 내가 만민 압해초이 신거 호트 의 방을 빛최는 빛치 되고 네 백성이 스라  
 엘의 영화가 되느이다 하니 그 북모가 아기를 말호는 거슬 귀히 녀일시 시몬이 더 들을 강  
 복호고 고천 마리아 드러 닐키니 그 디이 호히가 이스라엘 사람을 만히 패호고 호호게 호며 육을  
 만히 밧을 정형으로 세웠느이다 쥬  
 라나 개호리이다 하더라 ○ 쥬  
 하임의 호는 지라 처녀 때 브러져야 비게 간지가 닐곱 호호 팔십 년 동안 해과 부로 잇는 지라  
 이는 성령은 떠나지 아니호고 저게 호며 기도호기로 쥬야 예일 삼더니 못춤이 떠나오다가 하  
 느님을 사레호고 예루살렘에 구속호기를 브러던 모든 사람의 개이아기를 말호더라

님의 법을 조차 임의 다 할 때 곳 갈 날 니 아로도라 가 본 고 을 나 사 랫 에 니 르 니 아 기 점 점 자 르 매  
 힘이 강 건 하고 지혜가 그득 하시니 하는 님의 은혜가 그으 헤 게 서 더 라 ○ 그 복 모 가 히 마 다 유  
 월 잔 처 절 과 를 당 항 면 에 루 살 법 으 로 가 더 니 예 수 열 두 설 때 이 잔 처 법 을 조 차 흔 가 지 로  
 을 나 가 다 가 과 약 이 차 고 도 리 오 실 시 아 히 예 수 는 예 루 살 법 에 머 물 너 더 니 그 부 모 는 아 지 못  
 하고 그 동 형 중 에 잇 는 줄 노 알 앓 는 고 로 항 로 길 흘 흘 항 야 이 에 일 가 와 친 흔 이 중 에 처 지 더  
 찾 지 못 할 때 처 지 라 고 예 루 살 법 에 도 리 앓 는 지 라 못 측 사 흘 후 에 성 던 에 서 처 지 니 선 성 들 흔  
 가 온 디 안 지 사 드 르 시 고 무 르 시 니 듯 는 자 다 그 지 혜 와 디 답 항 심 을 괴 이 히 너 이 더 라 그  
 부 모 가 보 고 괴 이 히 너 이 고 그 모 친 이 클 으 디 으 히 야 엇 저 항 야 이 러 케 우 리 게 항 는 나 네 아 바 지  
 와 내 가 답 답 이 너 를 찾 져 는 나 라 예 수 클 으 사 디 엇 저 항 야 나 를 찾 져 는 나 잇 가 내 가 내 아 바  
 지 잡 에 잇 서 야 쓸 줄 을 아 지 못 항 엇 는 나 잇 가 항 시 니 더 들 이 말 습 항 심 을 써 듯 지 못 항 더 라  
 예 수 | 혼 가 지 로 나 사 레 트 로 도 리 가 순 명 항 야 바 드 니 오 직 그 모 친 은 이 모 든 일 을 드 음 에 두 더  
 라 예 수 | 저 헤 와 나 히 더 항 시 매 더 욱 항 는 님 와 사 랫 의 게 고 임 을 보 시 더 라

### 데 삼 장

되고 그 동 형 헤 루 이 갈 날 니 아 예 님 금 이 되고 그 동 형 빌 님 보 는 이 득 리 야 와 득  
 디 베 리 이 가 이 사 가 위 에 잇 손 자 열 다 슷 히 에 본 디 도 빌 나 도 가 유 다 에 감 스 가  
 라 코 니 디 디 방 에 님 금 이 되고 루 사 니 유 는 이 비 리 니 에 님 금 이 되고 안 나 쓰 와 가 야 바 쓰 가 제  
 스 장 되 었 실 때 에 사 기 리 의 아 들 요 한 이 들 에 잇 서 서 하 는 님 의 명 을 바 야 여 단 강 각 처 에 와  
 서 누 웃 처 곳 처 는 세 레 를 반 포 항 니 이는 죄 사 함 을 엇 게 함 이 라 선 지 이 사 야 의 칩 에 쓴 말 습 대  
 로 들 에 목 소 리 잇 서 워 여 님 으 디 주 의 길 흘 에 비 항 야 그 첩 경 을 곳 개 항 리 모 든 고 을 이 머 히 고  
 모 든 산 과 언 덕 이 는 저 지 고 굽 은 거 사 곳 어 지 고 험 흔 거 사 장 초 평 평 항 여 지 고 모 든 사 랫 이 하  
 는 님 의 구 함 을 보 리 라 항 니 요 한 이 세 레 를 바 트 으 러 온 모 든 사 랫 드 러 님 니 클 으 디 독 사 에 주 류  
 야 누 가 너 희 를 그 르 처 장 리 에 오 는 노 를 피 항 라 항 더 나 그런 족 누 웃 처 곳 침 에 합 당 할 실 과 를

밋게 하고 스스로 날으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된다는 말 하지 말나 대개나 네게 말하느  
 니 하는 님씩서 이 돌에서 아브라함의게 손이 능히 나려나게 하시리라 또 한독 괴를나 모셀  
 화에 발서 노하시니 도흔 신평가 밋지 아니하는 나모다 버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무리  
 으디 그러하면 우리는 무어 슬하리잇가 디답하야 끌으디 옷두 벌잇는 이는 옷업는 이의게 줄  
 거시오 먹을 거시잇는 이는 또 한 그러케 할 거시니라 세 밋는 아전들이 세 레를 밋고 저하야와  
 서 무리 끌으디 스승이여 우리는 무어 슬하리잇가 끌으디 영혼 구실외에는 더 밋지 말지니라  
 군스들이와 무리 끌으디 또 우리들은 무어 슬하리잇가 끌으디 사롬의게 강포한 지 말며 속  
 여고 하지 말며 엇은 량식이 너내 할 줄 노야라 박성들이 브라고 기도리니 모든 사롬들이  
 에 요한이 곳 그리시도 내가 생각하니 요한이 못사롬의게 디답하야 끌으디 나는 물노써 세 레  
 를 너희게 밋치디 오직 날보다 능한 자 오시리니 나는 그 신 쓴을 풀기도 오히려 감당치 못하노  
 라 더는 장 초성령과 불노써 너희게 세 레를 주리라 하고 더 타작 마당을 썩긋시 하고 곡식을  
 창고에 거두라고 손에 기를 잡아서 썩질은 업서 지저 아니하는 불에 살오느니라 요한이 또 여  
 러가지 권함으로 써 박성의게 복된 소식을 전하니 봉한 님 금혜로 데는 제 동성 비로의 안히 해  
 로 디 아쓰를 위하고 또 한 해로 데 잘 못 할 일을 위하야 요한의게 썩지 짐을 밋을 지라도 이후에  
 악을 더 하야 요한을 옥에 가도니라 모든 박성이 세 레 밋기를 못치매 예수 또 한 세 레를 밋으  
 시니 괴도 할 썩에 하늘이 열나이고 성령이 몸으로 비뚤이와 갓치 그 우해 감람하시 고 하늘노  
 서 목 소리가 잇서 날으디 너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 오너로 내가 밋버한 다 하더라 또 예수는  
 그 르침을 시작 할 썩에 나히 삼십이 나 사롬들이 요셉의 아들이라 하고 요셉의 이상은 헬니오  
 그 이상은 맛다요 그 이상은 레 위오 그 이상은 멜키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오 그  
 이상은 마티아 쓰요 그 이상은 아모 쓰요 그 이상은 나훔이오 그 이상은 에 쓰니오 그 이상은 나  
 가요 그 이상은 마아드요 그 이상은 마타디아 쓰요 그 이상은 세 메요 그 이상은 요셉이오 그 이

상은요다요 그이상은요안난이오그이상은레사요그이상은소로바벨이오그이상은살나  
 디엘이오그이상은네리오 그이상은엘키오그이상은아디오그이상은고삼이오그이상은  
 엘마담이오그이상은의요 그이상은예수요그이상은엘니에셔요그이상은요림이오그이  
 상은닷다드요그이상은레위요 그이상은수메온이오그이상은유다요그이상은요셉이오  
 그이상은요난이오그이상은엘니야킴이오 그이상은멜네아요그이상은멘나요그이상은  
 마타다요그이상은나탐이오그이상은다위드요 그이상은옛세요그이상은오베트요그이  
 상은보아쓰요그이상은살몬이오그이상은나손이오 그이상은아마나답이오그이상은아  
 람이오그이상은헤쓰롬이오그이상은바레스요그이상은유다요 그이상은야콥이오그이  
 상은이삭이오그이상은아브라함이오그이상은다라요그이상은나케요 그이상은세록이  
 오그이상은라고요그이상은펠벳이오그이상은헤베요그이상은살나요 그이상은게단이  
 오그이상은아바사드요그이상은셈이오그이상은노아요그이상은레메크요 그이상은메  
 득살나요그이상은에녹이오그이상은야레드요그이상은마할랄벨이오그이상은게난이오  
 그이상은에노쓰요그이상은세드요그이상은아담이오그이상은하느님시니라

**대수장**

시너마즈막날에이에비곰흐신지라 마귀닐너킬으디네가만일하느님의아들이어든곳이  
 돌을명하야썩이되게하라 예수 | 디답하야글으샤디괴록홀디잇스니닐으디사름이홀노  
 석으로만살거시아니오오직하느님의모든말씀으로살거시라하시니라 또홀잇그러올나  
 가셔순식간개던하렐국으로써되고 마귀가닐너킬으디이모든권세와밧그영화를나  
 게주리라대개이거손다내가맞흔거시니내가홀고저하느이를곳주리라 그런고로곳너  
 만일내게절하면다내게붓쳐주리라 예수 | 디답하야글으샤디괴록홀디잇스니쥬네하느

님께서 절할 거시오 오직이 만삼길 거시라 하시니라 또 잇글고 여루살렘으로 나가 성년 엿다  
 이께서 고닐니 끌으되 너 만일 하는 님의 아들이 어든 내가 몸을 던져 너리라 기록한 것  
 스니 주 너를 위하야 사자의 배분부하야 너를 보호하사 고 또 후히 네 발이 돌에 닳칠 자  
 하야 손으로 밧든 다 하시니라 예수 대답 하야 끌으샤 디 기록한 것 잇스니 주 너 희하는 님들  
 시험치 말나 하 셧는 니라 마귀 모든 시험을 다 하매 이 잠간 떠 나니라 예수 성령의 능  
 힘을 띄시고 팔닐니 아게 도라 가시니 글노인 하야 소문이 스방에 퍼지거늘 빅성의 회당에  
 서 마르쳐 모든 사람의 영화화로 온바 되더라 예수 자르나 신포나 사레티 케니 르샤 사밧날  
 게 흥용하는 일 노 회당에 드러 가샤 성경을 낚고져 하야 서신지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  
 셔드리니 책을 펴보랴고 하느디를 보시매 첫시디 가난한 이의 회복을 전하거 위하야 나를  
 기를 바르니 고로 주의 성령이 림하시고 사로잡힌 자의 해 놓는 것과 눈먼 자의 회복을 다 시밧는  
 거슬 전하고 썰년 자의 케스스로 낮게 하고 주의 복된 혀를 전하랴고 나를 보내다 하니 또 후  
 예수 책을 덮고서 고집스자를 주시고 안저시니 회당에 잇는 자들이 다 췌세히 보더라 예수  
 무리의 배갈음을 시작 하야 끌으샤 디이 글이 오늘에 귀에 일우엇다 하시니 무리들이 다 증  
 거하고 그 입으로 온바 온 혀로 온 말을 기이히 녀여 끌으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  
 무리드려 님 너 끌으샤 디 너 희반드시 이런 속담을 내게 말하리니 의원이 맛당히 네 병을 곳치라  
 우리가 버나움에 흥하거슬 드려 대로여 가고 호게셔 또 흥하라 또 끌으샤 디 내 진실노 너 희  
 널으는 니선지자 가고 도에 잇셔 디 접을 밧은 자 업스나 그러나 진실노 너 희 널으는  
 니이 전엘니 자시 절케 하 놀이 세히 여섯 들에 닳치여 온 따히 큰 흥년이 될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  
 가 만흐디 엘니 자가 브리임을 밧드려 오직 시돈 따헤 잇는 사렘과 고을 흥과 부귀케 만나 아가  
 고 또 선지엘니 사 때에 이스라엘에 라창 잇는 자 만흐디 오직 슈리아 국사름나 아만외게는  
 하나도 조출함을 엿은 이 업는 니라 회당에 잇는 자들이 이를 듯고 다 노함이 심하야 드디여

누가복음 제 4장

오

니러나성밖으로쫓차잇끌고그성지는산봉오리에니르려떠러뜨려느리치고져하니 그러  
 할지라도그가온디로지나셔나가섯는지리 같닐니아어잇는고을가버너움에니르려사바  
 트날에무리를그르치시니 무리더 | 그르치심을과이히닉이느거손그말슴이권제가잇슴  
 을인홍이러라 회당에흔사름이잇서더러온사귀의게붓치임이되여크게소리향야블너클  
 이디 | 아 | 나사레드사름예수여우리너로더브러무어시간예함이관대네가와셔우리  
 를패하라고하느뇨하느님의거룩한자여내가너를누느줄을아노리 예수 | 썩지적킬사  
 디입을봉고사름의게로셔나아가라하시니마귀그사름을무리중에너머떠리고나가되  
 그사름은상하지아니한지라 모든사름의게과이히닉임이되여무리서로말하야골이  
 엇더흔도 | 나대개권과능으로써더러온사귀들을명하면나가도다 이에소문이그근  
 처스방에퍼이더라 또흔예수 | 회당에서나가사시문의집에드러가실시문의장모가  
 신열이대단한거늘사름이드러와셔예수씨더를위하야구하니 예수 | 갓가히셔셔병을썩  
 지지신디병이들너가고곳니러나무리의게일을슈중하니 히지는째에병잇는이들이각  
 식병인을드리고예수씨나아오니예수 | 일일이그우홀손으로어로문져나갓게하시더라 또  
 흔여러사름의게서마귀들이소리질너나가골이디너는이에하느님의아들이라하시니예수  
 | 들너쳐말을못하게하시니대개마귀는그리스도신줄을알미러라 불기에예수 | 나아와  
 들에가서고무리는차지러가예수씨와머무른거손떠나지못하게함이엇마는 예수 | 날  
 너골이사디나 | 반드사또한다듣고을에하느님의나라복음을전하리라대개이일을위하야  
 나를보내시니라 이에도를갈닐니아회당에퍼시니라

**데오장**

못사름이옹위하야하느님의도틀드틀시예수 | 겐네사레드하슈가헤서사  
 하슈가헤잇는두비를보니어복들은떠나그물을씻거늘 예수 | 비에오  
 르시니그비는사문의비라언덕에조곰씩이라하시고드디어한지사비에셔무리를그르치시

고 말슴이 못차매 시몬도 려닐너 곧 사디기 힘으로 가서 그를 잡게 그물을 느리라 시몬  
 이디 답하야 곧 이디스승아 우리들이 밤이 못도 록 슈고 물고 되엇은 거시 업것마는너 말슴하  
 시니 그물을 느리이다 임의는 린죽고 기를 에운 거시 심히 만하고 물이 썩어 지게 되엇거늘  
 이에 다 른 비에 잇는 동모를 손조하야 불너셔와 도아달나하니 더들이와셔 장춧잡기게 된지  
 라 시몬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발아래 업디여 곧 이디 주어나를 썩나쇼셔나는 죄인이로 소  
 이다하니 대개 더와 흠씩 잇는자고 기잡은 거시 만흠을 이샹이 너이다라 시몬의 동모시  
 비대의 아들이 곱과 요한이 또 혼그러하니 예수시몬의게 닐너 곧 이디 무서워 말나 이제로  
 브터 후는너 장춧사름을 엇는이가 되리라 더들이 비를 언덕에 디히고 모든 거슬 버리고 예  
 수를 조차니라 또 혼예수호흡닉에 잇스니 전신에라 창이 그득한 사름이 잇서 예수를 보  
 읍고 곳 업드려 구하야 곧 이디 주만일 하라 하시면 나를 조출하게 하리이다하니 예수손  
 을 펴어 로 문져 곧 이디 나하라 하니 조출할 지어 다라 창이 곳 업서 지니라 예수더를  
 경계하야 사름의게 닐너 알게 말고 다만 가서 사제의게 보고 또 조출함을 위하야 모세의 명을  
 바와 곳치레 물을 드러 써 더들의게 증거를 삼으라 하섯것마는그 성명이 이에 더욱 드러나 못  
 사름이 듯기도 하고 제병이 낮고 저도 하야 모혀오나 예수물너가 사들애나 르러기도 하사  
 나라 못춤으로 마르치실시 갈 닐나 아 각고 을과 유다 각고 을과 여루살렘에서 오는 바리사  
 이와 법을 마르치는 이들이와 견해 안고 예수셔 사름의 병을 곳치는 주의 능이 잇슬시 이에 또  
 혼 반신불슈된 이를 상에 메오고와 예수압헤 드러와 득고져하나 만흠으로 써가지고 드러가  
 는 길 흘엇지 못하고 이에 집에 올나기외 스이로 상을 말워 예수압헤는 리우니 예수더들의  
 밋음을 보시고 닐너 곧 이디 사디사름아 네 죄사하엿는니라 선비와 밋바리샤이가 의론을 시작  
 하야 곧 이디 이 설득하는자니 누요하는 님방의 죄를 사할 만하니 가누구나하니 예수그의  
 론을 알으시고 곧 닐너 곧 이디 사디너희는 중심의 무슴만 혼의 론을 하느냐네 죄를 네게 사하



다 하는 말이나 나러나 거러가라 하는 말이나 어는 거시 말하기 더 쉬오나 <sup>卍</sup> 다만 너희로 하여곰  
인즈 | 싸헤 잇서 죄사하는 권이 잇슴을 알베 하리라 하시고 드디여 병든 자 들려닐너 콜으샤 디  
나 | 네게 명하는 나러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sup>卍</sup> 그 사름이 더들 압헤서 곳나러  
나 누엇던 제구를 가지고 그 집으로도 각 각 영화화를 하는 님씨 돌려 보내니 <sup>卍</sup> 무리들도 놀나고  
이 상하야 영화화를 하는 님씨 돌려 보내며 또 하느려움이 극심하야 콜으디 오날날에 괴이 할 일을  
보앗다 하더라 <sup>卍</sup> 이후에 예수 | 나가 사세관에 안진아 전하 나래 위라는 이 료 보시고 드디여  
닐너 콜으샤 디 나를 조차 하시니 <sup>卍</sup> 레 위드 디 여 모든 거슬 버리고 나러나 조차 나라 <sup>卍</sup> 레 위 제  
집에 예수 를 위하야 성흔 잔치를 하니 여 러 무리 아 전과 다 른 사 룹이 잔치에 참여 하는 자 | 심히  
만흔 지라 <sup>卍</sup> 또 바리사이와 밋빅성의 스즈들이 그 데즈를 비방하야 콜으디 너 | 엇지 하야 아 전  
과 죄인으로 더 브러 하가 지로 먹고 마시느나 하느니 <sup>卍</sup> 예수 | 디 답하야 더들의 게 콜으샤 디 성흔  
이의 게는 의원이 쓸디 업고 오직 병든 자 | 쓰느니 <sup>卍</sup> 내가 온 거 손의 인을 브름아 니 오이 에 죄인  
을 누듯 처 곳 치려 브러 왔노라 <sup>卍</sup> 더들이 예수 씨 닐너 콜으디 요한의 데즈는 갓 금지 게 하야 괴  
도 하고 또 흔 바리사이의 데즈들도 또 그 러 하거 놀 오직 너 희 에 즈는 먹고 마시는 도다 <sup>卍</sup> 예수 |  
닐너 콜으샤 디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혼가지로 잇슬 때 게 먹을 거슬 금치 못하리라 <sup>卍</sup> 오직 장차  
오는 날 신랑을 더들에서 드려 갈 때 될 거시니 그 때 는 지 게 하리라 <sup>卍</sup> 드디여 더들의 게 비 율 베  
퍼 닐너 콜으샤 디 새 옷 식서 흔 쪼 각 을 썩 저 현 옷 슬 깁는 이 가 업스니 그 러 케 하 면 또 흔 새 거 식서  
가져 가는 쪼 각 이 현 거 식 합 지 아 나 하리라 또 흔 새 술을 놓은 가 족 버 디 에 답는 이 가 업스니 그 러  
케 하 면 <sup>卍</sup> 새 술이 버 디 를 썩 저 술이 썩아 지고 버 디 또 흔 썩어 질 거시니 <sup>卍</sup> 오직 새 술은 새 부 디 에  
담아 야 할 거시니라 <sup>卍</sup> 묵은 술을 마시고 즉시 새 술을 마시고 시 본이 업는 거 손 대 개 콜으디 묵은  
거시 도 타 함 이 니 라

# 예루장

었지 힘하는 노<sup>三</sup> 예수 | 디 답하야 콜으샤 디 다 위와 밋 좃는 사름이 비 곱 흘며 힘흔 거 솔네 가 낫  
 지 아니 하엿는 나<sup>四</sup> 그 하는 님 공에 드러 가 진 설 흘 썩을 가 저 먹고 또 그 좃는 자를 주었시 니 이 썩  
 은 다 만 오 직 스 제 만 먹는 거 시 니 라 하 고<sup>五</sup> 또 콜으샤 디 인 자 가 사 밋 날 에 주 인 이 니 라 ○<sup>六</sup> 또 흐  
 사 밋 날 에 예수 | 당 에 드러 가 샤<sup>七</sup> 르 치 실 시 을 혼 손 모 른 사 름 이 잇는 지 라<sup>七</sup> 선 비 와 다 못 바 리  
 식 가 사 밋 날 에 예수 | 곳 치 시 는 가 아 니 시 는 가 엿 보 아 름 을 타 히 물 을 잡 고 저 하 니<sup>八</sup> 예수 | 그  
 싱 각 을 알 으 시 고 손 모 른 사 름 드 러 닐 너 콜으샤 디 내 가 네 게 무 르 리 라 사 밋 날 에 또 케 하 는 거 시 나 해 롭 게  
 거 늘<sup>九</sup> 예수 | 더 들 드 러 닐 너 콜으샤 디 내 가 네 게 무 르 리 라 사 밋 날 에 또 케 하 는 거 시 나 해 롭 게  
 하 는 거 시 나 싱 명 을 구 하 는 거 시 나 싱 명 을 죽 이 는 거 시 어 는 거 시 맛 당 하 노<sup>十</sup> 드 디 여 무 리 들  
 너 보 시 며 그 사 름 드 러 닐 너 콜으샤 디 네 손 을 퍼 라 하 시 니 퍼 매 곳 나 하 다 른 손 과 꺾 힐 지 라<sup>十一</sup> 무  
 리 대 단 이 성 을 내 여 예수 를 엿 더 케 처 치 하 리 오 하 야 서 로 의 론 하 더 라 ○<sup>十二</sup> 이 썰 에 예수 | 산 으  
 로 가 기 도 하 실 식 밤 이 못 도 록 하 는 님 썩 비 르 시 고<sup>十三</sup> 평 명 에 그 데 즈 를 브 르 샤 그 중 에 서 열 둘 흘  
 싸 스 도 | 라 닐 으 시 니<sup>十四</sup> 시 문 베 드 로 라 하 는 이 와 그 형 안 드 레 와 야 곱 과 요 한 과 빌 님 보 와 돌 노  
 마 요 와<sup>十五</sup> 마 다 요 와 도 마 와 알 바 요 의 아 들 야 곱 과 날 낸 이 란 시 문 과<sup>十六</sup> 야 곱 의 아 들 유 다 와 스 승  
 을 공 는 유 다 이 스 가 루 트 이 니<sup>十七</sup> 예수 | 더 들 과 흐 가 지 로 산 에 서 는 리 샤 평 디 에 서 시 니 그 여 러 무  
 리 데 즈 와 만 혼 빅 성 들 이 유 다 스 방 과 예 루 살 념 스 방 과 두 로 와 시 돈 바 다 가 흐 로 와 셔 듯 고 또 흐  
 제 병 들 을 낫 게 코 저 하 니<sup>十八</sup> 더 러 온 마 귀 의 게 고 난 밋 는 자 | 다 나 흠 을 엿 음 이 라<sup>十九</sup> 여 러 무 리 들  
 이 예 수 를 문 지 고 저 흠 은 대 개 능 하 심 이 더 의 게 로 나 와 모 든 사 름 을 낫 게 흘 이 러 라 ○<sup>二十</sup> 예수 |  
 눈 을 드러 데 즈 를 보 시 고 콜으샤 디 내 가 가 난 흐 자 | 복 잇 는 거 손 대 개 하 는 님 의 나 라 히 이 에 너  
 의 거 심 이 오<sup>二十一</sup> 네 가 이 제 주 린 자 | 복 잇 는 거 손 대 개 가 잣 초 부 름 을 엿 을 거 시 오 네 가 이 제 우

누가복음 예루장

칠

는자 | 복잇는 거손대개네가 장춧우숨을엇을거시오 인즈를위하야사툼이너희를무위하  
 며멀니하고욕하고너희일흠으로악을삼아브리면곳네복이니 당일에깃배하고용약하  
 리라하늘에셔너를상중이클거시니대개그조상이션지의게행한거시어라하니라 오직네  
 가음연자 | 화양잇는거손너 | 일직위로흠을엇엇시며 너이제비부른자 | 화양이잇는거  
 손너 | 장춧주릴거시며너이제웃는자 | 화양이잇는거손너 | 장춧슬피울거시며 모든사  
 롱의게기림을밧은자 | 화양이잇는거손대개거즈션지가그조상의게행한것과온전이긋하  
 니라 오직뜻는자어나 | 네게고하노라너희원슈를사랑하며너를위하는사람의게착하  
 게하며 너의악담하는자를축원하며너의게사오납게하는자를괴도하며 네쌍을치는자  
 의게다른쌍을드리며네것옷슬빼앗는자의게속옷셔지금하지말며 네게구하는자마다주  
 며네물건을가져가는자의게다시달나지말며 너는님이네게하는거슬도화하는대로너도  
 님의게이대로할지니라 너 | 만일너를사랑하는자를사랑하면무숨은혜나대개악인도또  
 한사랑하는이를사랑하는니라 너 | 만일션디하는이를션디하면무숨은혜나대개악인도  
 또한그러하니라 너 | 만일발니고그갑기를브라면무숨은혜나대개악인도또한악인을발  
 니고그갑흠을의수이하는니라 오직너희는원슈를사랑하고션디하며발니고갑흠을브라  
 지아닌즉네상이크리니너 | 장춧지극히놓흐신이의아들이되리대개더 | 갑사하지아니  
 하고허물잇는자의게이질물베플거시니라 그런고로맛당히불상이너이기를너희아바지  
 가불상이너임긋치할지어다 님을론난치말나또한네가론난흠을보지아닐거시오님을죄  
 주지말나또한네가죄중을보지아닐거시오님을용서하라네가반드시용서함을볼거시오  
 님의게주라반드시중을밧을거시오큰말노써누르고흔드리빛과넘치고품어줄거시니너  
 의가무숨말노주면너는그말노써중을밧으리라 ○ 또한비유를베퍼닐너를오샤디쇼경이  
 능히쇼경을인도하는나그러면돌히다굴형에빠지지아니라 데즈가그스승을이괴지못함

이 오오직은 덕이 그 존자라야 그 스승과 같리라. 엇지 동성의 눈에 티잇슴은 보고 지귀는  
 에 보장이 잇슴을 생각지 못하느냐. 또 엇지 동성의게 능히 날으되 동성아나 툴용납하야네 눈  
 에 티를 내라하고 지귀는에 보장을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문져네 눈에 보장을 버려야 동  
 성의 눈에 티를 내어 볼게 보리라. 언잔은 실과 내는 듯으나 모가 업고도 혼실과 내는 언잔은 나  
 모가 업스니 대개나 모다 다제 실과로써아는 지라고로가 시에 무회과를 따지 못하고 질려  
 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믿음에 싸흔 선으로 말미암아 선을 발하고 악한 사  
 람은 믿음에 싸흔 악으로 악을 발함은 믿음에 그득한 거슬 입에 말함이니라. 너는 엇지 나를 날  
 꺾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바를 험치아나하느냐. 사람이 내게나 아와 내 말을 듣고  
 힘하느야 마다나 너희게 그 사람이 무엇코함을 너희게 되리라. 사람이 접지음과 같고  
 기를 곱히하고 주초를 반석우혜 두면 큰물이나 서물결이다 질녀도 능히요 동치 못함은 잘치은  
 연고며 오직 듯고 험치아는 자는 사람이 주초 업시 흠우혜 접세움과 하니 물결이다 질녀면  
 곳집이 문히지고 집에 해로움이 크게 되느니라.

### 데 칠장

예수 — 이 모든 말노써 빅성을 그르쳐듯 하시고 임의 못치시매 곳가 베나움  
 으로 드러가시니 빅부장의 사랑하는 혼종이 또 혼병드러 죽게 된이 잇는지

라. <sup>三</sup>공편으로 예수를 듯고 곳유다 장로득어 사람을 보내여 오샤 그 병을 곳쳐주시기를 구하니  
 장로 — 예수씨나 아와 근절이 구하야 끝으되 이 알노써이 사람의게 베프는 거시 맛당하니 이  
 다. <sup>五</sup>더 — 이 리 빅성을 사랑하고 또 혼디 — 우리를 위하야 당을 세웠는이다. 예수 — 한가지로가  
 시니 집에 서 멀지아나하야 빅부장이 벼를 보내여나 아와 끝으되 주여 슈고하지마옵쇼셔 내  
 집에 림하시기를 내가 감당할일이 업고 또 혼내가 주씨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하옵음을 아는 이  
 다 오직 혼말슴만 하옵쇼셔 또 혼내 종이 곳나흐리이다. 대개내가 남의 권세 아래에 둔 사람이  
 잇고 내아래도 군스가 잇스니 이드러가라하면 가고 드려오라하면 오고 제종드려이거슬하

누가복음

데 칠장

팔

라 하면 행하는 이다 하니 예수 — 이를 듯 고 귀 특이 녀여 모든 좃는 자를 도라 보아 끌으되 사나  
— 너 희드려 날으는 니이스라 엘중애이러 케독실이 밋는 이는 나 — 지금 서지 맛나 보지 못하였  
노라 하시니 보내 엿던 사람이 집으로 도라가 매종이 임의 강건함을 보았는 니라 ○ 수일 후  
에 예수 — 혼읍니에 드러가시니 일흠은 나인이라 예즈와 밋여 러 무리로 더 브러 흥썬 하야  
성문에 갓가 오니 죽은 사람을 메고 나아 오거늘 그 어미 과부요 또 혼외 아들이라 그 읍니 빚성들  
이 만히 혼가지로 나오는지라 주 — 과부를 보시고 불쌍이 녀이샤 날으샤 되우지 말나 하  
시고 드되 여갓가 히고 상여를 어로 먼지니 멘자 — 곳 천지라 예수 — 끌으샤 되쇼년 아내가 네  
게 말하느니라 너나 거라 하시니 죽엇던 자 — 곳 안고 또 말하느니라 예수 — 그 아들 노써 어미  
게 주시니 모든 사름이 놀나 영화를 하는 님 썬 돌려 보내여 끌으되 큰 선지자 — 우리가 온디 나  
러나게 시니 하는 님 썬 셔이 제 빚성을 권고하는 도다 하더라 이에 이소문이 유다스 방과 근쳐  
에 폐이여 두루 밋치니라 ○ 요한의 데즈들이 일노써 다고 하니 요한이 드되 여 데즈 두 사름  
을 불너 혼여 품주 썬 보내여 끌으되 올이 가네 나우리가 다른 이를 브러라 하니 두 사름이 예수  
썬 나아 가 끌으되 세례를 주는 요한이 으리를 보내여 케나아와 말하라 하기를 올이 가네 나우  
리가 다른 이를 브러라 하니 하엿는 이다 이썬 에 예수 — 병든 사름을 만히 낫게 하시고 부마 혼이  
를 곳치시고 또 쇼경이 보는 거슬 엿게 하신 지라 드되 여 되 답하야 더 들의 게 끌으샤 되네 가 보  
고 듯는 바로 요한의 게 가고 하되 쇼경이 보고 안진 방이 든니 고라 창든 자 — 조출하고 귀 먹은 자  
— 듯고 죽은 자를 내려나 게 하고 가난 혼이의 게 복된 쇼식을 전하고 — 못날 보기를 슬회여 아  
니 하는 자는 복이라 하라 요한의 사자 — 간 후에 예수 — 요한을 드러 무리 드러 날으는 거슬 시  
작하야 끌으샤 되네 가 본디 들에 나가셔 무어 슬보고 저하느나 바룸에 움족이는 갈디냐 오  
직 무어 슬보고 저하느나 또 혼옷 슬납은 사름이나 못문 처 잇는 옷 슬납고 평안 혼자는 님금의  
궁에 잇느니 오직 그 러 하면 나가나 아가 무어 슬보고 저하느나 선지자 — 나 내가 네 게 날으는

너올라또한이논선지사에서놓히뛰여난자니라<sup>1</sup> 이사롬은괴록한자니니<sup>2</sup> 샬디네가  
 내스신을내압해보내여너를몬져야씨네길홀닥그라<sup>3</sup> 하니라<sup>4</sup> 하시니라<sup>5</sup> 나<sup>6</sup> 너드려말하  
 는니<sup>7</sup> 녀인에져난중에요한보다큰이업스디오직현국에는지극히적은이가더에셔더욱크니  
 라<sup>8</sup> 모든벽성과아전들이듯고다요한의세레를밧고이에하는님의을흐심을닐<sup>9</sup> 르되<sup>10</sup> 오  
 직바리샤이와법스들이그세레를밧지아니<sup>11</sup> 하고스스로하는님의뜻을항거<sup>12</sup> 하더라<sup>13</sup> 유<sup>14</sup> |<sup>15</sup> 클  
 으샤디지금세상사롬을내가장춧무엇과<sup>16</sup> 다고<sup>17</sup> 하며무엇과<sup>18</sup> 다<sup>19</sup> 하냐<sup>20</sup> 저즈에안자서로브르  
 는<sup>21</sup> 으히와<sup>22</sup> 다<sup>23</sup> 다<sup>24</sup> 클<sup>25</sup> 으되<sup>26</sup> 우리들이너희들의게피리를블되너희들이춤추지아나<sup>27</sup> 하며우리들  
 이슬피노래<sup>28</sup> 되너희들이올지아니<sup>29</sup> 하는도다<sup>30</sup> 대개세레를주는요한이니<sup>31</sup> 르<sup>32</sup> 셔<sup>33</sup> 을<sup>34</sup> 먹<sup>35</sup> 지<sup>36</sup> 아  
 나<sup>37</sup> 하며술을마시지아니<sup>38</sup> 거<sup>39</sup> 늘<sup>40</sup> 너희들인적그샤귀를접<sup>41</sup> 하였<sup>42</sup> 다고<sup>43</sup> 닐<sup>44</sup> 으고<sup>45</sup> |<sup>46</sup> 안<sup>47</sup> 즈<sup>48</sup> |<sup>49</sup> 니<sup>50</sup> 르<sup>51</sup> 셔<sup>52</sup> 을<sup>53</sup> 먹<sup>54</sup> 지<sup>55</sup> 아  
 마<sup>56</sup> 시<sup>57</sup> 기<sup>58</sup> 를<sup>59</sup> 임<sup>60</sup> 의<sup>61</sup> 로<sup>62</sup> 하<sup>63</sup> 매<sup>64</sup> 너희들이또닐<sup>65</sup> 으<sup>66</sup> 기<sup>67</sup> 를<sup>68</sup> 보<sup>69</sup> 아<sup>70</sup> 라<sup>71</sup> 이<sup>72</sup> 가<sup>73</sup> 이<sup>74</sup> 에<sup>75</sup> 탐<sup>76</sup> 식<sup>77</sup> 하<sup>78</sup> 는<sup>79</sup> 사<sup>80</sup> 롬<sup>81</sup> 이<sup>82</sup> 오<sup>83</sup> 기<sup>84</sup> 주<sup>85</sup> 하<sup>86</sup> 는<sup>87</sup> 사  
 롬<sup>88</sup> 이<sup>89</sup> 오<sup>90</sup> 아<sup>91</sup> 전<sup>92</sup> 파<sup>93</sup> 죄<sup>94</sup> 인<sup>95</sup> 의<sup>96</sup> 벗<sup>97</sup> 이<sup>98</sup> 라<sup>99</sup> 하<sup>100</sup> 는<sup>101</sup> 니<sup>102</sup> 오<sup>103</sup> 직<sup>104</sup> 슬<sup>105</sup> 과<sup>106</sup> 가<sup>107</sup> 슬<sup>108</sup> 과<sup>109</sup> 의<sup>110</sup> 즈<sup>111</sup> 식<sup>112</sup> 으<sup>113</sup> 로<sup>114</sup> 의<sup>115</sup> 틀<sup>116</sup> 놓<sup>117</sup> 히<sup>118</sup> 는<sup>119</sup> 니<sup>120</sup> 라<sup>121</sup> |<sup>122</sup> 오<sup>123</sup> 호  
 바<sup>124</sup> 리<sup>125</sup> 샤<sup>126</sup> 이<sup>127</sup> 사<sup>128</sup> 롬<sup>129</sup> 이<sup>130</sup> 있<sup>131</sup> 서<sup>132</sup> 예<sup>133</sup> 수<sup>134</sup> 씨<sup>135</sup> 하<sup>136</sup> 가<sup>137</sup> 지<sup>138</sup> 로<sup>139</sup> 잡<sup>140</sup> 스<sup>141</sup> 오<sup>142</sup> 시<sup>143</sup> 기<sup>144</sup> 를<sup>145</sup> 청<sup>146</sup> 하<sup>147</sup> 니<sup>148</sup> 드<sup>149</sup> 되<sup>150</sup> 여<sup>151</sup> 바<sup>152</sup> 리<sup>153</sup> 샤<sup>154</sup> 의<sup>155</sup> 집<sup>156</sup> 에<sup>157</sup> 드<sup>158</sup> 러<sup>159</sup> 가  
 샤<sup>160</sup> 자<sup>161</sup> 리<sup>162</sup> 에<sup>163</sup> 안<sup>164</sup> 지<sup>165</sup> 시<sup>166</sup> 니<sup>167</sup> 그<sup>168</sup> 읍<sup>169</sup> 닐<sup>170</sup> 에<sup>171</sup> 하<sup>172</sup> 는<sup>173</sup> 죄<sup>174</sup> 인<sup>175</sup> 이<sup>176</sup> 나<sup>177</sup> 바<sup>178</sup> 리<sup>179</sup> 샤<sup>180</sup> 이<sup>181</sup> 집<sup>182</sup> 자<sup>183</sup> 리<sup>184</sup> 에<sup>185</sup> 안<sup>186</sup> 지<sup>187</sup> 심<sup>188</sup> 을<sup>189</sup> 듯<sup>190</sup> 고<sup>191</sup> 향<sup>192</sup> 내<sup>193</sup> 나  
 는<sup>194</sup> 기<sup>195</sup> 롬<sup>196</sup> 을<sup>197</sup> 옥<sup>198</sup> 합<sup>199</sup> 에<sup>200</sup> 담<sup>201</sup> 아<sup>202</sup> 가<sup>203</sup> 지<sup>204</sup> 고<sup>205</sup> 예<sup>206</sup> 수<sup>207</sup> 발<sup>208</sup> 뒤<sup>209</sup> 헤<sup>210</sup> 서<sup>211</sup> 셔<sup>212</sup> 올<sup>213</sup> 어<sup>214</sup> 눈<sup>215</sup> 물<sup>216</sup> 노<sup>217</sup> 씨<sup>218</sup> 그<sup>219</sup> 발<sup>220</sup> 을<sup>221</sup> 적<sup>222</sup> 시<sup>223</sup> 고<sup>224</sup> 머<sup>225</sup> 리<sup>226</sup> 털<sup>227</sup> 노<sup>228</sup> 문<sup>229</sup> 지  
 르<sup>230</sup> 고<sup>231</sup> 그<sup>232</sup> 발<sup>233</sup> 에<sup>234</sup> 입<sup>235</sup> 을<sup>236</sup> 맞<sup>237</sup> 초<sup>238</sup> 고<sup>239</sup> 향<sup>240</sup> 내<sup>241</sup> 나<sup>242</sup> 는<sup>243</sup> 기<sup>244</sup> 롬<sup>245</sup> 으<sup>246</sup> 로<sup>247</sup> 씨<sup>248</sup> 바<sup>249</sup> 르<sup>250</sup> 니<sup>251</sup> 예<sup>252</sup> 수<sup>253</sup> 를<sup>254</sup> 청<sup>255</sup> 하<sup>256</sup> 바<sup>257</sup> 리<sup>258</sup> 샤<sup>259</sup> 이<sup>260</sup> 들<sup>261</sup> 이<sup>262</sup> 이<sup>263</sup> 거<sup>264</sup> 술<sup>265</sup> 보  
 고<sup>266</sup> 마<sup>267</sup> 음<sup>268</sup> 에<sup>269</sup> 닐<sup>270</sup> 으<sup>271</sup> 디<sup>272</sup> 이<sup>273</sup> 사<sup>274</sup> 롬<sup>275</sup> 이<sup>276</sup> 만<sup>277</sup> 일<sup>278</sup> 선<sup>279</sup> 지<sup>280</sup> 자<sup>281</sup> 면<sup>282</sup> 더<sup>283</sup> 어<sup>284</sup> 로<sup>285</sup> 문<sup>286</sup> 지<sup>287</sup> 는<sup>288</sup> 이<sup>289</sup> 가<sup>290</sup> 누<sup>291</sup> 구<sup>292</sup> 며<sup>293</sup> 었<sup>294</sup> 더<sup>295</sup> 하<sup>296</sup> 는<sup>297</sup> 죄<sup>298</sup> 인<sup>299</sup> 줄<sup>300</sup> 을<sup>301</sup> 알<sup>302</sup> 거  
 시<sup>303</sup> 니<sup>304</sup> 대<sup>305</sup> 개<sup>306</sup> 죄<sup>307</sup> 인<sup>308</sup> 이<sup>309</sup> 라<sup>310</sup> 하<sup>311</sup> 더<sup>312</sup> 라<sup>313</sup> |<sup>314</sup> 예<sup>315</sup> 수<sup>316</sup> |<sup>317</sup> 닐<sup>318</sup> 너<sup>319</sup> 클<sup>320</sup> 으<sup>321</sup> 샤<sup>322</sup> 디<sup>323</sup> 시<sup>324</sup> 문<sup>325</sup> 아<sup>326</sup> 나<sup>327</sup> |<sup>328</sup> 네<sup>329</sup> 게<sup>330</sup> 닐<sup>331</sup> 을<sup>332</sup> 말<sup>333</sup> 이<sup>334</sup> 하<sup>335</sup> 나<sup>336</sup> 있<sup>337</sup> 다<sup>338</sup> 더  
 |<sup>339</sup> 클<sup>340</sup> 으<sup>341</sup> 디<sup>342</sup> 스<sup>343</sup> 승<sup>344</sup> 은<sup>345</sup> 청<sup>346</sup> 쟌<sup>347</sup> 대<sup>348</sup> 말<sup>349</sup> 소<sup>350</sup> 하<sup>351</sup> 쇼<sup>352</sup> 셔<sup>353</sup> |<sup>354</sup> 클<sup>355</sup> 으<sup>356</sup> 샤<sup>357</sup> 디<sup>358</sup> 빛<sup>359</sup> 준<sup>360</sup> 사<sup>361</sup> 롬<sup>362</sup> 이<sup>363</sup> 두<sup>364</sup> 빛<sup>365</sup> 진<sup>366</sup> 자<sup>367</sup> 가<sup>368</sup> 있<sup>369</sup> 스<sup>370</sup> 니<sup>371</sup> 하<sup>372</sup> 나<sup>373</sup> 혼<sup>374</sup> 으<sup>375</sup> 빅  
 량<sup>376</sup> 이<sup>377</sup> 오<sup>378</sup> 하<sup>379</sup> 나<sup>380</sup> 혼<sup>381</sup> 으<sup>382</sup> 십<sup>383</sup> 량<sup>384</sup> 이<sup>385</sup> 라<sup>386</sup> |<sup>387</sup> 임<sup>388</sup> 외<sup>389</sup> 가<sup>390</sup> 허<sup>391</sup> 감<sup>392</sup> 지<sup>393</sup> 못<sup>394</sup> 하<sup>395</sup> 거<sup>396</sup> 늘<sup>397</sup> 더<sup>398</sup> |<sup>399</sup> 다<sup>400</sup> 량<sup>401</sup> 감<sup>402</sup> 하<sup>403</sup> 여<sup>404</sup> 주<sup>405</sup> 었<sup>406</sup> 시<sup>407</sup> 니<sup>408</sup> 그<sup>409</sup> 러<sup>410</sup> 하<sup>411</sup> 면<sup>412</sup> 두  
 사<sup>413</sup> 롬<sup>414</sup> 중<sup>415</sup> 에<sup>416</sup> 어<sup>417</sup> 는<sup>418</sup> 사<sup>419</sup> 롬<sup>420</sup> 이<sup>421</sup> 처<sup>422</sup> 주<sup>423</sup> 롬<sup>424</sup> 에<sup>425</sup> 일<sup>426</sup> 스<sup>427</sup> 량<sup>428</sup> 하<sup>429</sup> 겠<sup>430</sup> 는<sup>431</sup> 나<sup>432</sup> |<sup>433</sup> 시<sup>434</sup> 문<sup>435</sup> 이<sup>436</sup> 디<sup>437</sup> 답<sup>438</sup> 하<sup>439</sup> 야<sup>440</sup> 클<sup>441</sup> 으<sup>442</sup> 디<sup>443</sup> 내<sup>444</sup> 성<sup>445</sup> 각<sup>446</sup> 에<sup>447</sup> 는<sup>448</sup> 예<sup>449</sup> 일  
 만<sup>450</sup> 히<sup>451</sup> 량<sup>452</sup> 감<sup>453</sup> 하<sup>454</sup> 야<sup>455</sup> 준<sup>456</sup> 이<sup>457</sup> 니<sup>458</sup> 이<sup>459</sup> 다<sup>460</sup> 클<sup>461</sup> 으<sup>462</sup> 샤<sup>463</sup> 디<sup>464</sup> 네<sup>465</sup> 소<sup>466</sup> 견<sup>467</sup> 이<sup>468</sup> 올<sup>469</sup> 라<sup>470</sup> 하<sup>471</sup> 시<sup>472</sup> 고<sup>473</sup> |<sup>474</sup> 드<sup>475</sup> 되<sup>476</sup> 여<sup>477</sup> 계<sup>478</sup> 집<sup>479</sup> 을<sup>480</sup> 도<sup>481</sup> 라<sup>482</sup> 보<sup>483</sup> 시<sup>484</sup> 며<sup>485</sup> 시<sup>486</sup> 문

드려닐너 끌으샤 되니 | 이계집을 보았는 나나 | 네집에 드러오매 너는 내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 할되 오직이 계집은 눈물노써 내발을 적서우고 머리털 노문지르며 너는 나를 입맛초지  
아니 할되 더는 나드러올 때로 브러입으로써 내발을 입맛초기를 곳치자 하니 할며 너는 기름  
으로써 내머리에 바른 자 하니 할되 더는 향내나는 기름으로써 내발에 바른 지라 이런고로  
나 | 너드려닐으는 너더의 만흔 죄를 샤함을 보는 거손그스링함이 만흔이 오오직 샤함을 보는  
거시적은 거손그스링함이 또 흔적음이니라 | 이에 계집드려닐너 끌으샤 되니 네 죄사 할었는  
라 하시니 자리를 혼가지로 할었던 자 | 처음으로 스스로 이닐너 끌으되 이엇던 사람이 완대  
죄를 샤 할다 할었는 나 할되 더라 예수 | 계집드려닐너 끌으샤 되니 네 밋음이 너를 구 할었서 너가  
히안연이 도라 갈지어다 하시니라

### 데 괄 장

이후에는 예수 | 두루 모든 고을과 촌에 노르샤도 전하고 하는 너의 나라 회복  
음을 뵈일시 열두 데즈와 할가자로 하고 또 할마귀 들너 병드러다가 임의 곳

친녀인이 두어시잇스니 곳 예수 | 닐곱귀신을 쫓던 막다리란 마리아와 또 할헤르의 지상쿠  
사외안히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녀인이 잇는 바를 다 할야 예수 를 받드러 섬기더라 ○  
만흔 무리 모도 하고 모든 고을 노말미암아 예수 씨나 아오니 예수 | 비유를 배퍼닐으샤 되  
오느자 가씨를 썩오라고 나아가 씨를 때에 더러는 길가헤 찌러 지니 끓히고 공중에 새가 먹으며  
더러는 바회우회 찌러 지니 저 짐이 업는 고로 짝이나며 곳 무르며 더러는 가식속에 찌러 지  
니 가식이 곳 처나셔 가리우며 또 더러는 옥토에 찌러 지니 나고 열미가 빅비나 난다 하시니라  
이말씀을 못츠시매 불너 끌으샤 되니 귀가 잇서 드물자는 맛당히 드물지어다 데즈 | 무리 끌  
디이 비유는 엇지 할심이니 잇고 끌으샤 되니 하는 너의 나라 희오묘 할의 리를 너희게 주어 알게  
주건니와 오직 다른 사람의 게는 비유로 주는 거손보아도 보지 못하고 드러도 찌러지 못하는도  
다 이 비유는 이에 써는 하는 너의 말씀이 오 길것해 잇는 거손 말씀은 이니 마귀가 사를 어

밋고 구홍을 엿을 가 두려야 곳와서 그 모음에서 밋음을 아 숨이 오 돌우해 잇는 거 손사름이  
 뜻도 깃뵈므로 밋음을 밋으되 오직 셤회 가 업서 잠간 밋었다 가 시험하는 때에 비반홍이 오 가  
 시속에 찌러지는 거 손사름이 밋음을 뜻고 가다가 세상의 모든 념려와 지물과 일락에 가 리운바  
 | 되어 결실치 못홍이 오 그러나 옥도에 잇는 거 손사름이 착하고 眞혼량심으로써 밋음을 뜻  
 고 직희고 인덕으로 결실홍을 하니라 사름이 초불을 허셔 그릇으로써 덩겨나 상아래 두는 이  
 업고 다만 초티우혜 두어 드러가는 자로 하여 품그 빗출보게 하는 니 대개 숨겨도 장차 나라나  
 지아니 할것업스며 곱초아도 장차 알고 북게 드러나지아닐것업스니라 그런고로 엿더게 드  
 림는 지삼가 할라대개 잇는 자의게는 장차 줄거시오업는 자에서는 곳모양으로 잇는 것지하  
 사가리라 ○ 때에 예수외 모친과 그 동성이 니르러 사름이 만홍으로써 갖가움을 엿지 못하니  
 후이 고 할야 끌으되 그 모친과 동성이 밋과서 서너물보고 저하는 니라 하니 예수 | 디답하  
 야 끌으샤 디내 모친과 밋내 데형은 이에 하는 님의 말을 듯고 힘하는 자 | 니라 하시더라 ○  
 향로는 예수 | 문도와 할가 지로 비애오르실시 예수 | 님을 끌으샤 디우리 무리 호슈를 건너자  
 하시고 드디여 떠나 때 | 힘할 때에 예수 | 잠이 드르셨더니 못출 풍랑이 호슈에서 니러나 물이  
 비에 득할고 위티홍이 심할지라 문도 | 나아가 썩워 끌으되 스승아 스승아 우리들이 죽게  
 는 이다 예수 | 니러나 사바롬과 물결을 썩지 지시니 곳곳 평안하더라 예수 | 문도드러닐  
 너 끌으샤 디내 희밋음이 어디 잇는뇨 하시니 무리 놀나고 또 혼피이 허녀서로 님을 끌으되 이  
 엿더 할사름이뇨 바롬과 물을 명하니 곳순히 하는 도다 하더라 ○ 갈디의 아틀마 주흔게 라센  
 짜헤 니르니 예수 | 짜흐로 리시매 할사름이 잇스니 오래 부마 할야 옷술 남지아니 하고 집  
 에서 사지아니 하고 다만 무덤에서 사는 사름을 셤밋과서 맛나니 예수 | 를 뵈옵고 곳그압해 부  
 복할야 크게 소리 할야 불너 끌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는 님의 아 들 예수여나 | 너로 무어시 상관  
 이 잇는뇨 베게 구하는 니나 를 고 롭게 말으쇼서 대개 예수 | 임의 더러운 샤 귀를 명하샤 이 사

누가복음 데 팔장

심



룬의게나아가라 하시되 이 사귀가 갓금이 사름을 강잉하시니 쇠사슬과 교량으로 써 미어  
 직희되 곳 밧거 솔코 사귀로 들에 쫓치 인바 | 되엿더라 예수 | 무리 끌으샤 디네 일홈이 무  
 어 신고 하시니 디 답하시야 끌으 디 군이니 대개 사귀가 만홈이라 드 디여 예수 띄 구하시야 그 곱  
 디로 나아가지 말고 더디 만흔 되야 지 잇서 산에서 먹는지라 그 되야 지 게로 드러 가 기를 허락  
 하시심을 온 구하시니 이에 허락하시매 사귀가 드 디여 그 사름의 게셔 나야 와 되야 지 게로 드러 가  
 니 그 무리 산 밧탈 노달 아나 호슈에 드러 가 괴 식하시라 기 르는 자 | 그 된 바 를 보고 즉시 달  
 아나 고 을 과 촌 으 로 전 하시니 나야 가 된 바 를 보고 저 하시야 예수 띄 니 르 매 사귀 들이 나야 간 사름  
 이 옷 솔 납 고 천 연이 예수의 밧아 래 안 잔 거 솔 맛 나니 무셔 워 하시며 본이 들이 마 귀 들 난 사름이  
 엿 더 케 나 홈 을 널으 매 게 라 셴 디 방 스 방 으 로 온 무 리 가 크 게 두 려 워 하시야 예수 띄 나 시 기 를  
 구 하시니 예 수 | 비 에 올 나 도 라 가 실 식 사 귀 나 야 간 사 립 이 혼 가 지 로 가 기 를 구 하시니 예 수 |  
 보 내 사 립 으 샤 디 네 집 에 도 라 가 하 는 님 썩 셔 케 게 혼 바 엿 지 큰 거 솔 사 립 의 게 되 라 하시니 더  
 드 디 여 온 고 을 노 가 예 수 | 더 를 위 하시야 엿 지 크 게 혼 바 를 전 하시라 예수 | 임 의 도 라  
 오 시 매 무 리 들 이 깃 버 밧 으 니 대 개 다 기 드 립 이 러 라 또 혼 바 로 란 사 립 이 왔 시 니 성 연 을 쥬 장  
 하시니 예 수 밧아 래 업 드 러 제 집 에 니 르 시 기 를 구 하시니 대 개 제 케 다 만 열 두 설 먹 은 썩 하시니 만  
 잇스 니 죽 어 가 는 지 라 그 러 나 예 수 | 힘 하시 때 에 무 리 옹 위 하시니 열 두 히 철 루 병 든 녀 인 이 의  
 원 으 로 그 제 간 을 다 하시 되 능 히 낫 지 못 하시니 예 수 | 뒤 흘 썩 라 그 옷 깃 솔 문 지 니 피 흐 르  
 는 거 시 죽 시 곳 치 는 지 라 예 수 | 끌으 샤 디 나 를 문 지 는 자 | 뉘 고 다 알 지 못 할 시 베 드 루 와 밧  
 혼 가 지 잇는 자 | 끌으 디 스 승 아 무 리 너 를 옹 위 하시야 갓 가 이 꺾 박 하시니 예 수가 나 를 문 지 는  
 나 무 르 시 는 니 잇 가 예 수 | 디 답 하시야 끌으 샤 디 누 구 던 지 나 를 문 졌 는 니 라 대 개 내 가 내 게 서  
 능 홈 이 나 야 가 는 거 솔 아 노 라 나 를 문 지 는 자 | 잇스 니 내 능 홈 이 날 노 말 미 암 아 나 옴 을 썩 듯 노  
 라 하시더라 녀 인 이 능 히 숨 기 지 못 할 줄 을 알 고 셴 며 니 르 러 업 디 여 여 러 뵙 성 압 해 서 문 전 연

고와다 못엿더 제 곳나 혼연고 료고 하니 <sup>四八</sup> 예수 | 널너 끌<sup>五</sup> 사디 열아 안심홀지어 다네 밋음어  
 너를 구하엿서 니 평안이가 라하시더라 <sup>四九</sup> 말삼하실 때에 성던 주 장하는 사람의 집에서 누가와  
 서 말하야 끌<sup>五</sup> 디네 열이 죽엇시니 스승을 슈고 롭게 말나 하시거늘 <sup>五〇</sup> 예수 | 드르시고 끌<sup>五</sup> 사디  
 거정말고 오직 밋기만 하야 라 또 열이 구함을 엿으리라 <sup>五一</sup> 집에 드러 갈시베드로와 요한과 야  
 곱과 그 열의 부모외에는 드러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sup>五二</sup> 무리들이 울고 의동하니 예수 | 널너  
 끌<sup>五</sup> 사디 열을 지 말나 죽지 아니하고 다만 자느니라 <sup>五三</sup> 무리들이 죽은 줄을 아느고 희롱하야 웃  
 더라 <sup>五四</sup> 예수 | 처녀의 손을 잡고 말삼하야 끌<sup>五</sup> 사디 이<sup>五</sup> 히야 니러나 라 하시니 <sup>五五</sup> 혼이 다시와  
 곳니러나 거늘 예수 | 먹을 거슬 주라 명하시 때 부모 | 놀나느니라 예수 | 분부하샤 힘호 일을  
 다른 사람의게 말하지 말나 하시니라

### 데 구 장

예수 | 열 두 문도를 불너 모도시고 샤귀를 쫓고 병을 곳치느 능과 권을 주시고 <sup>一</sup>  
 보내여 하느님의 나라음을 반포하시고 또 호병잇는 자를 낫게 하시고 <sup>二</sup>  
 널너 끌<sup>五</sup> 사디 길헤서 쓸로비와 집힘이와 주던이와 떡과 돈과 두벌 옷슬가지 지말고 <sup>三</sup> 남의 집  
 에 드러가 매 드러가는 바집에 거괴서 거하고 갈 때에 또 호거괴서 셔 나라 <sup>四</sup> 너희를 밋지 아니하  
 는 자 | 잇거든 그 읍셔 나 올 때에 너희 발에 몬지 물 썩러 버려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sup>五</sup> 데즈 |  
 곳나 아가 두루 각 촌에 힘하야 잇는 디 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곳치더라 <sup>六</sup> 헤롯왕이 예수의  
 힘하느 모든 일을 듣고 곳의 심하야 말을 두디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 낫다 하며 <sup>七</sup> 또 말을 두디 이  
 리 아가 나타 낫다 하며 또 말을 두디 이전 선자 하니 하살아 낫다 하더라 <sup>八</sup> 헤롯이 끌<sup>五</sup> 디 요한  
 을 내가 임의 목을 버헿거늘 이제 이련 일을 드르너 엿더 호사 틈인고 곳보고 시배하더라 <sup>九</sup> 문  
 도 | 도라와 힘하바로써 예수께 고하니 예수 | 잇고시고 만이 들에 가게시니 비사 다 큰 고을  
 에 속한 디라 <sup>一〇</sup> 무리가 알고 곳셔라 가니 예수 | 무리를 접디 하샤 더 브러 하느님의 나라 홀강론  
 하시고 병 곳치기를 기드리는 자는 곳치더라 <sup>一一</sup> 날이 저물매 열 두 문도가 나아와 끌<sup>五</sup> 디 청컨

누가복음

데 구 장

십 일



대못사람을 호히 두루 향촌으로 가서 자기 밥을 얻게 하쇼셔 대개 우리 잇는 여과가 들이니이다  
 예수 | 날 너 낄으샤 디 너 희가 먹을 거슬 주어라 우리 만일 여러 사람을 위하야 먹을 거슬 사지  
 아니 할면 계우 썩다 스덩이와 물고기 두마리 밧게 업스옵는이다 대개 사람은 오천이나 되더  
 라 예수 | 문도 드려 날 너 낄으샤 디 무리로 하여곰 벌여 안게 하디 오십 명씩 안게 하라 하시니  
 문도 | 이러케 하야 곳 무리로 하여곰 벌여 안게 하매 예수 | 썩다 스덩이와 물고기 두마리  
 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쳐원하시고 떼여 문도의게 주어 못사람의게 노흐니 다 먹어 비부르  
 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열두 광주리를 채우니라 예수 | 홀노 가서 기도 할실시 문도  
 | 혼자 지로 하디니 예수 | 무리 낄으샤 디 무리 들이나 둘 누구라고 말하노뇨 디 답하야 낄으  
 디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도 하며 혹은 이리야 | 라도 하며 혹은 이전 선지자의 하나 히다 시 살  
 아 낳다 하디이다 예수 | 날 너 낄으샤 디 너 희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노냐 베드로 디 답하야  
 낄으 디 하노 님의 그리스도 시 니이다 예수 | 경계 하샤 일노 써 사람의게 낄으 지 말나 명하  
 시고 또 낄으샤 디 인즈 | 반드시 만히 고로움을 밧아 장로와 제사장 과 선비의 버린바 | 되고  
 또 혼죽임을 보아 데 삼일에 다 시 브 할하리 라 하시고 또 무리 드려 날 너 낄으샤 디 나 를 좃고 저  
 하느자는 곳 맛당히 몸을 이과 여 날 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 를 좃칠 거시니 대개 제 성명을 구  
 하고 저하느자는 장 첫 일 할 거시오 오직 나 를 위하야 성명을 일느자는 반드시 구 할 거시니 사  
 람이 만일 런하를 다 엇고 저괴는 일코 망하면 무슴 유익 흥이 잇스리오 대개 나와 내도 를 붓그  
 러 위하느자는 인즈가 저괴와 저의아 바지와 거룩 할런스의 영화로 강림 할실 때에 또 혼 반드 시  
 이 사람을 붓그 러 위하리 라 나 | 진실 노 너 드려 날 너 니여 과 선자 몇 처하느 님의 나 라 할보  
 기 전에 반드시 죽지 아니 리라 ○ 이 를 말 승 승 선 후 대략 팔 일에 예수 |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을 드리고 산에 올라 기도 하시니 기도 할 실 때 예수 | 용모 | 변하시 고 그 옷이 희고 빛 처부  
 식이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혼자 지로 말하느 곳의 식 호세와 이 리야 | 라 영광 속에 잇서

나라 내고 예수 |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말씀하니 베드로와 함께 가지로 있던 자 곧 야  
 조을 더나 임의 아조 쟈여 예수의 영화와 두 사람이 한가지로 선거슬 보고 서로 쟈날 때에 배드  
 로 예수 쟈엿조와 오닐 디스승아 우리들이 어긋잇는 거시요 하니 우리를 용납하야 짐세 흘지어  
 하나 혼쥬를 위하고 하나 혼모세를 위하고 하나 혼이리아를 위하겠다 하나 그러나 닐으는 바를  
 아지 못하더라 이 말 할 때에 구름이 잇서 덮고 구름 속으로 드러가니 곳 무셔오며 소리가 잇서  
 구름으로 조차나와 오닐 디스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나 | 뻔바 | 니 드를 지어다 소리고  
 요하며 보니 예수 | 홀노 계시니 문도이에 입을 담을고 묵묵하야 본바를 사람의 게닐으자아니  
 하니라 잇 혼날에 산에 나리시니 무리 마질식 그중에 한 사람이 불너 콜으 디스승아 내 아들  
 을 보아주시기를 구하는 이대 개이 는 나의 하나 만나 혼조식이어 놀샤 귀의게 잡히임이 되  
 여 홀다에 부르지지지며 슈족이 오구러 지고 춤을 흘너 해 롭게 하오니 쟈기 실노어려온 지라 그  
 데 조의게 쫓차주시기를 구하디더 | 능히 못하엿는 이다 예수 | 디 답하야 콜으 샤 디 슬프다 밋  
 음이 업고 패역한 계상이여나 | 너 희를 흘 쟈며 너 희를 참은 자가 얼마나 또 네 조식을 드리고  
 이리 오라 하시니 을 때에 샤 귀가 것구러 쟈리고 슈족을 심히 오구러 지게 하거늘 예수 | 더러  
 온 샤 귀를 쟈지조고 그으 희를 낮게 하샤 그아 비게 주시니 무리하는 님의 큰 능을 이 상이 녀  
 이고 예수의 힘한 바를 괴이히 녀이더라 쟈에 예수 | 문도드려 닐너 콜으 샤 디 | 너 | 맞당히 이  
 말노 쟈 귀에 곱출지니 대개 인조 | 장차 사람의 손에 내여 중을 보리라 문도 | 이 말을 알지 못  
 하고 은 밀하야 쟈 못하나 감히 이 말 숨 못기를 무셔 위하더라 쟈에 데 조들이 스스로 이 누  
 가 크나 의 론하니 예수 | 그 뜻을 알으시고 어 린으 희를 가져 것 해 두시고 문도드려 닐너 콜  
 으 샤 디 못내 일 흠을 위하야 어 린으 희를 디 접하는 자는 곳나 물 디 접함이 오또나를 미 접하  
 는 자는 나 보낸 이를 곳 디 접함이 니대 개너 회중장적은 자 가 이 는 큰 자 | 니라 요한이 고 하  
 야 콜으 디스승아 우리들이 보니 한 사람이 네 일 흠으로써 샤 귀를 쟈고 금하오니 그 우리들을 쟈

누가복음

데구장

십이

지아님이니 다 예수 | 큰 오샤 디금히 지말나 므릇 우리를 치지 아니 하는 자는 우리를 곳 향하  
 는니라 예수 | 승련히 실피약이니라 매바로 예루살넴으로 가샤 힘히 실시 사자를 보내여  
 압흐로가게 하시고 더 | 드디여 사마리아 동녘에 드러가셔 예비하라 하시더니 동녘 사람  
 이에 루살넴으로 향하야 힘히 시는 연고로 드리지 아니 하는지라 문도야 급요한 이를 보고  
 곳 큰 오디 주야나 | 불을 불너 하늘로 조차느려와 멸호 오리잇가 한대 예수 | 도라보시고 사  
 지저 큰 오샤 디네 믿음이었더흔 거슬네 가스스로 하지 못하는도다 대개 인조가 오기는 인명  
 을 멸하고 저함이 아니 오이에 써 구하고 저함이 라 하시고 드디여 다른 식골노가 시니라 ○ 길  
 헤 힘히 실때에 흑이 옛 조와 큰 오디 주야 어디를 가시던 지내가 너를 좃고 저하는 이다 예수 |  
 디답하야 큰 오샤 디여 호도 굴이 잇스며 공중에 새도 깃드릴 잇스디 오직 인조는 머리를 들 곳  
 이 업노라 하시고 또 한 사람 드러닐너 큰 오샤 디나를 좃치라 하시니 큰 오디 주야 나를 용납하  
 샤 몬져가 내어 버어 이를 장스지 내게 하쇼셔 예수 | 큰 오샤 디 죽은 자를 맛혼 자의게 그 죽은 이  
 를 장스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님의 나라 훌 펼지어다 또 한 사람 아 큰 오디 주야 나 | 너를 좃  
 고 저하는 니 다만 나를 용납하샤 몬져 도라가 내 집 안 사람을 작별케 하쇼셔 예수 | 널 큰 오  
 샤 디 손에 보습을 잡고 뒤 흘도라 보는 이는 하는 님의 나라 해 맛 당치 아니 하니라

### 대 십 장

이후에 주 | 또 한 철 심인을 세우시고 들 식 들 식 압호로 보내 실시 그 가시고 저  
 허던 모든 고을과 모든 디방으로 드러가게 하시고 이에 널 큰 오샤 디 거 들  
 거 손만 호나 일군이 적으니 맛 당히 거 들은 주인의 계 구하야 일군을 거 들 곳 에 보내라 할 지니  
 같 지어 다 나 너를 보내 디 양이 일 회 가 온 디 드러 가는 것 갓 하니 전 디와 주 면이와 신을 가 지  
 지 말며 길 해서 사람의 계 안 부치 말며 사람의 집 에 드러 가 매 드러 가는 바 집 에 몬져 말 하 디 이  
 집 이 평 안 하라 하야 만 일 후 더 기 평 안 함을 엮은 사람이 잇거든 평 안 함이 올 거 시 오 그러 처 아  
 니 면 곳 에 게 도라 가 리라 그 집 에 거 하야 주는 거 슬 먹고 마실 거 시 니 삭 군 이 그 갑 슬 엮는 거

시맛당하니라이집으로더집에음지말고<sup>八</sup> 드러가는바음뉘에사름이너희를밧거든그너희  
 압헤베른바를먹고<sup>九</sup> 거괴잇는병든자를곳치고또말홀거손하는님의나라하네게갓가오니  
 라하고<sup>十</sup> 음뉘에드러가사름이너희를밧지아니하거든곳거리로나오며끌오디<sup>十一</sup> 네음뉘에  
 몬지도우리의게뭇은거슬우리가너희를그르다하야썰니니그러나너<sup>十二</sup> 맛당히하는님의나  
 라하네게갓가온줄을알지니라<sup>十三</sup> 나<sup>十四</sup> 너드려말하는니당일에소도마가그음뉘보다견  
 디기가쉬오리라<sup>十五</sup> 화앙이로다코리신아화앙이로다빅식디야대개게셔힘흔능을만일투  
 로와시돈에셔힘하였더면더<sup>十六</sup> 밧셔삼옷슬넘고죄에안고뉘웃쳐곳쳤시리라<sup>十七</sup> 그러나심판  
 날에니르러투로와시돈도너보다견디기가쉬오리라<sup>十八</sup> 가벨농아비룩네가던당에오를듯서  
 브나디옥에셔러지리라<sup>十九</sup> 또끌오디너희를듯는자는곳나를듯는거시오너희를막는자는곳  
 나를막음이오나를막는자는곳나를보낸이를막는거시니라<sup>二十</sup> 칠십인이깃버도라와끌오  
 디쥬여네일홈으로샤귀도또흔내게항복하더이다<sup>二十一</sup> 예수<sup>二十二</sup> 디답하야끌오샤디나<sup>二十三</sup> 사란이  
 가하늘노번개긋쳐떠러지는거슬보았시니<sup>二十四</sup> 나<sup>二十五</sup> 네게권을주어가히비암을끓으며원슈를  
 제어홀모든권세를주느니반드시너를해하게홀자가업스리라<sup>二十六</sup> 그러나샤귀가네게항복하  
 는거스르써깃버하지말고네일홈이하늘에괴룩홈으로써깃버하라<sup>二十七</sup> 이때에예수<sup>二十八</sup> 성령으  
 로깃버하샤끌오샤디아바지여던디의쥬<sup>二十九</sup> 시라나<sup>三十</sup> 너를찬양하는니너<sup>三十一</sup> 이도를슬괴롭고  
 잘난이의게는숨기시고적즈의게는드러내시는도다아바지그러하신지라너<sup>三十二</sup> 이러할거슬  
 보고도화하는지라<sup>三十三</sup> 만물이내아바지로말미암아내게준거시니아바지외에는아들을아는  
 이업고아들과밧아들이나타님을뵈신자와에는아바지를아는자<sup>三十四</sup> 업는이다하고<sup>三十五</sup> 예수<sup>三十六</sup>  
 문도를도라보시고<sup>三十七</sup> 만이닐너<sup>三十八</sup> 샤디너의보는거슬보는자는그눈이복이니라<sup>三十九</sup> 대개내  
 가너드려말하는니이전에어려션자와님금이너의본바를보고저하는이만흐디엇어보지못  
 하였시며너의드른바를듯고저하는이만흐디엇어듯지못하였느니라<sup>四十</sup> <sup>四十一</sup> 법을그르쳐는이

가니라 시힘야 끌으되 스승아 나는 맛당히 무어 슬하야 영성을 얻으리 잇고 제 6 예수니  
 너 끌으샤 디법에 귀 록하바 엇더하며 네가 늙은바 엇더하뇨 제 7 디답하야 끌으되 내 마음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야 주께 하는 님을 사랑하고 또 하네 리 옷을 몸과  
 처 사랑하라 하엿는 이다 제 8 예수니 네 끌으샤 디답하바 가 올흐니 이를 힘하 주 반드사 살  
 니라 하시니 제 9 이 스스로 올흠을 닦고 저하야 예수께 엿와 끌으되 누가 내 리 웃이 되는 니 잇  
 고 제 10 예수니 디답하야 끌으샤 디답하야 거 의 죽게 하엿거늘 버리고 갔는 지라 제 11 못춤하 제 스장이  
 맛나도적이 그 옷 슬 벗기고 또 상하야 거 의 죽게 하엿거늘 버리고 갔는 지라 제 12 못춤하 제 스장이  
 이 길 노느려 가다가 보고 길 다 른 편으로 지나가고 제 13 또 이 위 사 록이 그곳에 니르러 압흐로나 아  
 가 보고 또 흐릿춤 지나가되 제 14 오직 사 마 리 아 사 록은 힘하야 거과 니르러 보고 민망이 녀여 제 15 압  
 흐로 갖가 이 하야 기 록과 술노 써그 상하 디를 바르고 싸미여 저과 든 거스로 티우고 잇그 러 주막  
 에 니르러 구원하고 제 16 잇흔 날 힘하적 에 돈 두 돈을 취하야 주막 주인을 주어 끌으되 이 사 록을 도  
 라 보되 부비가 더 만흐면나 제 17 도라 올 때 에 네 게 갑흐라 하엿시니 제 18 네 뜻에 는 이 세 사 록 중에  
 누가 도적 맛난 자 의 리 웃이 되겟는 나 제 19 끌으되 불상이 녀 인 이 가 이 니 이 다 예수니 제 20 끌으샤 디너  
 는 가 서 이를 본 밧아 힘하라 제 21 무 리 힘하 때 에 예수니 제 22 흔촌 에 드러 가 시니 제 23 흔녀 인 의 일 흥 마 르다  
 라 하 는 이 가 마 자 그 집 에 드러 가 니 제 24 그 동 성 마 리 아 가 예수 발 아래 안 저 그 도 물 듯 더 니  
 마 르다 가 이 바 지 하 는 일 이 만 흠으로 모 용 이 분 주 흔 지 라 예수 쟈 나 아 가 끌으되 주 여 내 동 성 이  
 나 흔 자 일을 하 게 하 니 너 제 25 생각 지 아 니 하 시 는 니 잇 가 맛 당 히 더 를 명 하 야 나 를 돕 게 하 쇼 서  
 예 수 제 26 디답하야 끌으샤 디 마 르다 야 마 르다 야 너 제 27 녀려 하 고 근 심 하 는 거 시 만 하 나 제 28 그러 나  
 쓸 바 는 하 나 히 라 하 시 니 마 리 아 제 29 임 의 착 하 업 을 갈 회 오 니 못 춤 내 더 로 말 미 암 아 쟈 앓 지 못 하  
 리 라 제 30 예수 제 31 흘 곳 에 서 기도 하 시 고 임 의 못 처 매 문 도 가 잇 서 닐 너 끌으되 주

**제 십 일 장**

예 우리 를 기도 마 르 처 기 를 요 한 이 그 문 도 의 게 기도 마 르 처 주 파 오 치 하

쇼셔 = 예수 | 빌너 끌으사 디너 희기도 할 때에 이레게 하라 우리 아버지 신자여 네 일흥이 거룩  
 하시며 네 나라 히림 하시며 <sup>三</sup> 우리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sup>四</sup>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 가우  
 리게 득죄 할 자를 면하여 중갓치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쇼셔 또 할 우리 를 흉악  
 에 구하쇼셔 하라 <sup>五</sup> 또 빌너 끌으사 디너 희중에 후벳이 잇서 밤중에 네게 외끌으되 벳아 썩세 덩  
 이로 내게 하이라 <sup>六</sup> 대개 내 벳이 길홀갓다가 내게로 왔시나 내가 줄거시 업노라 하거든 <sup>七</sup> 더  
 안헤셔 디 답하야 빌으되 나를 번거이 말나 문이 임의 닷치고 히 들이나 외흔가지로 평상에 누  
 었시니 너 나라 내게 줄수가 업노라 하리니 <sup>八</sup> 나 | 너 드려 말하느니 비록 그 벳을 위하야 나  
 주지 아닐지라도 그 달남으로 써 반드시니라 쓰라 는 대로 줄지니라 <sup>九</sup> 나 | 또 너 드려 빌으  
 니 구하라 또 할 내게 줄거시오 찾지라 또 할 맛날거시오 문을 두드리라 또 할 열리니 <sup>十</sup> 므로 구  
 하느니 이마 었는 거시오 찾느니 이마 다 맛나 는 거시오 문을 두드리느니 이마 다 장차 열물엇으리라  
<sup>十一</sup> 너희들중에 아 비 된이가 누가 즈식이 썩을달나 할면 돌을 주며 고기를 달나 할면 비암을 주어  
 고기를 디신 할것시며 <sup>十二</sup> 알을 달나 할면 전갈을 주겟느나 <sup>十三</sup> 너희들은 비록 악할지라도 오히려  
 도 혼거스로 써 줄줄을 알거든 할물며 하늘에 계신너희 아버지 는 성령으로 써 구하느거슬 주시  
 지아니 할겟느나 <sup>十四</sup> 예수 | 할사귀를 썩치시니 이에 벳어리더니 사귀가 임의나 아가 매 벳어  
 리 말하느니라 무리 괴이히 녀이나 <sup>十五</sup> 그중에 말하거룰더 | 사귀의 왕 벨시 불을 방자 하야 사귀  
 를 썩는다고 <sup>十六</sup> 또 후이 시험하야 하늘에 징조로 써 뵈임을 구하니 <sup>十七</sup> 예수 | 그 썩을알으시고  
 빌너 끌으사 디므로 나라 히서로 닷도면 반드시 멸하고 집이서로 닷도면 반드시 문히 지느니  
<sup>十八</sup> 만일 사단이서로 닷도면 그나라 히 었저서 리오 너의 말이 내가 벨시 불노써 사귀를 썩는다고  
<sup>十九</sup> 내가 만일 벨시 불노써 사귀를 썩치너희 예조는 누구로써 썩느냐 그러고로더 | 장차 너희  
 물론 난 할이가 되리라 <sup>二十</sup> 그러나나 | 만일 하는님의 손가락으로 사귀를 썩치너희  
 라히너희게 림할엇느니라 <sup>二十一</sup> 대개 장스가 갑주하고 궁궐을 직 환즉 잇는거시 다 무스 할터 <sup>二十二</sup> 오

누가복음

십일장

십사



직더용밍흔자 | 니르러이괴면곳그밋는바갑쥬를 빼앗고 그저물을는호리니 三 날노더브러  
 홈썩아니하는자는나를디덕함이오날노더브러거두지아니하는자는헛치리라 三 하시니라  
 더러온샤귀가임의사름의게서나아가매물업는싸흐로힘야놀아평안함을구하다가엇지  
 못하고곳끌으디나 | 나온바집으로드러가리라 三 고 임의니르매그정제히슈리함을보고  
 드디어가셔또더보다흉악할닐곱샤귀를드리고드러가거하면곳그사름의후환이몬져보  
 다더옥극하리라 三 이러케말할때에우리중에서흔녀인이소리를질너닐너끌으디너를뵈이  
 와너를젖먹이는복이로다 三 예수 | 끌으샤디하는님의말음을듯고직회는자는오히려복  
 이니라 三 ○ 三 못사름이모헌때에예수 | 비로소말씀하야끌으샤디하는악한세상이어늘징조  
 를구하니요나의징조외에는징조로빌거시업는니 三 개대요나 | 니니위사름의게징조를뵈  
 엿시니인즈 | 또흔장찾이와긋치이디에몸소징조를힘하시리라 三 남편녀왕이심판을당할  
 때에니러나이세상사름을죄주리니대개더 | 다극진흔디로조차와솔노문의지혜를드러져  
 라하물며솔노문보다큰이가괴잇습이나 三 니니위사름이심판을당할때에니러나이세상  
 사름을죄주리니대개더 | 요나의반포함죄임으로써회기할지라하물며요나보다큰이가어  
 괴잇습이나 三 또흔사름이불을혀매그옥흔곳에아니하며말아래아니두고이에디우해두는  
 거손드러가는자로그빛출보게함이니 三 대개몸의등잔은이에눈이라네눈이만일붉으면네  
 전신이빛치오만일흐린즉네몸이어두오나 三 그런고로삼가하라네속에잇는빛치어두음이  
 되지아니케하라 三 후네전신이빛치잇스디덜썩만치어두음이업스즉그빛치온전하야등  
 잔불과긋치너를빛치리라 三 ○ 三 예수 | 말슴하실때에바리새사람이잇서예수썩가지로먹  
 기를청하니예수 | 드러가자리에안지셨더니 三 바리새가그씻지아니하고잡수시느거술보  
 고이상이닉이거늘 三 쥬 | 닐너끌으샤디너바리새사람이여지금잔과쇼반밭글썩곳시하나  
 네잔과쇼반에담은거시겉달하고비의의거시아닌거시업스니그밭글썩곳시하물몰르니이

는 또 혼반드시 그 안흔씩 곳 하리라 담고 악득 혼 거시 그 득 혼도 다 지 각 업는 자로 다 네가  
 스스로서 하디쇼 반밧기 잇는 거 술 문 든 이가 속 에 잇는 것도 문 들 지 아니 하더냐 오직 네가 잇  
 는 결 노 써 구 제 하 면 모든 거 시 네 게 조 출 하 리라 화 양 이 로 다 너 바 리 시 여 너 희 박 하 와 유 향 과  
 모든 처 소 를 열 게 그 나 홀 드 리 디 오 직 의 와 하 는 님 스 랑 혼 은 폐 하 는 지 라 그 러 나 이 거 손 너 희  
 맛 당 히 흥 흥 거 시 오 더 것 도 아 니 홀 거 손 아 니 라 화 양 이 로 다 너 바 리 시 여 대 개 너 희 들 이 회  
 당 에 놀 혼 자 리 와 저 즈 에 인 스 를 도 화 하 는 도 다 너 의 게 화 양 이 로 다 대 개 너 희 는 봉 분 업 는 무  
 덤 못 하 야 그 우 해 사 름 이 곱 아 도 알 지 못 하 는 니 라 훈 법 을 그 르 치 는 예 수 씨 님 이 니 쥘 으 디 스 송  
 아 너 이 러 케 말 습 하 시 니 또 혼 우 리 들 을 썩 지 즈 시 는 도 다 쥘 으 샤 디 화 양 이 로 다 법 을 그 르  
 치 는 이 아 너 의 지 기 어 려 온 짐 으 로 써 사 름 의 게 지 게 하 고 즈 는 혼 손 가 락 으 로 도 디 지 아 니 너  
 네 희 는 화 양 이 로 다 대 개 너 희 는 선 지 자 의 무 덤 을 세 우 니 네 조 상 이 죽 었 는 지 라 이 러 므 로  
 세 너 희 들 이 네 조 상 혼 일 을 증거 하 고 허 락 하 거 시 라 대 개 조 상 이 선 지 를 죽 이 고 네 가 그 무 덤 을  
 세 율 는 니 라 하 는 님 이 님 님 시 디 내 가 선 지 자 와 스 도 를 보 내 고 더 들 이 더 러 는 죽 이 고 핍 박 하  
 고 리 벽 으 로 브 러 흘 님 바 선 지 자 의 피 툄 다 지 금 세 디 에 서 초 절 거 시 니 곳 아 벨 의 피 로 브 러  
 삭 하 리 아 전 단 성 면 스 이 에 죽 은 피 석 지 니 를 지 라 나 진 실 노 네 게 님 이 니 반 드 시 이 디 에 초  
 지 리 라 화 양 이 로 다 너 희 법 을 그 르 치 는 이 아 네 가 지 식 에 열 쇠 를 빼 아 서 너 희 도 드 러 가 지 아  
 니 코 또 드 러 가 고 저 하 는 이 도 막 는 니 라 이 러 케 말 습 하 실 때 에 선 비 와 바 리 시 들 이 위 위 하 야  
 핍 박 하 고 험 문 하 야 만 혼 말 노 겨 동 하 고 그 만 이 엿 보 아 그 입 의 말 을 잇 그 러 허 물 에 빠져 제 코  
 저 하 더 라

**제 십 이 장**

그 스 이 에 수 만 무 리 가 모 혀 서 로 곱 거 놀 예 수 — 몬 저 문 도 드 러 님 니 쥘 으 샤 디  
 바 리 시 의 누 록 을 방 비 하 라 쫓 거 쫓 착 혼 테 하 는 니 라 대 개 금 초 인 거 시 드 러  
 나 지 아 님 는 거 시 업 고 숨 은 거 시 나 타 나 지 아 님 는 거 시 업 는 니 이 러 므 로 너 희 어 득 온 디 말 혼

누 가 복 음  제 십 이 장

십 오



진실노너희게닐으는니네목숨을엇더케먹이며네몸을엇더케넘힐고념려호지말나 목숨  
 이양식에셔귀하고몸이웃셔셔귀하니라 가마귀를싱각호라심으지도아니코거드지도아  
 니코방도업고곡간도업스디하는님셔셔기르느니너가마귀에서귀홈이엇더호냐 또너  
 희무리능히념려홍으로셔성명을일각이나더호겟느냐 지극히적은거시라도오히려능  
 히못호는니그놈아는무어슬싱각호겟느냐 빅합뜻치엇더케자르느냐는거슬싱각호라더  
 슈고롭지도아니호고질삼도아니호는니라 너드러닐으는니곳솔노몬이영화가극진호  
 여도그웃시오히려이뵈해호나홀밋지못호리라 대개풀은오늘들에있다가리일불가마로  
 드러가디하는님셔셔풀을웃넘히기로오히려이긋치호시거든네적이밋는자냐 너희는엇  
 더케먹을고호며엇더케마실고호야찾지말고념려치말지니 대개이모든거슬이세상에빅  
 성을찾는거시라네아바지가너희쓸거슬아는니라 오직하는님의나라홀구호면곳이거슬  
 또호더주시리라 만치아닌이들은두려워말나대개너희아바지가나라홀너희게주기물깃  
 베타시는니라 네게잇는거슬풀아구제호야남어지아니호는유언이를예비호라하늘에  
 다호지아닛는지들은도적도아니오고좁도먹지아니호는니라 대개네지물이잇는곳에는  
 네모음이또호잇는니 허리씩를씩고등불을혀셔 그유언이혼인집에갓다가도라오는거  
 슬기드리는자긋치호야니르러문을드드리면즉시열개홈이니라 유언이와셔종이셔여잇  
 슴을보면그종이복이리라나진실노너희드러닐으는니유언이반드시긋씩를미고종으  
 로호여곰자리에안치고압혀셔먹이리라 후이경에니르거나혹삼경에니르러종이이긋치  
 함을보면그종이복이리라 만일집유언이도적이어는때니물줄을알면반드시셔여그집을  
 뚫지못호게호리니이호는너희도아는바니라 너도예비홀지니너희뜻밖과인조니르심  
 이니라 베드로 엇저와클으디쥬 이비유를베프시기는우리들을위함이니잇가문득무  
 리물위홈이니잇가 쥬 클으샤디뉘가을코총명호게집을다스려유언이맞겨써그집사름

누가복음 제십이장

십륙

을독축하고째를쓰라량식은호청적이냐 그유인이니를때에그이긋치함음을본즉그종  
 이복리라 나 진실노너희게닐으는니유인이그잇는바를다맛길지니라 만일그종이무  
 음에싱각하디우리유인이오는거슬더디게하리라야비복이나싸리고먹기나하고또호취  
 하엿시면 싱각지아닌날과알지못할때에이종의유인이니라맛지아닌는자로더브러호  
 깃세두리니 종이유인의뜻을알고예비치아니하고그뜻을순히아닌는자는싸림을반드시  
 만히받을거시오 아지못하고마질일을하는싸림을반드시적게받을거시니대개만히  
 주는자는반드시구호가만홀거시오만히부탁하는자는반드시만히초지리라 내가와불노  
 써싸헤더지라하니만일불이임의니러나시면내가무어슬하고저하랴 나 맛당히받을세  
 례가잇스디세례를받을때까지엇지고롭고답답지아니하랴 너희는내가와서화평함을세  
 상에베픈다싱각하는나나 너희게닐으는니그러치아니하고호개하는니라 이후에는  
 혼집에잇는다섯사람이호홀거시니셋시들홀닷도고돌히셋슬닷도는지라 호아비가  
 아들을닷도고아들이아비를닷도며어미가딸을닷도고딸이어미를닷도며식이미가며  
 리를닷도고며느리가식이미를닷도리라하고 또무리드러닐으샤디구름이서호로브  
 러니름을보고너희말하기를쇼낙이가오리라하고연과연그러하고바름이남으로불를보고너  
 희말하기를더우리라하면또호그러하니 외식하는자여너희던디괴상을분별할줄을알  
 고엇지능히이째를분별할줄을모르며 또엇지올흔거슬스스로판단할줄을모르느냐 네  
 가너를송스홀이와홀씩관장의게갈때에길해서맛당히모음을다하야노힘을구할지니너를  
 형관의게드러가면형관이너를아전의게부쳐아전이옥에가돌가홍이나라 나 너드러말  
 하는니마즈막허물을감할때까지결단코더괴나음을엇지못하리라

**대십삼장**

그때피나도 갈닐니아사람의피로써제물에섞는다하니 예수  
 답하야큰으샤디너희뜻에갈닐니아사람이이긋치받는거시여러갈닐

니약사름보다 죄가 더 잇는 줄 아느냐 나 너희게 말하느니 그러치 아니하도나 만일 뒤웃  
 지아니하면 또 혼다 이르치 망하리라 전에 시노암에 탑이 문혀져 늘녀 열여덟사름을 죽였시  
 니네 뜻에 이 사름이 못예 루살렘에 거 혼사름보다 더 죄를 졌느냐 나 너희게 말하느니 그러  
 치아니라 너 만일 뒤웃지 아니하면 또 혼다 반드시 이와긋치 망하리라 이에 비유를 배 퍼 끌  
 으샤 디 혼사름이 포도동산에 무화과나 모를 심으고 와서 그 우혜 열미를 구하다가 었지 못하느  
 지라 드디여 동산직이 드려 널 너 끌으 디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 모에 실과를 구하 디 었  
 지 못하니 배 힐지라 었지 따 만 뷔게 하리오 디 답하야 끌으 디 휴인 아올 만 아직 용납하쇼셔 내  
 가 스방을 파고 거름을 주어 만일 실과가 열면 또 코아니 열 거든 배 힐지 니이다 사 밤날에 예수  
 | 혼 회당에 가서 이르치 디 니 혼녀 인이 마 귀 들녀 병 든 지 열 여덟 히라 썩 버려진 거 술 능히  
 퍼 지 못하거늘 예수 보시고 곳 불너 널으 샤 디 녀 인 아 니 를 이 병에서 노 히라 하시고  
 | <sup>14</sup> 곳 손으로 써 어 로 문 지 시 니 녀 인 이 곳 퍼 니 하느 님 써 영 화 를 돌 녀 보 내 는 지 라 회 당 맞 혼 자  
 가 예 수 띄 서 안 식 일 에 병 곳 치 시 는 거 술 분 내 여 무 리 드 려 널 너 끌으 디 장 인 이 었 식 를 일 하 느 지  
 라 이 런 날 에 가 히 와 서 곳 침 을 구 하 거 시 오 사 밤 날 은 반 드 시 하 거 시 아 니 니 이 다 <sup>15</sup> 주 | 디 답 하  
 야 끌으 샤 디 외 식 하 는 자 여 녀 희 들 이 사 밤 날 에 누 가 소 와 라 귀 를 마 구 에 서 신 을 어 내 여 었 곁 고  
 가 셔 물 먹 이 지 아 니 하 겠 는 냐 <sup>16</sup> 혼 들 며 이 녀 인 이 아 브 라 함 의 조 손 이 어 놀 사 탄 의 게 미 인 바 |  
 된 지 십 팔 년 이 니 사 밤 날 이 라 미 인 거 술 풀 지 아 니 하 겠 는 냐 <sup>17</sup> 예 수 | 이 말 슴 을 하 시 매 모 든 디  
 역 하 는 자 들 이 붓 그 러 워 호 고 무 리 들 은 그 힘 하 시 는 일 이 광 명 함 을 보 고 기 배 하 느 라 <sup>18</sup> 예 수 |  
 또 끌으 샤 디 주 의 나 라 호 출 어 디 비 하 라 나 | 었 더 케 비 유 호 고 하 니 <sup>19</sup> 비 건 대 혼 거 즈 씨 를 사 름 이  
 갖 다 가 동 산 에 곳 더 저 곳 자 르 곤 나 모 가 되 면 공 중 에 새 가 그 가 지 에 깃 드 리 는 나 라 <sup>20</sup> 또 끌으 샤  
 디 내 가 었 더 케 하 는 님 의 나 라 호 출 비 유 호 고 <sup>21</sup> 녀 인 이 가 진 누 록 과 긋 하 니 서 말 진 가 로 속 에 셔 그  
 면 그 잘 고 이 는 것 긋 하 니 라 <sup>22</sup> 예 수 | 촌 과 읍 니 로 든 니 시 며 <sup>23</sup> 이르 치 실 식 예 루 살 렘 으 로 향 하

누가복음

예십삼장

십칠

야 함하시니 <sup>三</sup> 후이엿조와 끌으 디 주여 구함을 엿는 자 <sup>一</sup> 적으니 잇가 <sup>四</sup> 디 답하시야 끌으 사 디 함  
 을 다 하시야 좁은 문으로 나가라 대개 나 <sup>一</sup> 너 드려 말하느니 드러가기를 구하시야 도 엿지 못하느  
 자가 만흐니라 <sup>五</sup> 집 주인이니 러나 문을 닫은 후에 내가 밧과 서서 문을 두드려 끌으 디 주여 주여  
 나를 위하시야 열으 쇼셔 하시면 디 답하시야 끌으 디 서오느 지 너를 알지 못하겟다 하시니  
<sup>六</sup> 너 <sup>一</sup> 말하시나 <sup>一</sup> 네 압해서 먹고 너 <sup>一</sup> 또 한나를 거 리에서 마 르 쳤다 하시니 <sup>七</sup> 더 <sup>一</sup> 끌으 디 나  
<sup>一</sup> 네가 어 디로 온 지 모 르는 지라 악한 자들아 나를 떠 나 갈 지 어 다 <sup>八</sup> 때 에 내가 아 브 라 함 과 이삭  
 과 야 곱 과 모든 선 지 자가 하느 님 나 라 헤 잇 슴 을 불 거 시 오 오 지 너 는 밧 과 쫓 겨 나 반 드 시 슬 피 울  
 고 니 를 갈 니 라 <sup>九</sup> 동 으 로 브 러 셔 호 호 하며 북 으 로 브 러 남 으 로 호 호 매 사 례 이 니 르 러 하 느 님 의 나  
 라 헤 안 질 거 시 니 <sup>十</sup> 대 개 후 에 한 자 <sup>一</sup> 문 저 할 거 시 오 문 저 한 자 <sup>一</sup> 뒤 가 되 리 라 <sup>三</sup> 곳 그 시 에 바  
 리 식 두 어 사 례 이 니 르 러 널 니 끌으 디 나 아 가 여 기 를 떠 날 지 어 다 대 개 헤 로 더 <sup>一</sup> 너 를 죽 이 고 저  
 하 느 니 라 <sup>四</sup> 예 수 <sup>一</sup> 디 답 하시야 끌으 사 디 너 는 가 서 더 여 호 의 게 고 하시야 날으 디 오 늘 과 리 일 내 가  
 샤 귀 를 쫓 차 닳 게 할 거 시 오 데 삼 일 에 니 르 러 는 내 일 이 못 처 리 라 <sup>五</sup> 비 록 그 러 나 오 늘 과 리 일 과  
 밧 호 날 에 는 내 가 밧 당 히 할 거 시 니 대 개 선 지 자 <sup>一</sup> 반 드 시 예 루 살 념 밧 과 서 망 치 아 니 리 라 <sup>六</sup>  
 예 루 살 념 예 루 살 념 아 네 가 선 지 자 를 죽 이 고 네 게 보 낸 이 를 돌 노 쳤 는 나 내 가 너 희 적 조 도 도 기  
 를 존 중 이 식 기 를 놀 개 에 품 음 으 처 몇 처 레 를 하 엿 것 마 는 오 직 네 가 호 고 저 아 니 하 엿 시 니 <sup>七</sup> 너  
 집 이 뵈 러 히 되 리 라 나 <sup>一</sup> 진 실 노 너 드 려 널 으 느 니 이 제 후 에 는 네 가 다 시 나 를 보 지 못 할 거 시 오  
 너 의 주 의 일 함 을 의 탁 하시야 온 자 <sup>一</sup> 복 이 니 라

## 데 십 스 장

사 밧 날 에 예 수 <sup>一</sup> 바 리 식 다 스 리 는 집 에 드 러 가 샤 잡 스 오 실 시 무 리 엿  
 보 니 <sup>二</sup> 그 압 할 당 하시야 호 고 창 들 난 사 례 이 잇는 지 라 <sup>三</sup> 예 수 <sup>一</sup> 법 을 마 르  
 처 는 이 와 바 리 식 들 드 려 널 니 끌으 사 디 사 밧 날 명 곳 처 주 는 거 시 을 호 나 올 치 아 니 하시야 무 리  
 잠 잠 하 거 늘 예 수 <sup>一</sup> 그 사 례 을 곳 처 보 내 시 고 <sup>五</sup> 또 무 리 드 려 널 니 끌으 사 디 너 희 중 에 후 라 귀 가

우물에 빠져서면 누가 못사 밧날에 쓰어 내지 아니겠느냐 무리들이 대답지 못하더라 ○ 에  
수 | 청혼이중에 놓흔 자리틀 끌히물보시고 곳비유를 배퍼코사 디 사름이 너를 혼인 잔치  
에 청하거든 놓흔 자리에 안지 말나 너보다 놓흔 자 | 청혼을 보면 너와 더 사름을 청혼이 가나  
아와 너드려 말하기를 자 리틀내 여이 사름의게 주라 하면 내가 붓그러워 말사에 나가리라  
오직 청혼 때에 가 말사에 안자 너를 청혼자 | 나와 네게 빌너코 디 벗은을 나안지라 하면  
영화 가흔가 지로 안진이 압헤 잇스리라 대개즈기를 돕히고져하는는 저절거시오즈기  
를느 초려하는는 을나 놓하지는 나라 또 청하는자의게 빌너코 디 너 | 덤심이 나져 녀을  
디하거든 벗과 동성과 친척과 리웃과 부자를 청치 말나 두리건대 너를 청하면 내가 고흘을 밧을  
가하노라 오직 잔치를 비설할 때에 가난한자와 병신과 저는 이와 쇼경을 청하면 너 | 복  
이 니더 | 능히 갑지 못하나의 인이다 사살아 날 때에 너 | 고흘을 었으리라 곳치 안졌던 사  
름이 이를 듯고 곳 빌너코 디 하는는 너의 나라 헤며는 자 | 복이 니이다 예수 | 빌너코 사 디  
후이 대연을 비설할 때 청혼 밧자 | 만흔 자라 잔치를 때에 종을 보내어 청혼이 의게 고하야  
코 디 오쇼셔 비물을 다코 초앗는이다 못사름이 스양을 디그하나 혼코 디나 | 밧출 샷더니  
모름족이 가 보겠시니 청컨대 나의 스양 고흘을 용납하쇼셔고 또 청하사름은 코 디나 | 소다  
스쌍을 샷더니 가서 시험코져하니 청컨대 내 스양 고흘을 용납하라고 또 청하사름은 코 디나  
| 임의 장가 드려는 자라 능히 오지 못하겠는이다 하거늘 그 종이 도라와 주인 의게 고하니  
주인이 드 디 여노하야 그 종을 명하야 코 디 셤니가 성중에 거리와 골목에 잇는 가난한 이와 병  
든 이와 저는 이와 쇼경을 오게하라 종이 코 디 주인 아 임의 명하신 대로 하엿시 디 오히려  
은 자리가 잇는이다 주인이 좋드려 코 디 나 아가 길노든 너 사름을 강권하야 드려다가 집  
을 치오라 하니 대개 너드려 말하느니 전에 청하바 사름은 하나도 내 잔치를 밧보지 못하엿  
시리라 ○ 여러 사름이 흐가 지로 흥흥히 예수 | 도라보아 빌너코 사 디 | 못사름이 내게

누가 복은 데심스장

심판



나아와 그 부모와 처자와 동성파 및 조부모를 섬을 위하여 아낀 자는 능히 나의 예조 되지 못하고  
 그 심지가 돌지고 나를 좃지 아낀 자는 또 능히 나의 예조 되지 못하니라 너희 무리  
 에 누가 답을 세우고 저 홀진대몬져 안자 그 쓸 거슬 배교야 일우기에 족홀년지해아리지아니  
 할갠나 <sup>二九</sup> 넘어 건대그더홀등고능히일우지못할면보는자 다우셔 <sup>三〇</sup> 클오디이사람이일  
 을 시작하고 능히일우지못하다함며 <sup>三一</sup> 어는 국왕이나아가다 큰왕으로더브러싸홍할면몬져  
 안져공론치아니하고능히일만으로써이만을가지고오는자틀디덕홀고 <sup>三二</sup> 그러치아니할면  
 아직멸적에스신을보내여화친을구하리니 <sup>三三</sup> 이곳처녀의개잇는바를다브리치아니할면능  
 하내대조되지못하리라 <sup>三四</sup> 대개소공이도흔거사라도그맛술일흐면엇지써싸게하리오  
 밧헤도맛당치아니코똥에도맛당치아니할야오직밧피브릴지라므르귀잇서듯는자는드물  
 지어다

### 데십오장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께 갖가 하나아와드르니 <sup>一</sup> 바리새와 스조  
 들이 괴롱하야클오디디 <sup>二</sup> 죄인을 디접하고 음식을 혼가지로 혼다하니예  
 수 <sup>三</sup> 이 비유로써 날니클오사디 <sup>四</sup> 너희어는 사람이 양일씩마리중에하나홀일흐면아혼아홉  
 을 들에두고그일흔거슬뜨라엇도록아니할갠나 <sup>五</sup> 엇은즉도화하야엇기에메우고 <sup>六</sup> 집에  
 도라와그벧과리웃을모호고닐너클오디날노더브러혼가지로즐길지어다대개내가일흔양  
 을 임의 초젧노라하리라 <sup>七</sup> 나 <sup>八</sup> 너드러닐오니이와곳치호죄인이 회기호면하늘에서깃거  
 호기를 회기아니하야혼아홉의인보다나흐리라 <sup>九</sup> 엇던녀인이 금돈 열납해서그하나홀일  
 흐면볼을혀며집을쓸며브르련이 초자엇기에너르지아니할갠나 <sup>十</sup> 엇은즉벧과리웃을볼  
 너모호고닐오디날노더브러혼가지로즐길지어다대개일흔돈을 임의 초젧노라하리라 <sup>十一</sup> 내  
 가너드러닐오니하죄인이잇서회기호면하는님의 스자압해또하리와곳치기배하느니라  
<sup>十二</sup> 또클오사디하사람이두아들이잇스니 <sup>十三</sup> 그말재아들이아비세말하야클오디아바지여맛

당히엇을산업으로써내게는호아주소셔아비산업을는호아주엇더니 그후몇철이못하야  
 말재아들이는혼지물을다가지고멀니다른디방에가놀아거괴잇서규모업시하야그산업을  
 허비하야 다업시하교그싸히크게흥년이든지라이에궁핍한거슬써듯고 곳그디방흔벽  
 성의게가니들노보내여도야지를치게하디 먹이는사름이업스니도야지먹는팻썩질노충  
 복을하느니라 썩드러글으되내부친은품군도만코그량식이유여하디나는이에주려죽겠  
 시니 내부친씩도라가닐너글으되부친아내가하늘과부친씩죄를엇었시니 지금브러는  
 감히아들이라닐곳지못하리니나보기를품군에하나곳치하리라하교 이에너러나부친씩  
 도라갈시양거가오히려어나부친이보고이에이련이녀압흐로나아가목을얼싸안고입을  
 맛초니 아들이닐너글으되나하늘과내게죄를엇었시니이후로는네아들이라닐곳기를  
 감당치못하겠다하니 부친이모든종의게명하야데일도흔옷슬가져오라하야납히고손가  
 락에가락지를주며발에신을신기고 또살진송아지를쓰을어다가잡으라우리가먹고가히  
 즐길지나 대개내아들이죽엇다가다시살아났시며일헛다가또다시엇엇노라하교무리와  
 혼가지로즐기더니 맛아들이밧헤잇다가도와집에밧출시풍류와춤추는소리를듯고  
 혼중을불너그연고를무르대 디답하야글으되네동성이도라왔기로네부친이살진송아지  
 를잡으니그병이업고다시엇음을위함이라하니 맛아들이곳노하야드러가기를즐겨아니  
 하니부친이나아와권한대 맛아들이부친씩말하야글으되나 너를여러히를섬기매조차  
 명을어꿈이업스디일즉이혼염소를나를주어나와내벗으로곳치즐기게아니하디 오직이  
 아들은외입함으로네산업을다업시하엿거늘더니내때살진송아지를잡은지라하니 부  
 친이닐너글으되아들이너는일즉이나와혼가지로잇섯시내게잇는거시다내게속한거시  
 로되 오직네동성은죽엇다가다시살며일헛다가또혼엇엇기로우리놀며즐겨하교깃버흔  
 다하더라

누가복음



케립오양

십구

# 데 십륙장

예수 — 또 한 문도 드려 너 글으샤 디 부자가 잇고 청직이 잇스니 후이그  
 주인의 산업을 허비함으로 써 그 주인의 게고 하거늘 <sup>二</sup> 이에 불너 글으 디  
 네 말을 내 가듯는 거시 엇짐이뇨 가히 회개도 목을 내고 다시 청직이 되지 말나 하니 <sup>三</sup> 청직이 심  
 각 건대 내 주인이나 일 보는 직분을 빼아 스면나 — 장차 무어 슬하 리 오샤 할 파랴도 힘이 업고 동  
 량을 하랴도 붓그려 을 지라 <sup>四</sup> 나 — 할 바를 아느니 회개를 빼아 손 후에 반드시나 를 제 집에 디 접  
 하게 하리라 하고 <sup>五</sup> 드 디 여 주인의 빛진 자를 낫낫치 불너 와그 하나 드려 너 글으 디 네 가우 리  
 주인 의 게 열 마나 졌느뇨 <sup>六</sup> 기 림 빅 말이 라 하 니 글으 디 네 문 셔 를 가 지 고 썰 니 안 자 오 십 말 이 라  
 쓰라 하 고 또 그 하 나 드려 너 글으 디 너 는 열 마나 졌느나 글으 디 밀 빅 말이 로 다 글으 디 네 문 셔  
 를 가 저 와 팔 십 말 이 라 쓰라 하 니 <sup>八</sup> 주인 이 어 올 처 아 닌 청 직 이 를 기 림 은 그 힘 함 이 공 교 함 을 인  
 함 이 라 대 개 이 세 상 사 림 이 그 동 류 의 게 는 광 명 한 사 림 보 다 더 공 교 하 니 라 <sup>九</sup> 나 — 너 희 게 말 하  
 느니 불 의 의 지 물 노 씨 친 구 를 사 피 다 가 너 죽 을 때 에 는 길 게 잇 는 집 에 디 접 함 을 었 으 리 라 <sup>十</sup> 저  
 은 디 충 성 잇 는 자 는 큰 디 도 충 성 이 잇 고 적 은 디 불 의 한 자 는 큰 디 도 불 의 하 느니 라 <sup>十一</sup> 너 — 만 일  
 불 의 의 지 물 에 올 처 아 니 면 뒤 춤 된 거 스 로 써 너 희 게 부 락 하 며 <sup>十二</sup> 만 일 너 희 가 속 한 사 림 의 게 올  
 처 아 니 하 면 누 가 너 속 한 자 로 써 너 희 게 주 겠 느나 <sup>十三</sup> 한 종이 두 주인 을 섬 기 지 못 함 은 후 이 를 위 위  
 하 고 더 를 스 랑 하 며 후 이 를 중 히 녀 이 고 더 를 경 히 녀 임 이 니 너 희 능 히 하 느니 를 섬 기 고 지 물 을  
 섬 기 지 못 하 느니 라 <sup>十四</sup> 바 리 식 의 리 를 요 화 하 는 이 가 이 말 을 듯 고 웃 거 늘 <sup>十五</sup> 예수 — 너 글으 샤  
 디 네 가 사 림 의 압 해 잇 서 서 올 타 하 나 오 직 에 모 음 은 하 느니 섬 켜 셔 알 으 시 느니 대 개 사 림 이 높 히  
 는 바 는 하 느니 의 위 위 하 는 바 — 나 <sup>十六</sup> 요 한 의 게 니 르 러 법 과 선 지 자 가 굿 친 지 라 그 후 에 하 느니  
 의 나 라 복 음 이 전 하 야 사 림 마 다 힘 써 나 아 갈 지 어 다 <sup>十七</sup> 락 디 업 서 짐 이 법 에 흔 희 업 서 짐 보 다 더  
 쉬 오 리 라 <sup>十八</sup> 므 롯 그 안 히 를 브 리 고 다 락 디 장 가 드 는 자 도 음 란 한 거 슬 힘 함 이 오 므 롯 브 린 이 의  
 게 장 가 드 는 자 도 음 란 한 거 슬 힘 함 이 니 라 <sup>十九</sup> ○ <sup>二十</sup> 한 부 자 가 잇 서 흥 포 와 뵈 를 낚 고 날 마 다 번 화 히

먹고 또 한가난하고 온몸에 혼디난이의 일흥나사로 — 라하는자를 부자의 문밖과 두어 상에  
 서 떠러진거스로 써 비불려하더니 개가와 그 혼디를 할트매 — 가난한자 — 죽거늘련스가 부  
 드러아브라함 품에 나르게하고 부차 — 또 혼죽어장스매 — 디옥에서 동고 할적에 눈을 드러  
 멀니아브라함을 보고 또 나사로가 그 품에잇음을 보고 — 불너골으디우리조상아브라함아나  
 를 불상이녀어나사로를 보내여 손가락뚫헤물을 씹어내 혀를 적시쇼셔 대개 내가 화염가온  
 디잇서고로움이심하니이다 — 아브라함이골으디아들아너는 살앗실새 모든복받는것과나  
 사로는 모든고밧은거슬싱각할지어다 이제더는위로함을 엇고너는 고를 밧느니라 — 다못이  
 썸아니라너와우리스이에 큰웅덩이로한덩하야여괴셔너희게건너가고저하디능히못하며  
 더괴셔우리게건너오고저하디능히못하느니라 — 디답하야골으디그러하면 구하느니조상  
 은나사로를내부친의집에보내여 — 내형데다스시잇스니하여곰증참하야더들이또한단련  
 하는곳에오기를면케하쇼셔아브라함이골으디 — 더 — 모세와션지자가잇스니가히드를지  
 니라 — 골으디그러치아니라조상아브라함아만일사람이죽음으로브터나아가는자 — 잇스  
 면더 — 반드사회기하리이다하느니 — 골으디모세와션지자말을듯지아닛는자는 비록죽음으  
 로다시사는이가잇슬지라도그또한권함을 밧지아니하리라

**데십칠장**

예수 — 또 혼문도드러닐너골으샤디사람을 외에 빠지게 혼일이능히업  
 슬수업는거시나 오직빠지게하느자 — 화양이니 — 이적은사람중에하  
 나홀히물에 빠지게 할진대 출하리 큰미돌을목에미여바다헤더질거시라 — 맛당히스스로조  
 심하라 만일너의데형이내게죄를 엇거든간하고 회기하거든사하라 — 만일너로닐곱츠레를  
 내게죄를 엇을지라도 또 혼하로닐곱츠레를도로켜골으디내가 회기하엿다하면너는 맛당히  
 샤홀지어다 하느니라 — 스도 — 쥬씩엿츠와골으디우리밧음이더옥도답게하쇼셔 — 쥬 —  
 골으샤디네밧음이겨즈싸만곳하면곳이썸나모를명하야썸희를빠혀바다헤심기라 할지라

누가복음

데십칠장

이십

도또한명을드르리라 너희들중에혹종이잇서그종이밧출갈며혹양을기르다가밧흐로도  
 라오거든누가곳명하야자리에안지라하겟느냐 나 먹을거슬예비하고씩를떡고나를섬  
 기다가내가먹고마신후에너 먹고마시라하지아니하겟느냐 종이명을밧들고히하매샤  
 레하겟느냐 이와갓치너 곳명하바를다하하디또한스스로닐기름무익한종이라하교  
 맛당히히하바를히하하디다하리라 예수 예루살렘에게실사마리아와갈닐니아를지  
 나 한동네키에드러가시니창병든자열사람이맛나멀니서서 소리를놓혀글디예수스승  
 아우리를불샤이녀이쇼셔 예수 눈을들어글샤디가셔제스장의게되라하시니더가  
 면서씩곳하리라 그하나히임의나흠을보고도라와크게소리하야영화를하느님씩돌너보  
 내고 예수발아래부복하야샤레하니더는이에사마리아사람이라 예수 글샤디조출  
 한자 열사람이아니냐그아흠은어디잇느냐 이외방사람외에는도라와영화를하느님씩  
 돌너보내논이가업느니라하시고 곳그사람드려닐너글샤디너라도라가라너 밧음  
 이임의너를구하엿느니라 바리새가하느님의나라히어는새에너라못거늘예수 디  
 답하야글샤디하느님의나라흔드러나게니를거시아나라 사람이반드시글디여괴잇  
 다더괴잇다못하리니대개하느님의나라히너희가온디잇느니라 또문도드려닐너글  
 샤디해가니르리너 인자의날중에하날을보고저하디하날도엇어보지못하리라 후이  
 네게고하야글디더괴잇다여괴잇다하디너는가도말고죽도말거시니 번개가하늘에서  
 여괴셔번뜻하야더괴셔밧남갓치인자너는날에또한이갓하리라 다만문저고를만히밧  
 야이때에바림이되고 또노아의새갓치인자의새가또한그러하리라 노아가비에오르는  
 날서지사람들이먹고마시고식집가고장가가니홍슈가니르다멸하엿고 또롯의새갓치  
 사름이먹고마시고사고플고곡식을심고집을지으나 오직롯이소도마에나가는날에하  
 늘노브리불과류황이비오듯하야다멸하엿시니 인자가나타나는날에또한이와갓하리라

그날에 짐용에 앉는 자 | 그의 명이 집에 있어서 도는려와 취하지 말며 밤해 잇는 자 | 도라오지  
 말고 <sup>三</sup>룻의 처를 생각하라 <sup>三</sup>그 성명을 보존코저 하는 자는 일흔 가지 오오직 그 성명을 알코저  
 하는 자는 보존하라 <sup>三</sup>나 | 너 드러닐오니 이 밤에 두 사람이 자리를 혼가지로 할라 <sup>三</sup>다가  
 나 혼잡고 하니 혼노하도며 <sup>三</sup>두녀인이 흥제방아 찻다가 혼잡고 하니 혼노하도며 <sup>三</sup>두사  
 롬이 밧헤 잇다가 혼나 혼잡고 하니 혼노하도니 <sup>三</sup>무리엿조와 글오디 주여어디 잇스리 잇  
 가던 답하야 <sup>三</sup>샤디 죽엄 잇는 곳에 미가 반드시 모히는 나라 하셔더라

**제십팔장**

예수 | 사람이 흥상과도 하고 배어리지 말기에 비유를 베풀오샤디 <sup>三</sup>고  
 을 에 혼관원이 잇서 하는 님을 무셔워아니 하고 사람의 게 무레 혼지라 <sup>三</sup>그

고 을 에 혼과 부가 잇서 흥상와 셔클 <sup>三</sup>이내 원동 혼거슬내 원슈의 게 퍼게 하쇼셔 하디 <sup>三</sup>오래히  
 락지 못하다가 후에 스스로 생각하고 님 <sup>三</sup>이내가 비록 하는 님을 두리 지아니 하고 사람의 게 레  
 물아니하나 <sup>三</sup>다만이 과부가 나를 번거하게 하니 | 반드시 그 원동 혼을 퍼늘와셔 조르는 거  
 솔면하리라 <sup>三</sup>주 | <sup>三</sup>샤디 불의 혼관원의 말을 드르라 <sup>三</sup>곳하는 님이셔 새 신이가 밤낫 빌면  
 비록 오래 초으나 엿지 못초내 그 원을 퍼지 못하겠는 나 <sup>三</sup>나 | 너 드러닐오니 나 장 초속히 그 원  
 을 풀니라 비록 그러나 인자 | 너 면세상에 밧음을 뵈리 잇가 <sup>三</sup>스스로 혼테 하고 다른 사  
 롬을 멸시하는 자의 게 예수 | 이 비유를 베풀어 니 <sup>三</sup>샤디 <sup>三</sup>두 사람이 성면에 올라기도 하니  
 하나 혼바리 식오하니 혼세라라 <sup>三</sup>바리 식 혼노서셔 기도 하야 <sup>三</sup>키오디 하는 님이 감사하는 이다  
 나 <sup>三</sup>다른 사람과 곳 처도 식하고 음란하고 불의를 하지아니 하엿스오며 또 이 세관과도 곳지  
 아니하니 이다 <sup>三</sup>나 <sup>三</sup>는 님 해에 두 번 제게 하고 또 잇는 바로 씨 심일도 드리는 이다 <sup>三</sup>고 <sup>三</sup>세관  
 은 멀니서서 감히 눈을 드러 하늘을 우렐지 못하고 이에 가슴을 쳐클오디 하는 님이 나를 불상이  
 덕이 쇼셔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sup>三</sup>나 | 너 드러닐오니 이 사람은 집에 도라가 매이에 올  
 롬을 님 <sup>三</sup>를 엿으리니 더 사람의 게 비교하면 더욱 나흐니 대개 조기를 돕히는 이는 반드시는

누가복음 **제십팔장**

이십일

절거시오조귀를느초는이느오히려놓힘을밧으리라 ○ 사름이제어린으히들을드리고예  
 수져나아와그어로문지사기룰구하니문도 | 보고썩짓거늘 예수 | 불너오라하야골으샤  
 디어린으히내게오는거슬그만이드고금호지말나대개하는님나라혜잇는이느이러하니라  
 나 | 진실노내게닐으느니므릇어린으히와코치하는님나라홀밧지아니하는자는결단코  
 드러가지못하는니라 ○ <sup>十八</sup> 환관장이있다가무러골으디착흔스승님아나는맛당히엇더케하  
 야씨영영이살물엇으리잇고 <sup>十九</sup> 예수 | 닐너골으샤디너는무슴착흔거스로써나를닐코는나  
 착흔이느업느니라오직하나썩이나하는님이시니라 # 모든게명은네가아는바 | 라음란치  
 말며죽이지말며도적질말며망녕된증참을말며네부모를공경홀지니라 <sup>三</sup> 디답하야골으디  
 이느나 | 어려서브러다직희엿는이다 <sup>三</sup> 예수 | 이말을드르시고닐너골으샤디너 | 오히려  
 혼흠절이잇스니잇는바를다풀이씨기난흔이의게호흐면저물이반드사하늘에잇스며또와  
 셔나를조차라 <sup>三</sup> 그사름이듯고심히근심홀은큰부자 | 연고 | 러라 <sup>三</sup> 예수 | 그심히근심홀  
 을보시고골으샤디저물이잇는자 | 하는님의나라혜드러가기어려온지라 <sup>三</sup> 약디가바늘구  
 명으로드러가느거시복자가하는님의나라혜드러가기보다쉬오리라 <sup>三</sup> 듯는자 | 골으디고  
 린죽니가능히구홀을엇으리잇가 <sup>三</sup> 골으샤디사름이능히못홀거슬하는님셔서는능히하느  
 느니라 <sup>三</sup> 베드로 | 골으디우리들은임의모든거슬다브리고조차는이다 <sup>三</sup> 닐너골으샤디나  
 | 진실노내게닐으느니하는님의나라홀위하야집과부모와형제와쳐즈를떠나면 <sup>三</sup> 금세에  
 도여러비를엇고후세에도영생을엇지못하는이가업느니라 ○ <sup>三</sup> 예수 | 열두대즈를드리고  
 닐너골으샤디우리들이예루살렘으로올나가느디선지로괴룩흔바인즈를그르친말슴이다  
 마즈리니 <sup>三</sup> 더 | 장차이방사름의게내어중을넘어희롱홀과롱육홀과춤밧음을밧으며 <sup>三</sup> 사  
 림이장차짜리며죽인즉삼일만에다 | 반드사다시살아나리라 <sup>三</sup> 이말슴을그문도 | 다알지  
 못하니그말슴이더의게은근하야그닐으시느바를알지못하더라 <sup>三</sup> 여리고에갓가히오실때

에 요경이 길가해안자빌다가 무리들이 지남을 뜻고 그 연고를 무르니 무리들이 이르나사로  
 사름에 수 지나시니라 요경이 불너 끌으되 다위의 조손에 수 나를 불쌍이 너 이쇼셔  
 압흐로 힘흐는 자 물니 치며 잠잠하라 하되 더욱 부르지져 끌으되 다위의 조손은 나를 불  
 상이 너 이쇼셔 예수 머무르시고 명하샤 드려오라 하시니 임의 갓가히 오매 무리들이 사되  
 나 네게 무어 슬하 고져 하느냐 끌으되 주어 나 봄을 엿게 하쇼셔 예수 닐너 끌으사 되  
 봄을 밧으라 네 밧음이 너를 구하엿는 니라 더 드디어 보고 예수를 조차며 영화를 하느니  
 돌너 보내니 무리이거슬 보고 곳하느니 찬양하더라

**데 십구장**

예수 여리고에 드러가샤 지나가실 때에 삭카라 하느자 세 관에 어  
 문이 오또 부흐지라 예수를 엿더흐사 롬인 가보고 저하되 키가 적고 사  
 림이 만하 볼수 업스니 뜻에 예수 반드시이 리 지나시리라 하야 압흐로나 아가 쟁나 모우해  
 을 나 보라 하더라 예수 파연 그리로 나르샤 우러러 보시고 끌으사 되 삭카야 속히느려오라  
 \* 오늘네 집에 머물겟다 하시니 급히느려와 즐거워 영접하니 못사름이 보고 원망하야 끌으  
 되다 죄인의 게 머물녀 하신다 하더라 삭카 서서 주셔 엿조와 끌으되 주어 나 잇는 거스  
 로 반을 가난한 이를 주고 또 한 만일 뒤거슬 도식하엿시면 스비나 갑흐리이다 예수 닐너 끌  
 으사 되 오늘 구함이 이집에 니름은 그 또 한 아브라함의 조손을 인함이라 대개 인조 오기는  
 일혼이를 차자 구함이 니라 무리이 말슴을 드물제 예수 또 한 비유를 베프심은 예루살렘에  
 갓가워 못사름의 뜻에 하느니 님의 나라 하 곳나라 남을 인함일너라 그런고로 끌으사 되 귀인이  
 먼디 방에 가서 나라 봉함을 밧고 도라오려 하야 그 종열을 불너 은 열근을 주며 닐너 끌으되 나  
 도라오기 서지 장스 하라 하니 다 빅성이 위워 하야 사자를 뒤로 보내여 끌으되 우리들이 사  
 림을 우리게 왕노릇코져 아니 하 겠다 하더라 봉함을 밧고 도라와 명하야 은 주종을 불너 다  
 장스 하야 얼마나 남것는 지알고져 하니 그 하나 하니 르러 끌으되 주어 나 주인의 은 열근으

누가복음 **데 십구장**

이십이



로 열근을 넘겼는이다 주인이 날너 끌으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 | 적은 거스로 충성하니  
 열근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너를 끌으되 주인이 네은 열근으로 닳근을  
 넘겼는이다 주인이 날너 끌으되 너도 또한 닳고 있을지 모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너  
 러 끌으되 주인이 네은 열근이여 괴잇스나 | 슈건으로 싸든 엇심은 내 주인을 무셔워하  
 는 거손 엄한 사람이라 두지아닌 거슬 취하고 심으지아닌 거슬 거둔이이다 주인이 끌으되  
 악한 종아 내말함으로 너를 판단하는 니네가 나를 엄한 사람이라 하야 두지아닌 거슬 취하고 심  
 으지아닌 거슬 거두는 줄을 알진대 엇지 내은을 저저어 내가 올때 그 변리서지 병하야  
 가지게아니하였는냐 드되 여겼해섯는 이를 명하야 그 열근을 빼아서 열근잇는 자를 주라 하  
 니 끌으되 주인아 제게 임의 열근이잇는이다 너 | 너드려 말하느니 | 느릿잇는 자는 장차 주  
 고 오직 업는 자는 그잇는 거슬 빼앗는 니라 하고 더 무리나의 원슈되어나를 닳금으로 삼지  
 아니려하던 자는 쓰으러 내압해서 죽이라 하니라 예수 | 말슴을 못치시매 압흐로 힘하샤에  
 루살냄으로 향하야 올라가실식 못참감람이라 하는 산에잇는 빛바기와 빛단니에 갖가오니  
 두문도를 보내샤 끌으샤 되너희가 압촌으로 가라드러갈때에 적은라 귀민거슬 만나리니 아  
 작사름이 드보지아니하거시니 쓰으러오라 만일 사람이 너드려 무르되 풀어무엇하랴냐  
 할거든되 답하되 주의 쓸거시라 하라 보내엿던 사람이 가서 과연 말슴하신 대로 만나라 귀  
 를 풀때에 그 임자가 날으되라 귀를 엿지야 풀너하느니 답하야 끌으되 주셔셔 쓰실거시  
 라 하고 쓰올고 예수 떠나와 더의 옷슬라 귀우헤노코 예수를 띠우고 힘할때에 무리 옷슬  
 길헤퍼더라 임의 예루살넴에 갖가오매 감람산으로 내려가실시여 문도 | 깃거크게 소리  
 하야 하느님을 찬양하니 이는 본바 | 이상할능이게 심이러라 끌으되 주의 일함으로 써온 왕  
 은복이라 하늘에서 화평함이 오지극히 높은되 영화 | 라 하니 못사름중에 바리새독어사름  
 이에 수셔엿저와 끌으되 스승아 예저를 책망하쇼셔 하니 답하야 끌으샤 되나 | 너희게 말

하느니 만일이 사 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부르 지 지리라 하더 라 <sup>1</sup> 못춤 갖가 오매 성을 보 시 고  
 울어 <sup>2</sup> 글으샤 디이 제 라 도 네 평 안 한 일을 알 았더 면 다 흥 할 거 슬 네 눈을 숨 겠 시 니 <sup>3</sup> 날 이 장 초  
 니 른 지 라 네 원 슈 도 성 을 싸 코 너 를 에 워 스 면 으 로 직 희 고 <sup>4</sup> 또 너 와 너 의 즈 식 을 싸 헤 부 디 치 며  
 휘 방 호 고 돌 을 돌 우 헤 세 치 지 아 니 하 리 니 너 희 도 라 불 날 을 알 지 못 함 이 라 하 시 고 <sup>5</sup> 드 디 여 성  
 던 에 드 러 가 샤 그 중 에 서 장 스 하 는 거 슬 쫓 초 시 며 <sup>6</sup> 날 너 글으샤 디 귀 록 한 디 날 녀 시 디 내 집 은  
 귀 도 하 는 집 이 어 늘 너 희 는 도 적 노 미의 굴 혈 을 만 드 는 도 다 <sup>7</sup> 예 수 | 날 마 다 성 던 에 게 서 무 르 치  
 니 제 스 제 장 과 스 즈 와 빅 성 중 두 목 이 썩 하 야 죽 이 고 저 하 디 <sup>8</sup> 엇 지 할 줄 을 아 지 못 하 는 거 손 빅  
 성 들 이 다 기 우 려 드 름 을 인 함 이 러 라

### 데 이 십 장

호 로 는 예 수 | 성 던 에 게 서 빅 성 을 무 르 처 복 음 을 전 하 실 식 제 스 제 장 과  
 스 즈 와 장 로 들 이 나 아 와 글으 디 <sup>1</sup> 너 | 무 슘 권 으 로 이 일 을 흥 하 며 네 게  
 이 권 을 주 신 이 가 누 군 지 말 하 라 <sup>2</sup> 디 답 하 야 글으샤 디 내 가 또 흥 말 노 게 무 르 리 너 | 내 게  
 고 하 라 <sup>3</sup> 요 한 의 세 례 중 이 하 늘 노 말 미 암 음 이 나 사 례 으 로 말 미 암 음 이 나 <sup>4</sup> 그 사 례 이 그 유 히  
 의 론 하 야 글으 디 우 리 들 이 만 일 하 늘 노 말 미 암 았 다 하 면 더 | 반 드 시 글으 디 너 | 엇 지 하 야 미  
 지 아 니 하 는 나 흥 거 시 오 <sup>5</sup> 만 일 사 례 으 로 말 미 암 았 다 날 으 면 여 러 빅 성 이 반 드 시 돌 노 세 우 리  
 를 썩 릴 거 시 니 대 개 빅 성 이 요 한 을 밋 는 거 시 셴 지 자 를 위 함 이 라 하 고 <sup>6</sup> 드 디 여 디 답 하 야 글으  
 디 어 디 로 말 미 암 은 지 아 지 못 하 노 라 <sup>7</sup> 예 수 | 날 너 글으샤 디 나 | 무 슘 권 으 로 이 를 흥 하 는 거  
 슬 또 흥 너 희 게 날 으 지 아 니 하 리 라 <sup>8</sup> 이 에 비 유 를 베 프 샤 무 리 드 러 날 너 글으샤 디 사 례 이 포  
 도 동 산 을 만 드 라 농 부 의 게 세 주 고 드 디 여 멀 니 갖 다 가 오 래 매 <sup>9</sup> 귀 약 에 밋 쳐 종 을 보 내 여 농 부  
 의 게 나 아 가 동 산 에 실 과 를 밋 치 라 하 니 농 부 | 종 을 싸 리 며 그 저 도 라 가 라 하 거 늘 <sup>10</sup> 다 시 다 른  
 종 을 보 내 니 또 싸 리 고 욱 하 며 그 저 도 라 가 라 하 는 지 라 <sup>11</sup> 세 번 재 종 을 보 내 대 농 부 | 못 춤 내 상  
 처 를 내 여 쫓 거 늘 <sup>12</sup> 동 산 주 인 이 글으 디 나 | 장 초 엇 지 하 리 오 반 드 시 내 스 랑 하 는 아 들 을 보 내

누가복음

데이십장

이십삼

리니더 보면응당놀나리라<sup>十四</sup>나<sup>十五</sup>더니<sup>十六</sup> 농부 그아들을보고그윽히서로의론<sup>十七</sup>야<sup>十八</sup>골<sup>十九</sup>이  
 는그후스를니을아들이니죽여그산업을우리게도라오게<sup>二十</sup>자<sup>二十一</sup>고<sup>二十二</sup> 동산<sup>二十三</sup>밭<sup>二十四</sup>그로<sup>二十五</sup>쫓<sup>二十六</sup>차<sup>二十七</sup>죽<sup>二十八</sup>였  
 신즉<sup>二十九</sup>동<sup>三十</sup>산<sup>三十一</sup>주<sup>三十二</sup>인이<sup>三十三</sup>장<sup>三十四</sup>춧<sup>三十五</sup>엇<sup>三十六</sup>더<sup>三十七</sup>케<sup>三十八</sup>이<sup>三十九</sup>일을<sup>四十</sup>쳐<sup>四十一</sup>치<sup>四十二</sup>홀<sup>四十三</sup>고<sup>四十四</sup> 반<sup>四十五</sup>드<sup>四十六</sup>시<sup>四十七</sup>외<sup>四十八</sup>셔<sup>四十九</sup>농<sup>五十</sup>부<sup>五十一</sup>를<sup>五十二</sup>멸<sup>五十三</sup>고<sup>五十四</sup>동<sup>五十五</sup>산<sup>五十六</sup>을<sup>五十七</sup>다<sup>五十八</sup>른<sup>五十九</sup>사<sup>六十</sup>름  
 의<sup>六十一</sup>게<sup>六十二</sup>맛<sup>六十三</sup>기<sup>六十四</sup>리<sup>六十五</sup>라<sup>六十六</sup>하<sup>六十七</sup>시<sup>六十八</sup>니<sup>六十九</sup>듯<sup>七十</sup>는<sup>七十一</sup>자<sup>七十二</sup> 골<sup>七十三</sup>이<sup>七十四</sup>디<sup>七十五</sup>그<sup>七十六</sup>러<sup>七十七</sup>하<sup>七十八</sup>지<sup>七十九</sup>아<sup>八十</sup>니<sup>八十一</sup>켓<sup>八十二</sup>습<sup>八十三</sup>는<sup>八十四</sup>이<sup>八十五</sup>다<sup>八十六</sup>하<sup>八十七</sup>거<sup>八十八</sup>늘<sup>八十九</sup> 예<sup>九十</sup>수<sup>九十一</sup> 마<sup>九十二</sup>조<sup>九十三</sup>보<sup>九十四</sup>고  
 골<sup>九十五</sup>이<sup>九十六</sup>사<sup>九十七</sup>디<sup>九十八</sup>괴<sup>九十九</sup>록<sup>一百</sup>흔<sup>一百一</sup>거<sup>一百二</sup>손<sup>一百三</sup>엇<sup>一百四</sup>지<sup>一百五</sup>힘<sup>一百六</sup>이<sup>一百七</sup>나<sup>一百八</sup>닐<sup>一百九</sup>이<sup>一百十</sup>시<sup>一百十一</sup>디<sup>一百十二</sup>브<sup>一百十三</sup>린<sup>一百十四</sup>바<sup>一百十五</sup>돌<sup>一百十六</sup>을<sup>一百十七</sup>집<sup>一百十八</sup>모<sup>一百十九</sup>둥<sup>一百二十</sup>이<sup>一百二十一</sup>의<sup>一百二十二</sup>첫<sup>一百二十三</sup>돌<sup>一百二十四</sup>노<sup>一百二十五</sup>문<sup>一百二十六</sup>든<sup>一百二十七</sup>다<sup>一百二十八</sup>하<sup>一百二十九</sup>시<sup>一百三十</sup>니<sup>一百三十一</sup>  
 므<sup>一百三十二</sup>릿<sup>一百三十三</sup>이<sup>一百三十四</sup>돌<sup>一百三十五</sup>우<sup>一百三十六</sup>헤<sup>一百三十七</sup>너<sup>一百三十八</sup>머<sup>一百三十九</sup>지<sup>一百四十</sup>는<sup>一百四十一</sup>자<sup>一百四十二</sup>는<sup>一百四十三</sup>반<sup>一百四十四</sup>드<sup>一百四十五</sup>시<sup>一百四十六</sup>상<sup>一百四十七</sup>하<sup>一百四十八</sup>고<sup>一百四十九</sup>이<sup>一百五十</sup>돌<sup>一百五十一</sup>이<sup>一百五十二</sup>그<sup>一百五十三</sup>몸<sup>一百五十四</sup>우<sup>一百五十五</sup>헤<sup>一百五十六</sup>너<sup>一百五十七</sup>머<sup>一百五十八</sup>지<sup>一百五十九</sup>는<sup>一百六十</sup>자<sup>一百六十一</sup>는<sup>一百六十二</sup>반<sup>一百六十三</sup>드<sup>一百六十四</sup>시<sup>一百六十五</sup>가<sup>一百六十六</sup>로<sup>一百六十七</sup>가<sup>一百六十八</sup>되  
 는<sup>一百六十九</sup>니<sup>一百七十</sup>라<sup>一百七十一</sup> 때<sup>一百七十二</sup>에<sup>一百七十三</sup>스<sup>一百七十四</sup>즈<sup>一百七十五</sup>와<sup>一百七十六</sup>선<sup>一百七十七</sup>비<sup>一百七十八</sup>가<sup>一百七十九</sup>예<sup>一百八十</sup>수<sup>一百八十一</sup> 이<sup>一百八十二</sup>비<sup>一百八十三</sup>유<sup>一百八十四</sup>를<sup>一百八十五</sup>하<sup>一百八十六</sup>야<sup>一百八十七</sup>즈<sup>一百八十八</sup>괴<sup>一百八十九</sup>를<sup>一百九十</sup>그<sup>一百九十一</sup>치<sup>一百九十二</sup>시<sup>一百九十三</sup>는<sup>一百九十四</sup>줄<sup>一百九十五</sup>을<sup>一百九十六</sup>알<sup>一百九十七</sup>고<sup>一百九十八</sup>잡<sup>一百九十九</sup>고<sup>二百</sup>저<sup>二百一</sup>하<sup>二百二</sup>디  
 빅<sup>二百三</sup>성을<sup>二百四</sup>두<sup>二百五</sup>려<sup>二百六</sup>워<sup>二百七</sup>하<sup>二百八</sup>야<sup>二百九</sup> 엿<sup>三百</sup>볼<sup>三百一</sup>식<sup>三百二</sup>람<sup>三百三</sup>지<sup>三百四</sup>군<sup>三百五</sup>을<sup>三百六</sup>보<sup>三百七</sup>내<sup>三百八</sup>여<sup>三百九</sup>거<sup>四百</sup>것<sup>四百一</sup>을<sup>四百二</sup>흔<sup>四百三</sup>사<sup>四百四</sup>름<sup>四百五</sup>인<sup>四百六</sup>데<sup>四百七</sup>하<sup>四百八</sup>고<sup>四百九</sup>그<sup>五百</sup>말<sup>五百一</sup>을<sup>五百二</sup>잡<sup>五百三</sup>아<sup>五百四</sup>감<sup>五百五</sup>스<sup>五百六</sup>의<sup>五百七</sup>형  
 세<sup>五百八</sup>와<sup>五百九</sup>권<sup>六百</sup>세<sup>六百一</sup>에<sup>六百二</sup>붓<sup>六百三</sup>치고<sup>六百四</sup>저<sup>六百五</sup>하<sup>六百六</sup>야<sup>六百七</sup> 탐<sup>六百八</sup>지<sup>六百九</sup>군이<sup>七百</sup>무<sup>七百一</sup>려<sup>七百二</sup>골<sup>七百三</sup>이<sup>七百四</sup>디<sup>七百五</sup>스<sup>七百六</sup>승<sup>七百七</sup>아<sup>七百八</sup>너<sup>七百九</sup> 말<sup>八百</sup>하<sup>八百一</sup>는<sup>八百二</sup>바<sup>八百三</sup>와<sup>八百四</sup>전<sup>八百五</sup>하<sup>八百六</sup>는<sup>八百七</sup>바<sup>八百八</sup> 다<sup>八百九</sup>올  
 흐<sup>九百</sup>시<sup>九百一</sup>며<sup>九百二</sup>네<sup>九百三</sup>외<sup>九百四</sup>양<sup>九百五</sup>으로<sup>九百六</sup>사<sup>九百七</sup>름<sup>九百八</sup>을<sup>九百九</sup>취<sup>一千</sup>하<sup>一千一</sup>지<sup>一千二</sup>아<sup>一千三</sup>니<sup>一千四</sup>코<sup>一千五</sup>오<sup>一千六</sup>직<sup>一千七</sup>참<sup>一千八</sup>됨<sup>一千九</sup>으로<sup>二千</sup>써<sup>二千一</sup>하<sup>二千二</sup>는<sup>二千三</sup>님<sup>二千四</sup>의<sup>二千五</sup>도<sup>二千六</sup>를<sup>二千七</sup>전<sup>二千八</sup>하<sup>二千九</sup>심<sup>三千</sup>을<sup>三千一</sup>아<sup>三千二</sup>는<sup>三千三</sup>이<sup>三千四</sup>다  
 #三 우리<sup>三千五</sup>가<sup>三千六</sup>제<sup>三千七</sup>를<sup>三千八</sup>가<sup>三千九</sup>이<sup>四千</sup>사의<sup>四千一</sup>게<sup>四千二</sup>밧<sup>四千三</sup>침<sup>四千四</sup>이<sup>四千五</sup>엇<sup>四千六</sup>더<sup>四千七</sup>하<sup>四千八</sup>니<sup>四千九</sup>잇<sup>五千</sup>가<sup>五千一</sup> 예<sup>五千二</sup>수<sup>五千三</sup> 그<sup>五千四</sup>게<sup>五千五</sup>교<sup>五千六</sup>를<sup>五千七</sup>알<sup>五千八</sup>으<sup>五千九</sup>시<sup>六千</sup>고<sup>六千一</sup>골<sup>六千二</sup>이<sup>六千三</sup>사<sup>六千四</sup>디<sup>六千五</sup>너<sup>六千六</sup> |  
 엿<sup>六千七</sup>지<sup>六千八</sup>나<sup>六千九</sup>를<sup>七千</sup>시<sup>七千一</sup>험<sup>七千二</sup>코<sup>七千三</sup>저<sup>七千四</sup>하<sup>七千五</sup>는<sup>七千六</sup>나<sup>七千七</sup> 돈<sup>七千八</sup>흔<sup>七千九</sup>핀<sup>八千</sup>을<sup>八千一</sup>내<sup>八千二</sup>게<sup>八千三</sup>뵈<sup>八千四</sup>이<sup>八千五</sup>라<sup>八千六</sup>뉘<sup>八千七</sup>화<sup>八千八</sup>상<sup>八千九</sup>과<sup>九千</sup>괴<sup>九千一</sup>호<sup>九千二</sup>가<sup>九千三</sup>잇<sup>九千四</sup>는<sup>九千五</sup>나<sup>九千六</sup>디<sup>九千七</sup>답<sup>九千八</sup>하<sup>九千九</sup>야<sup>一千</sup>골<sup>一千一</sup>이<sup>一千二</sup>디  
 가<sup>一千三</sup>이<sup>一千四</sup>사<sup>一千五</sup> |<sup>一千六</sup>니<sup>一千七</sup>이<sup>一千八</sup>다<sup>一千九</sup> #五 골<sup>二千</sup>이<sup>二千一</sup>사<sup>二千二</sup>디<sup>二千三</sup>그<sup>二千四</sup>런<sup>二千五</sup>즉<sup>二千六</sup>가<sup>二千七</sup>이<sup>二千八</sup>사의<sup>二千九</sup>게<sup>三千</sup>드<sup>三千一</sup>리<sup>三千二</sup>고<sup>三千三</sup>하<sup>三千四</sup>는<sup>三千五</sup>님<sup>三千六</sup>의<sup>三千七</sup>거<sup>三千八</sup>손<sup>三千九</sup>하<sup>四千</sup>는<sup>四千一</sup>님  
 썩<sup>四千二</sup>드<sup>四千三</sup>리<sup>四千四</sup>는<sup>四千五</sup>니<sup>四千六</sup>라<sup>四千七</sup>하<sup>四千八</sup>시<sup>四千九</sup>니<sup>五千</sup> #六 탐<sup>五千一</sup>지<sup>五千二</sup>군이<sup>五千三</sup>빅<sup>五千四</sup>성의<sup>五千五</sup>압<sup>五千六</sup>홀<sup>五千七</sup>당<sup>五千八</sup>하<sup>五千九</sup>야<sup>六千</sup> 그<sup>六千一</sup>말<sup>六千二</sup>을<sup>六千三</sup>잡<sup>六千四</sup>지<sup>六千五</sup>못<sup>六千六</sup>하<sup>六千七</sup>고<sup>六千八</sup>또<sup>六千九</sup>그<sup>七千</sup>디<sup>七千一</sup>답<sup>七千二</sup>을<sup>七千三</sup>괴<sup>七千四</sup>이<sup>七千五</sup>히  
 녀<sup>七千六</sup>여<sup>七千七</sup>즘<sup>七千八</sup>즘<sup>七千九</sup>하<sup>八千</sup>더<sup>八千一</sup>라<sup>八千二</sup> #七 사<sup>八千三</sup>두<sup>八千四</sup>개<sup>八千五</sup>사<sup>八千六</sup>름<sup>八千七</sup>의<sup>八千八</sup>말<sup>八千九</sup>이<sup>九千</sup>다<sup>九千一</sup>시<sup>九千二</sup>살<sup>九千三</sup>미<sup>九千四</sup>업<sup>九千五</sup>다<sup>九千六</sup>하<sup>九千七</sup>는<sup>九千八</sup>이<sup>九千九</sup>몇<sup>十</sup>치<sup>十一</sup>와<sup>十二</sup>셔<sup>十三</sup>무<sup>十四</sup>려<sup>十五</sup>골<sup>十六</sup>이<sup>十七</sup>디<sup>十八</sup>스<sup>十九</sup>승<sup>二十</sup>  
 아<sup>二十一</sup>모<sup>二十二</sup>제<sup>二十三</sup>가<sup>二十四</sup>써<sup>二十五</sup>셔<sup>二十六</sup>우<sup>二十七</sup>리의<sup>二十八</sup>게<sup>二十九</sup>뵈<sup>三十</sup>여<sup>三十一</sup>닐<sup>三十二</sup>이<sup>三十三</sup>디<sup>三十四</sup>만<sup>三十五</sup>일<sup>三十六</sup>사<sup>三十七</sup>름<sup>三十八</sup>이<sup>三十九</sup>형<sup>四十</sup>데<sup>四十一</sup>안<sup>四十二</sup>하<sup>四十三</sup>는<sup>四十四</sup>잇<sup>四十五</sup>고<sup>四十六</sup>즈<sup>四十七</sup>식<sup>四十八</sup>이<sup>四十九</sup>업<sup>五十</sup>사<sup>五十一</sup>죽<sup>五十二</sup>거<sup>五十三</sup>든<sup>五十四</sup>그<sup>五十五</sup>형<sup>五十六</sup>데  
 맛<sup>五十七</sup>당<sup>五十八</sup>히<sup>五十九</sup>그<sup>六十</sup>안<sup>六十一</sup>히<sup>六十二</sup>의<sup>六十三</sup>게<sup>六十四</sup>장<sup>六十五</sup>가<sup>六十六</sup>드<sup>六十七</sup>러<sup>六十八</sup>아<sup>六十九</sup>들<sup>七十</sup>을<sup>七十一</sup>나<sup>七十二</sup>하<sup>七十三</sup>니<sup>七十四</sup>으<sup>七十五</sup>라<sup>七十六</sup>하<sup>七十七</sup>니<sup>七十八</sup> #九 형<sup>七十九</sup>데<sup>八十</sup>닐<sup>八十一</sup>곱<sup>八十二</sup>사<sup>八十三</sup>름<sup>八十四</sup>이<sup>八十五</sup>잇<sup>八十六</sup>스<sup>八十七</sup>디<sup>八十八</sup>맛<sup>八十九</sup>형<sup>九十</sup>이<sup>九十一</sup>안<sup>九十二</sup>히  
 를<sup>九十三</sup>장<sup>九十四</sup>가<sup>九十五</sup>드<sup>九十六</sup>렸<sup>九十七</sup>다<sup>九十八</sup>가<sup>九十九</sup>아<sup>一百</sup>들<sup>一百一</sup>이<sup>一百二</sup>업<sup>一百三</sup>시<sup>一百四</sup>죽<sup>一百五</sup>으<sup>一百六</sup>매<sup>一百七</sup> #十一 그<sup>一百八</sup>들<sup>一百九</sup>재<sup>一百十</sup>가<sup>一百十一</sup>또<sup>一百十二</sup>안<sup>一百十三</sup>히<sup>一百十四</sup>로<sup>一百十五</sup>삼<sup>一百十六</sup>아<sup>一百十七</sup>또<sup>一百十八</sup>흔<sup>一百十九</sup>즈<sup>一百二十</sup>식<sup>一百二十一</sup>이<sup>一百二十二</sup>업<sup>一百二十三</sup>시<sup>一百二十四</sup>죽<sup>一百二十五</sup>고<sup>一百二十六</sup> #十三 그<sup>一百二十七</sup>셋  
 재<sup>一百二十八</sup>와<sup>一百二十九</sup>그<sup>一百三十</sup>닐<sup>一百三十一</sup>곱<sup>一百三十二</sup>재<sup>一百三十三</sup>셔<sup>一百三十四</sup>지<sup>一百三十五</sup>그<sup>一百三十六</sup>러<sup>一百三十七</sup>하<sup>一百三十八</sup>야<sup>一百三十九</sup>다<sup>一百四十</sup>즈<sup>一百四十一</sup>식<sup>一百四十二</sup>이<sup>一百四十三</sup>업<sup>一百四十四</sup>시<sup>一百四十五</sup>죽<sup>一百四十六</sup>고<sup>一百四十七</sup> #十五 그<sup>一百四十八</sup>후<sup>一百四十九</sup>에<sup>一百五十</sup>또<sup>一百五十一</sup>녀<sup>一百五十二</sup>언<sup>一百五十三</sup>이<sup>一百五十四</sup>죽<sup>一百五十五</sup>엇<sup>一百五十六</sup>는<sup>一百五十七</sup>지<sup>一百五十八</sup>라<sup>一百五十九</sup> #十七 닐<sup>一百六十</sup>곱<sup>一百六十一</sup>사<sup>一百六十二</sup>름<sup>一百六十三</sup>  
 아<sup>一百六十四</sup>다<sup>一百六十五</sup>취<sup>一百六十六</sup>하<sup>一百六十七</sup>였<sup>一百六十八</sup>시<sup>一百六十九</sup>니<sup>一百七十</sup>다<sup>一百七十一</sup>시<sup>一百七十二</sup>살<sup>一百七十三</sup>때<sup>一百七十四</sup>에<sup>一百七十五</sup>뉘<sup>一百七十六</sup>안<sup>一百七十七</sup>히<sup>一百七十八</sup>가<sup>一百七十九</sup>되<sup>一百八十</sup>리<sup>一百八十一</sup>잇<sup>一百八十二</sup>가<sup>一百八十三</sup> #十九 예<sup>一百八十四</sup>수<sup>一百八十五</sup> |<sup>一百八十六</sup>디<sup>一百八十七</sup>답<sup>一百八十八</sup>하<sup>一百八十九</sup>야<sup>一百九十</sup>골<sup>一百九十一</sup>이<sup>一百九十二</sup>사<sup>一百九十三</sup>디<sup>一百九十四</sup>이<sup>一百九十五</sup>세<sup>一百九十六</sup>상<sup>一百九十七</sup>사<sup>一百九十八</sup>름<sup>一百九十九</sup>은  
 식<sup>二百</sup>집<sup>二百一</sup>도<sup>二百二</sup>가<sup>二百三</sup>고<sup>二百四</sup>장<sup>二百五</sup>가<sup>二百六</sup>도<sup>二百七</sup>가<sup>二百八</sup>디<sup>二百九</sup> #五 오<sup>三百</sup>직<sup>三百一</sup>더<sup>三百二</sup> |<sup>三百三</sup>세<sup>三百四</sup>상<sup>三百五</sup>과<sup>三百六</sup>죽<sup>三百七</sup>음<sup>三百八</sup>으<sup>三百九</sup>로<sup>四百</sup>말<sup>四百一</sup>미<sup>四百二</sup>암<sup>四百三</sup>아<sup>四百四</sup>다<sup>四百五</sup>시<sup>四百六</sup>살<sup>四百七</sup>아<sup>四百八</sup>날<sup>四百九</sup>자<sup>五百</sup>는<sup>五百一</sup>식<sup>五百二</sup>집<sup>五百三</sup>도<sup>五百四</sup>아<sup>五百五</sup>니

가며 장가도 아니 가고 <sup>三六</sup> 또 혼자 죽지 못하는 거스런 스와 곳고 또 하는 님의 아들이 됨이니 다  
 시사는 사람이니라 <sup>三七</sup> 모세가 슈풀근 처에 잇슬 처에 하는 님을 아브라함의 신과 이사야의 신과  
 야곱의 신이라 할 거시 죽은 자가 다 시살을 펴는 지라 <sup>三八</sup> 대개 하는 님이 죽은 자가 아니 오이 에 산  
 이의 신이니 대개 못 사람이 더로 말미암아 살을 인함이라 하니 <sup>三九</sup> 선비 두어 사람이 잇서 글으되  
 션성의 말씀이 올흐니 이다 하고 <sup>四〇</sup> 후에 감히 다 시 못지 못하더라 ○ 예수 | 무리드려닐너 글  
 으샤 되 사람이 었지 하야 그리스도를 다위의 즈손이라 하는 나 <sup>四一</sup> 시편척에 다위가 스스로 말하  
 디 주 | 내 주 색닐으되 내 우편에 안자 <sup>四二</sup> 나 | 너 희원 슈를 네 발등상 되게 하 기 성 지 잇스라 하 시  
 니 다위가 그리스도를 주 | 라닐 큰 죽 었지 그 즈손이 되리 오 하 시 고 <sup>四三</sup> 못 빙성들이 드를 때에  
 예수 | 그 데 즈의 게닐너 글으샤 되 <sup>四四</sup> 스 즈를 조심 하라 더 희는 긴 옷 슬 남고 든 니 기를 도 화 하 고  
 장터에 서인 스 흠과 회당에 놓흔 자리와 연석에 상좌를 도 화 하 나 <sup>四五</sup> 그러나 과부에 집 지 물을 먹  
 고 거 짓 길 게 비는 니 그 죄를 밧음이 반드 시 더 옥 중 하 리 라

**데 이 십 일 장**

예수 | 눈을 드리 보 시 니 부자가 레물을 고 에 더 짐을 보 시 고 <sup>一</sup> 또 가  
 난 혼 과 부가 엽 전 두 품을 더 짐을 보 시 고 <sup>二</sup> 글으샤 되 나 | 실 노 너 희  
 의 게 말하 는 니 이 가 난 혼 과 부의 더 지 는 거 시 못 사 름 보 다 더 만 혼 지 라 <sup>三</sup> 대 개 더 무 리 는 그 만 흠  
 으 로 써 더 지 디 오 직 이 과 부 는 구 차 흠 으 로 써 잇 는 바 를 다 드 렸 는 지 라 ○ <sup>四</sup> 후 이 성 던 을 미 석 과  
 레 물을 가 지 고 씹 이 었 다 하 니 <sup>五</sup> 예 수 | 글으샤 되 이 너 희 보 는 거 스 날 이 장 찾 니 르 면 돌 이 하 나  
 도 돌 우 헤 세 침 이 엽 시 다 문 히 지 리 라 하 시 니 <sup>六</sup> 못 사 름 이 무 러 글으되 스 승 님 아 어 는 때 에 이 일  
 이 잇 스 며 이 일 이 장 찾 니 르 려 에 무 슘 징 죠 가 잇 스 오 리 잇 가 <sup>七</sup> 글으샤 되 너 희 삼 가 속 지 말 나 장  
 찾 만 히 내 일 흠 을 무 름 쓰 고 외 글으되 내 가 그 리 스 도 | 라 때 가 갓 가 온 다 하 여 도 너 희 좃 지 말 고  
 너 희 는 란 리 와 요 란 흠 을 드 를 때 에 두 러 위 말 나 이 거 시 반 드 시 문 저 잇 슬 거 시 오 오 직 마 즈 막  
 과 약 이 되 지 아 니 하 었 는 니 라 <sup>八</sup> 또 닐 너 글으샤 되 빙 성 이 장 찾 빙 성 을 더 덕 하 며 나 라 히 나 라 홀

가나복음 | **데 이 십 일 장**

이십스



해서 배호라 호시고 예수 | 날마다 성면에 서 무르치시고 밤마다 나아가 감람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일즉 성면에 나아가듯더라

### 예이십이장

유월절이라는 누룩떡 금하는 절과 갓가 오니 제스제장과 스즈들이  
엇지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야 썩히디 백성을 무셔 위홍이라 때에

사한이 이스카롯이라 호는 유다의 게드러가니 이는 곳 열둘중에 하나니라 이에 가서 제스제  
장과 령관으로 더브러 었지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의논하매 너희들이 깃버하야 돈주기를 상  
약하니 유다 | 허락호고 이에 못사롬업는 들을 었어 잡아 주라 호더라 누룩떡 금하는 날이  
나르니 유월양을 잡는 때라 예수 |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샤 이르시니 가서 우리를 위하  
야 유월절 잔치를 예비하야 우리가 먹게하라 디 답하야 이르시니 우리가 어디다가 예비하야  
도젧스옵는 나잇가 이르시니 이르시니 회성에 드러갈 때에 혼자 물흔 동년 거슬 맞날 거시  
니 너 | 스라집으로 드러가 그 주인 드러 말하디 선생님이 호시기를 나 | 데즈로 더브러 유월  
절 잔치를 먹방이 어딘가 무르라 호시더라 하면 더 | 비설흔 큰 다락을 배회이리니 괴  
예비하라 문도 | 드디여 가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맛나 유월절 잔치를 예비하라 때니  
매에 수 | 자리에 안지시고 열두데즈 | 혼자 지로 호나 예수 | 이르시니 | 해를 밝기  
전에 너 회와 혼자 저로이 유월절 잔치를 먹을 원하엿노라 나 | 너 희드러 날으는 내  
가다 시이 잔치를 먹지 못하호 하는님의 나라 희응할 때 서지라 호시고 이에 잔을 가져 추슈호  
시고 이르시디 거슬 가져 너희들이 호라 호시고 나 | 너 드러 날으는 나 | 하는님의 나  
라림호시거 전에 다시 포도나 모에나 는 거슬 먹지 아니하리라 호시고 또 떡을 가져 추슈호시  
고 떡여 주어 이르시디 이는 내 몸을 너희를 위하야 주는 거시니 너희는 나물과 떡하야 이를 힘  
지어다 | 잡스온 후에 잔을 가져 또 혼자 호시니 이르시디 잔은 곳 너희를 위하야 흘린 피니 이  
거손 새 언약이라 | 그러나 나를 팔자의 손이 날노더브러 자리에 었는 지라 | 인즈 | 장차 전에

유다 | 허락호고 이에 못사롬업는 들을 었어 잡아 주라 호더라

이십이

영호신대 로가 디 오직 팔자는 그 회가 잇스리라 무리 서로 부르 디 누가 이 일을 할고 ○ 문도  
 | 그중에서 로 돕기 를 닷도 거늘 예수 | 닐너 켈으 사 디 외 방에 님금이 그다 스림을 주고 권세  
 를 잡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 | 라 닐너 켈으 디 오직 너희는 그러치 아니하니 다 만 너희가 온 디  
 큰이 가 된 자는 맛당히 적은 자와 갓할 거시오 어룬되는 자는 맛당히 스환하는 자와 갓할 거시오  
 #12 뉘가 크랴 자리에 안진자 | 나 스환하는 자 | 나 안진자가 크지 아니나 그러나 | 너희 중에  
 잇서 스환하는 자 갓하니라 너희 무리 내 가 환란 당할 동안 헤일 싱흔 가지로 갓했시니 #9 나 |  
 나라로써 너 를 봉하 디 내 아 바지가 날 봉함 과 갓하야 너 로 갓하 여곰 내 나라 헤 잇서 내 자리에서  
 음식 하고 또 혼 위에 안자 이 스라 엘 열 두 지파 를 다 스리게 하리라 #3 주 | 또 켈으 사 디 시몬 아 시  
 몬 아 사 탄 이 너 를 엿어 밀싸 부르는 것과 갓치 너 를 싸 부르려 하니 #3 그러나 | 임의 너 를 위하  
 야 괴도 하야 너 로 갓하 여곰 너 | 밋음이 업서 지 지 아니케 하야 회기 혼 후에 네 데 형을 굿게 하라 하  
 시니 #3 디 답하야 켈으 디 쥬여 내 가 너 와 혼 가지로 육 이 나 죽는 디 라 도 가 라 하 는 이 다 #3 켈으 사  
 디 베드로 야 나 | 너 드려 말하 는 니 오늘 돌을 기 전에 너 | 세 번 나 를 모른 다 하 리 라 ○ #35 이에 문  
 도 드려 닐너 켈으 사 디 나 | 너 희 를 전 디 도 업고 자 로 도 업고 신 도 업서 보 내 엿실 때 에 업는 거 시  
 잇더 나 켈으 디 업 더 이 다 #36 닐너 켈으 사 디 이제 는 전 디 잇는 자는 가 지고 자 로 잇는 자도 또 혼 그  
 러 하고 환도 업는 자는 가 히 옷 술 풀 아 환도 를 살 지 어 다 #37 나 | 너 드려 말하 는 니 괴 롭 혼 바 사 롱  
 이 죄 인 중 사 롱 으 로 보 앓 다 혼 말 이 반 드 시 응 할 거 손 나 를 구 르 천 바 가 일 움 이 되 리 라 #38 문도 |  
 켈으 디 쥬야 어 괴 환도 들 히 잇는 이 다 디 답하야 켈으 사 디 족하니라 예수 | 나 아 가즈 괴 규례  
 물 조차 감람 산에 가 실 식 문도 | 조차가 나 그곳에 니 르 러는 곳 문도 드려 닐너 켈으 사 디 괴도  
 는 쥬임에 들기 를 면하 는 니 라 하 시고 #39 드 디 여 혼 돌 던 질 디 만 처가 서 살 어 빌어 켈으 사 디 아  
 바 지 여 만 일 즐 기 시 거 든 이 잔 이 나 틀 지 나 가 개 하 쇼 서 그러 나 내 뜻 대 로 말 으 시고 오 직 처 분  
 대 로 하 쇼 쇼 서 #40 스 자 가 하 놀 노 브 터 나 타 나 강 건 케 하 니 #41 예수 | 절 동 하 사 괴 도 하 시 기 를 더

육근절이 하시니 씬이 흐르는 피 못 처싸 헤쳐 버려 지더라 <sup>四五</sup> 기도 하시기를 못 하시매 니러나 문도  
 의게 나아가 근심함이 심하여 자는 거슬 보시고 <sup>四六</sup> 날너 끌으샤 디엇지 하여 자는 나 니러나 기도  
 하여 씨임에 들기를 면할게 하라 ○ <sup>四七</sup> 못춤말할 때에 할 무리가 니러니 열두 문도 중 하나 유다  
 라는 자 | 압해 행하여 예수께 나아가 외 입을 맛초라 하니 <sup>四八</sup> 예수 | 날너 끌으샤 디 유다야 너 |  
 입맛춤으로써 인즈를 품는 나 하시니 <sup>四九</sup> 좌우 | 그 창리 일을 보고 곳 엿저 외 끌으 디 유다야 너 들  
 이 갈노써 치리 잇가 하니 <sup>五〇</sup>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스장의 종을 쳐 그 올흔편 귀를 찌려 버리니 <sup>五一</sup> 예  
 수 | 날너 끌으샤 디 일이니 <sup>五二</sup> 려시니 춤으라 하시고 드 디 여 그 귀를 어로 문져 낮게 하시더라 <sup>五三</sup>  
 예수 | 그 온바 제스제장과 성던에 령관과 모든 장로 드려 날너 끌으샤 디 너희와 서갈과 몽동이  
 로써 도적 못잡는 나 <sup>五四</sup> 나 | 날마다 너와 한가지로 성던에 잇스 디 내게 손을 디지 아니 하였시  
 나 그러나 이제 너희째 니어 득 온권세로다 <sup>五五</sup> 예수를 잡아 제스장의 집으로 갈시 베드로 | 멀  
 니 쓰라가 더니 <sup>五六</sup> 사람이 마당가 온 디 불을 피운 후에 그 스이에 한가지로 안진지라 <sup>五七</sup> 한계집종  
 이 베드로 | 불을 향하여 안진거슬 보고 다시 똑똑이 보아 끌으 디 이 사람이 예수와 한가지로 든  
 닌 사람이라 하니 <sup>五八</sup> 베드로 | 아니라 하여 끌으 디 너인아나 | 알지 못하노라 <sup>五九</sup> 쓰조곰 잇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끌으 디 너도 그렇다 이니라 베드로 | 끌으 디 이 사람이 실노 한가지로 든니는 니대개 끌  
 잇다가 다시 한 사람이 잇서 명령이 말하여 끌으 디 이 사람이 내 말을 내 알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sup>六〇</sup> 한말할 때에  
 니아 사람이라 한대 <sup>六一</sup> 베드로 | 끌으 디 이 사람이 내 말을 내 알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sup>六二</sup> 한말할 때에  
 뉘이 유느지라 <sup>六三</sup> 유 | 베드로를 도라 보시니 베드로 | 드 디 여 유 | 말삼하시기를 뉘을 기전나  
 를 세번 비박하리라 하시니 말을 씬을 생각하고 <sup>六四</sup> 드 디 여 나아가 통곡하더라 ○ <sup>六五</sup> 예수를 잡은 자 |  
 괴롱하여 쓰리며 <sup>六六</sup> 그 눈을 그리우고 끌으 디 너를 치는 자 | 누구든지 그리치라 하고 <sup>六七</sup> 쓰여러가  
 지로 쓰욕하더라 <sup>六八</sup> 복기에 백성의 장로와 제스제장과 스즈가 모도하여 손을 씬을 고공당에 니  
 르러 <sup>六九</sup> 끌으 디 너 | 그리스도면 우리게 날으라 디 답하여 끌으샤 디 니 | 만일 네게 날을 지라도

이십륙

이십륙



너 | 밋지 아니 할 거시오 <sup>六八</sup> 나 | 만일 너 드려 무려 도너 | 디 답 하 지 아니 할 거시오 <sup>六九</sup> 이후에 인  
주 | 하 는 님 의 큰 권 제 우 편 에 안 져 시 리 라 <sup>七〇</sup> 여 러 히 콜 으 디 그 러 면 네 가 하 는 님 의 아 들 이 나 디  
답 하 야 콜 으 샤 디 너 희 말 이 올 도 다 <sup>七一</sup> 무 리 콜 으 디 이 다 른 증 거 는 무 어 식 쓰 리 오 그 입 으 로 천 히  
말 하 는 거 슬 드 렷 노 라 하 디 라

### 데 이 십 삼 장

무 리 다 니 러 나 비 라 도 의 게 예 수 를 쓰 을 고 가 서 <sup>二</sup> 송 스 하 야 콜 으 디  
우 리 가 보 니 이 사 름 이 박 성 을 미 후 하 고 가 이 사 의 게 세 밧 치 는 거 슬  
금 하 며 지 과 가 그 리 스 도 한 님 금 이 라 닐 <sup>三</sup> 니 이 다 <sup>四</sup> 비 라 도 | 무 리 콜 으 디 네 가 유 다 사 름 의  
님 금 이 나 디 답 하 야 콜 으 샤 디 네 가 말 하 였 도 다 <sup>五</sup> 비 라 도 | 제 스 제 장 과 무 리 들 드 러 닐 너 콜 으  
디 나 | 이 사 름 을 보 니 죄 가 업 도 다 <sup>六</sup> 무 리 더 옥 썩 내 고 부 르 지 저 콜 으 디 더 | 박 성 을 요 동 하 고  
교 를 전 하 야 유 다 에 편 만 하 고 갈 닐 니 아 로 브 러 여 괴 서 지 니 르 렷 는 이 다 <sup>七</sup> 비 라 도 | 한 번 갈 닐  
니 아 라 말 을 들 고 드 디 여 무 르 디 이 가 갈 닐 니 아 사 름 이 나 <sup>八</sup> 헤 롯 다 스 리 는 디 속 훈 줄 을 알 고 곳  
보 내 여 헤 롯 의 게 니 르 니 때 에 헤 롯 이 예 루 살 념 에 있 는 처 라 <sup>九</sup> 헤 롯 이 예 수 를 보 고 깃 봄 이 심 하  
니 대 개 보 고 저 홀 이 오 램 은 그 일 을 만 히 들 고 또 하 고 이 상 훈 령 적 훈 하 심 보 기 를 브 램 일 너 라 <sup>十</sup>  
여 러 말 노 써 무 르 나 예 수 | 디 답 지 아 니 하 시 고 <sup>十一</sup> 제 스 제 장 과 전 비 는 서 서 송 스 하 기 를 군 절 이  
하 니 <sup>十二</sup> 헤 롯 이 그 군 스 들 과 죽 처 예 수 를 업 수 히 녀 여 욕 하 고 치 식 옷 슬 님 히 고 비 라 도 의 게 도 로  
보 내 니 <sup>十三</sup> 비 라 도 | 헤 롯 으 로 더 브 러 본 디 원 슈 가 되 었 더 니 당 일 에 서 로 천 구 가 되 니 라 <sup>十四</sup> 비  
라 도 | 임 의 제 스 제 장 과 유 스 와 박 성 을 모 호 고 <sup>十五</sup> 닐 너 콜 으 디 너 희 이 사 름 을 내 게 쓰 으 러 다 가  
써 말 하 기 를 박 성 을 어 지 러 인 다 하 니 내 가 곳 너 희 고 하 는 일 노 써 너 희 압 해 사 실 하 디 그 죄 있 는  
거 슬 보 지 못 하 였 고 <sup>十六</sup> 헤 롯 이 또 하 고 그 러 게 하 니 대 개 우 리 게 도 보 내 여 또 하 예 수 로 훈 하 신 바  
| 맛 당 히 죽 임 죽 흠 을 보 지 못 하 였 는 지 라 <sup>十七</sup> 나 | 그 런 고 로 싸 려 노 코 저 하 노 라 <sup>十八</sup> 대 개 그 유 월  
절 과 약 에 는 본 디 반 드 시 훈 죄 인 을 노 흠 이 러 라 <sup>十九</sup> 무 리 일 제 히 브 르 지 저 콜 으 디 이 사 름 을 죽 이

고우리게 바라바를 노흐쇼셔 대개 바라바는 성중에서 란을 짓고 살인함으로 옥에 갓천지라  
 \* 비라도는 예수를 노코져하는 고로 다시 무리를 권하디 오직 무리들은 부르지져 글으디 십  
 즈가에 못박으쇼셔 십자가에 못박으쇼셔하니 비라도 세 번 말하야 글으디 더 사람이 무슴  
 악을 행하였느냐는 그 죽을 죄잇는 거슬 보지 못하였는니 장차 따려 노흐리라 무리더 옥소리  
 를 돕혀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무리의 소리가 이고는 지라 이에 비라도 그 구하는 바와  
 못치결안하교 드디여 란을 짓고 살인하야 옥에 가도 왔던 사람을 노흐니 이는 곳 그 구하는 바  
 | 라이에 예수를 무리의게 그 뜻대로 하라 붓쳤더라 ○ 예수를 잇글고 갈새 에 쿠리니 사람이  
 든이 식골노셔 오거늘 무리가 잡아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좃게 하니 허다한 백성의 무리와셔  
 울고이 통하는 부녀들이 예수를 따로거늘 예수 도라보아 글으샤 디예루살렘녀인들아 나  
 를 위하야 울지 말고 맛당히 너와 네즈손을 위하야 울지어다 날이 장차 나르매 사람이 반드시  
 말하기를 슈티 못하는 이와 한번도 희산하지 못하니와 한번도 젖먹이지아나 하니는 복이라하  
 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을 디하야 날으기를 나를 부르라 하며 언덕을 디하야 날으기를 우리를  
 그리우라하리니 푸른나모에 도이 못치하거든 푸른나모는 장차 었더하리오 또 한 두 죄인  
 을 잇그려 예수와 함께 가지로하야 죽이고져 할지 쉼버리라 하는 곳에 니르러 거기서 십자가에  
 못박고 두 죄인도 또 한 그 러하디하나 혼좌편이 오하나 혼우편이라 ○ 그 때에 예수 글으샤  
 디아바지여 이 사람들을 사하여 주옵쇼셔 무리가 하는 거슬 아지 못하야 그리하옵는 이 다이에  
 그 옷슬는 호고 또 제비 썩아가 친지라 백성이 서서 볼시 유스와 무리가 괴롱하야 글으디 더  
 다른 사람을 구하엿시니 만일 하는 남이 싸신자 그리스도면 스스로 구하게 하자하교 군스  
 또 한 괴롱하야 와서 초를 드려 글으디 네가 만일 유다 사람의 왕이라 하였더라 ○ 한 가지로 들린 죄인  
 하나히 비양하야 글으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곳 너와 우리를 구하라하나 또 한 나 혼그 사람

누가복음 제이십삼장

이십칠

을 디 호야 썩지 저 글으 디 너 | 호 가 지 로 죄 를 밧으 디 오 히 려 하 는 님 을 두 리 지 아 니 호 는 나 <sup>1</sup> 우  
 리 들 은 맛 당 호 니 라 대 개 우 리 밧 는 거 손 우 리 호 호 바 에 맛 당 호 거 니 와 오 직 이 사 람 의 호 호 거 손  
 을 치 아 닌 거 시 업 는 니 라 호 고 <sup>2</sup> 이 에 예 수 드 러 닐 너 글으 디 주 여 나 라 헤 드 러 갈 때 에 나 를 생 각  
 호 쇼 셔 <sup>3</sup> 예 수 | 닐 너 글으 샤 디 나 | 진 실 노 너 드 러 닐 으 는 니 오 늘 너 | 반 드 시 나 와 호 가 지 로  
 바 라 다 이 에 잇 스 리 라 <sup>4</sup> <sup>5</sup> 때 가 오 시 중 이 라 온 짜 히 다 미 시 말 셔 지 어 둠 은 <sup>6</sup> 히 빗 치 감 감 호 일  
 너 라 성 던 에 휘 장 이 호 가 온 디 가 썩 여 지 는 지 라 <sup>7</sup> 예 수 | 크 게 소 리 호 야 불 너 글으 샤 디 아 바 지  
 여 내 령 호 을 아 바 지 손 에 너 호 이 니 다 호 시 고 말 숨 이 뭇 초 시 때 과 운 썩 허 지 시 니 <sup>8</sup> <sup>9</sup> <sup>10</sup> <sup>11</sup> <sup>12</sup> <sup>13</sup> <sup>14</sup> <sup>15</sup> <sup>16</sup> <sup>17</sup> <sup>18</sup> <sup>19</sup> <sup>20</sup> <sup>21</sup> <sup>22</sup> <sup>23</sup> <sup>24</sup> <sup>25</sup> <sup>26</sup> <sup>27</sup> <sup>28</sup> <sup>29</sup> <sup>30</sup> <sup>31</sup> <sup>32</sup> <sup>33</sup> <sup>34</sup> <sup>35</sup> <sup>36</sup> <sup>37</sup> <sup>38</sup> <sup>39</sup> <sup>40</sup> <sup>41</sup> <sup>42</sup> <sup>43</sup> <sup>44</sup> <sup>45</sup> <sup>46</sup> <sup>47</sup> <sup>48</sup> <sup>49</sup> <sup>50</sup> <sup>51</sup> <sup>52</sup> <sup>53</sup> <sup>54</sup> <sup>55</sup> <sup>56</sup> <sup>57</sup> <sup>58</sup> <sup>59</sup> <sup>60</sup> <sup>61</sup> <sup>62</sup> <sup>63</sup> <sup>64</sup> <sup>65</sup> <sup>66</sup> <sup>67</sup> <sup>68</sup> <sup>69</sup> <sup>70</sup> <sup>71</sup> <sup>72</sup> <sup>73</sup> <sup>74</sup> <sup>75</sup> <sup>76</sup> <sup>77</sup> <sup>78</sup> <sup>79</sup> <sup>80</sup> <sup>81</sup> <sup>82</sup> <sup>83</sup> <sup>84</sup> <sup>85</sup> <sup>86</sup> <sup>87</sup> <sup>88</sup> <sup>89</sup> <sup>90</sup> <sup>91</sup> <sup>92</sup> <sup>93</sup> <sup>94</sup> <sup>95</sup> <sup>96</sup> <sup>97</sup> <sup>98</sup> <sup>99</sup> <sup>100</sup> <sup>101</sup> <sup>102</sup> <sup>103</sup> <sup>104</sup> <sup>105</sup> <sup>106</sup> <sup>107</sup> <sup>108</sup> <sup>109</sup> <sup>110</sup> <sup>111</sup> <sup>112</sup> <sup>113</sup> <sup>114</sup> <sup>115</sup> <sup>116</sup> <sup>117</sup> <sup>118</sup> <sup>119</sup> <sup>120</sup> <sup>121</sup> <sup>122</sup> <sup>123</sup> <sup>124</sup> <sup>125</sup> <sup>126</sup> <sup>127</sup> <sup>128</sup> <sup>129</sup> <sup>130</sup> <sup>131</sup> <sup>132</sup> <sup>133</sup> <sup>134</sup> <sup>135</sup> <sup>136</sup> <sup>137</sup> <sup>138</sup> <sup>139</sup> <sup>140</sup> <sup>141</sup> <sup>142</sup> <sup>143</sup> <sup>144</sup> <sup>145</sup> <sup>146</sup> <sup>147</sup> <sup>148</sup> <sup>149</sup> <sup>150</sup> <sup>151</sup> <sup>152</sup> <sup>153</sup> <sup>154</sup> <sup>155</sup> <sup>156</sup> <sup>157</sup> <sup>158</sup> <sup>159</sup> <sup>160</sup> <sup>161</sup> <sup>162</sup> <sup>163</sup> <sup>164</sup> <sup>165</sup> <sup>166</sup> <sup>167</sup> <sup>168</sup> <sup>169</sup> <sup>170</sup> <sup>171</sup> <sup>172</sup> <sup>173</sup> <sup>174</sup> <sup>175</sup> <sup>176</sup> <sup>177</sup> <sup>178</sup> <sup>179</sup> <sup>180</sup> <sup>181</sup> <sup>182</sup> <sup>183</sup> <sup>184</sup> <sup>185</sup> <sup>186</sup> <sup>187</sup> <sup>188</sup> <sup>189</sup> <sup>190</sup> <sup>191</sup> <sup>192</sup> <sup>193</sup> <sup>194</sup> <sup>195</sup> <sup>196</sup> <sup>197</sup> <sup>198</sup> <sup>199</sup> <sup>200</sup> <sup>201</sup> <sup>202</sup> <sup>203</sup> <sup>204</sup> <sup>205</sup> <sup>206</sup> <sup>207</sup> <sup>208</sup> <sup>209</sup> <sup>210</sup> <sup>211</sup> <sup>212</sup> <sup>213</sup> <sup>214</sup> <sup>215</sup> <sup>216</sup> <sup>217</sup> <sup>218</sup> <sup>219</sup> <sup>220</sup> <sup>221</sup> <sup>222</sup> <sup>223</sup> <sup>224</sup> <sup>225</sup> <sup>226</sup> <sup>227</sup> <sup>228</sup> <sup>229</sup> <sup>230</sup> <sup>231</sup> <sup>232</sup> <sup>233</sup> <sup>234</sup> <sup>235</sup> <sup>236</sup> <sup>237</sup> <sup>238</sup> <sup>239</sup> <sup>240</sup> <sup>241</sup> <sup>242</sup> <sup>243</sup> <sup>244</sup> <sup>245</sup> <sup>246</sup> <sup>247</sup> <sup>248</sup> <sup>249</sup> <sup>250</sup> <sup>251</sup> <sup>252</sup> <sup>253</sup> <sup>254</sup> <sup>255</sup> <sup>256</sup> <sup>257</sup> <sup>258</sup> <sup>259</sup> <sup>260</sup> <sup>261</sup> <sup>262</sup> <sup>263</sup> <sup>264</sup> <sup>265</sup> <sup>266</sup> <sup>267</sup> <sup>268</sup> <sup>269</sup> <sup>270</sup> <sup>271</sup> <sup>272</sup> <sup>273</sup> <sup>274</sup> <sup>275</sup> <sup>276</sup> <sup>277</sup> <sup>278</sup> <sup>279</sup> <sup>280</sup> <sup>281</sup> <sup>282</sup> <sup>283</sup> <sup>284</sup> <sup>285</sup> <sup>286</sup> <sup>287</sup> <sup>288</sup> <sup>289</sup> <sup>290</sup> <sup>291</sup> <sup>292</sup> <sup>293</sup> <sup>294</sup> <sup>295</sup> <sup>296</sup> <sup>297</sup> <sup>298</sup> <sup>299</sup> <sup>300</sup> <sup>301</sup> <sup>302</sup> <sup>303</sup> <sup>304</sup> <sup>305</sup> <sup>306</sup> <sup>307</sup> <sup>308</sup> <sup>309</sup> <sup>310</sup> <sup>311</sup> <sup>312</sup> <sup>313</sup> <sup>314</sup> <sup>315</sup> <sup>316</sup> <sup>317</sup> <sup>318</sup> <sup>319</sup> <sup>320</sup> <sup>321</sup> <sup>322</sup> <sup>323</sup> <sup>324</sup> <sup>325</sup> <sup>326</sup> <sup>327</sup> <sup>328</sup> <sup>329</sup> <sup>330</sup> <sup>331</sup> <sup>332</sup> <sup>333</sup> <sup>334</sup> <sup>335</sup> <sup>336</sup> <sup>337</sup> <sup>338</sup> <sup>339</sup> <sup>340</sup> <sup>341</sup> <sup>342</sup> <sup>343</sup> <sup>344</sup> <sup>345</sup> <sup>346</sup> <sup>347</sup> <sup>348</sup> <sup>349</sup> <sup>350</sup> <sup>351</sup> <sup>352</sup> <sup>353</sup> <sup>354</sup> <sup>355</sup> <sup>356</sup> <sup>357</sup> <sup>358</sup> <sup>359</sup> <sup>360</sup> <sup>361</sup> <sup>362</sup> <sup>363</sup> <sup>364</sup> <sup>365</sup> <sup>366</sup> <sup>367</sup> <sup>368</sup> <sup>369</sup> <sup>370</sup> <sup>371</sup> <sup>372</sup> <sup>373</sup> <sup>374</sup> <sup>375</sup> <sup>376</sup> <sup>377</sup> <sup>378</sup> <sup>379</sup> <sup>380</sup> <sup>381</sup> <sup>382</sup> <sup>383</sup> <sup>384</sup> <sup>385</sup> <sup>386</sup> <sup>387</sup> <sup>388</sup> <sup>389</sup> <sup>390</sup> <sup>391</sup> <sup>392</sup> <sup>393</sup> <sup>394</sup> <sup>395</sup> <sup>396</sup> <sup>397</sup> <sup>398</sup> <sup>399</sup> <sup>400</sup> <sup>401</sup> <sup>402</sup> <sup>403</sup> <sup>404</sup> <sup>405</sup> <sup>406</sup> <sup>407</sup> <sup>408</sup> <sup>409</sup> <sup>410</sup> <sup>411</sup> <sup>412</sup> <sup>413</sup> <sup>414</sup> <sup>415</sup> <sup>416</sup> <sup>417</sup> <sup>418</sup> <sup>419</sup> <sup>420</sup> <sup>421</sup> <sup>422</sup> <sup>423</sup> <sup>424</sup> <sup>425</sup> <sup>426</sup> <sup>427</sup> <sup>428</sup> <sup>429</sup> <sup>430</sup> <sup>431</sup> <sup>432</sup> <sup>433</sup> <sup>434</sup> <sup>435</sup> <sup>436</sup> <sup>437</sup> <sup>438</sup> <sup>439</sup> <sup>440</sup> <sup>441</sup> <sup>442</sup> <sup>443</sup> <sup>444</sup> <sup>445</sup> <sup>446</sup> <sup>447</sup> <sup>448</sup> <sup>449</sup> <sup>450</sup> <sup>451</sup> <sup>452</sup> <sup>453</sup> <sup>454</sup> <sup>455</sup> <sup>456</sup> <sup>457</sup> <sup>458</sup> <sup>459</sup> <sup>460</sup> <sup>461</sup> <sup>462</sup> <sup>463</sup> <sup>464</sup> <sup>465</sup> <sup>466</sup> <sup>467</sup> <sup>468</sup> <sup>469</sup> <sup>470</sup> <sup>471</sup> <sup>472</sup> <sup>473</sup> <sup>474</sup> <sup>475</sup> <sup>476</sup> <sup>477</sup> <sup>478</sup> <sup>479</sup> <sup>480</sup> <sup>481</sup> <sup>482</sup> <sup>483</sup> <sup>484</sup> <sup>485</sup> <sup>486</sup> <sup>487</sup> <sup>488</sup> <sup>489</sup> <sup>490</sup> <sup>491</sup> <sup>492</sup> <sup>493</sup> <sup>494</sup> <sup>495</sup> <sup>496</sup> <sup>497</sup> <sup>498</sup> <sup>499</sup> <sup>500</sup> <sup>501</sup> <sup>502</sup> <sup>503</sup> <sup>504</sup> <sup>505</sup> <sup>506</sup> <sup>507</sup> <sup>508</sup> <sup>509</sup> <sup>510</sup> <sup>511</sup> <sup>512</sup> <sup>513</sup> <sup>514</sup> <sup>515</sup> <sup>516</sup> <sup>517</sup> <sup>518</sup> <sup>519</sup> <sup>520</sup> <sup>521</sup> <sup>522</sup> <sup>523</sup> <sup>524</sup> <sup>525</sup> <sup>526</sup> <sup>527</sup> <sup>528</sup> <sup>529</sup> <sup>530</sup> <sup>531</sup> <sup>532</sup> <sup>533</sup> <sup>534</sup> <sup>535</sup> <sup>536</sup> <sup>537</sup> <sup>538</sup> <sup>539</sup> <sup>540</sup> <sup>541</sup> <sup>542</sup> <sup>543</sup> <sup>544</sup> <sup>545</sup> <sup>546</sup> <sup>547</sup> <sup>548</sup> <sup>549</sup> <sup>550</sup> <sup>551</sup> <sup>552</sup> <sup>553</sup> <sup>554</sup> <sup>555</sup> <sup>556</sup> <sup>557</sup> <sup>558</sup> <sup>559</sup> <sup>560</sup> <sup>561</sup> <sup>562</sup> <sup>563</sup> <sup>564</sup> <sup>565</sup> <sup>566</sup> <sup>567</sup> <sup>568</sup> <sup>569</sup> <sup>570</sup> <sup>571</sup> <sup>572</sup> <sup>573</sup> <sup>574</sup> <sup>575</sup> <sup>576</sup> <sup>577</sup> <sup>578</sup> <sup>579</sup> <sup>580</sup> <sup>581</sup> <sup>582</sup> <sup>583</sup> <sup>584</sup> <sup>585</sup> <sup>586</sup> <sup>587</sup> <sup>588</sup> <sup>589</sup> <sup>590</sup> <sup>591</sup> <sup>592</sup> <sup>593</sup> <sup>594</sup> <sup>595</sup> <sup>596</sup> <sup>597</sup> <sup>598</sup> <sup>599</sup> <sup>600</sup> <sup>601</sup> <sup>602</sup> <sup>603</sup> <sup>604</sup> <sup>605</sup> <sup>606</sup> <sup>607</sup> <sup>608</sup> <sup>609</sup> <sup>610</sup> <sup>611</sup> <sup>612</sup> <sup>613</sup> <sup>614</sup> <sup>615</sup> <sup>616</sup> <sup>617</sup> <sup>618</sup> <sup>619</sup> <sup>620</sup> <sup>621</sup> <sup>622</sup> <sup>623</sup> <sup>624</sup> <sup>625</sup> <sup>626</sup> <sup>627</sup> <sup>628</sup> <sup>629</sup> <sup>630</sup> <sup>631</sup> <sup>632</sup> <sup>633</sup> <sup>634</sup> <sup>635</sup> <sup>636</sup> <sup>637</sup> <sup>638</sup> <sup>639</sup> <sup>640</sup> <sup>641</sup> <sup>642</sup> <sup>643</sup> <sup>644</sup> <sup>645</sup> <sup>646</sup> <sup>647</sup> <sup>648</sup> <sup>649</sup> <sup>650</sup> <sup>651</sup> <sup>652</sup> <sup>653</sup> <sup>654</sup> <sup>655</sup> <sup>656</sup> <sup>657</sup> <sup>658</sup> <sup>659</sup> <sup>660</sup> <sup>661</sup> <sup>662</sup> <sup>663</sup> <sup>664</sup> <sup>665</sup> <sup>666</sup> <sup>667</sup> <sup>668</sup> <sup>669</sup> <sup>670</sup> <sup>671</sup> <sup>672</sup> <sup>673</sup> <sup>674</sup> <sup>675</sup> <sup>676</sup> <sup>677</sup> <sup>678</sup> <sup>679</sup> <sup>680</sup> <sup>681</sup> <sup>682</sup> <sup>683</sup> <sup>684</sup> <sup>685</sup> <sup>686</sup> <sup>687</sup> <sup>688</sup> <sup>689</sup> <sup>690</sup> <sup>691</sup> <sup>692</sup> <sup>693</sup> <sup>694</sup> <sup>695</sup> <sup>696</sup> <sup>697</sup> <sup>698</sup> <sup>699</sup> <sup>700</sup> <sup>701</sup> <sup>702</sup> <sup>703</sup> <sup>704</sup> <sup>705</sup> <sup>706</sup> <sup>707</sup> <sup>708</sup> <sup>709</sup> <sup>710</sup> <sup>711</sup> <sup>712</sup> <sup>713</sup> <sup>714</sup> <sup>715</sup> <sup>716</sup> <sup>717</sup> <sup>718</sup> <sup>719</sup> <sup>720</sup> <sup>721</sup> <sup>722</sup> <sup>723</sup> <sup>724</sup> <sup>725</sup> <sup>726</sup> <sup>727</sup> <sup>728</sup> <sup>729</sup> <sup>730</sup> <sup>731</sup> <sup>732</sup> <sup>733</sup> <sup>734</sup> <sup>735</sup> <sup>736</sup> <sup>737</sup> <sup>738</sup> <sup>739</sup> <sup>740</sup> <sup>741</sup> <sup>742</sup> <sup>743</sup> <sup>744</sup> <sup>745</sup> <sup>746</sup> <sup>747</sup> <sup>748</sup> <sup>749</sup> <sup>750</sup> <sup>751</sup> <sup>752</sup> <sup>753</sup> <sup>754</sup> <sup>755</sup> <sup>756</sup> <sup>757</sup> <sup>758</sup> <sup>759</sup> <sup>760</sup> <sup>761</sup> <sup>762</sup> <sup>763</sup> <sup>764</sup> <sup>765</sup> <sup>766</sup> <sup>767</sup> <sup>768</sup> <sup>769</sup> <sup>770</sup> <sup>771</sup> <sup>772</sup> <sup>773</sup> <sup>774</sup> <sup>775</sup> <sup>776</sup> <sup>777</sup> <sup>778</sup> <sup>779</sup> <sup>780</sup> <sup>781</sup> <sup>782</sup> <sup>783</sup> <sup>784</sup> <sup>785</sup> <sup>786</sup> <sup>787</sup> <sup>788</sup> <sup>789</sup> <sup>790</sup> <sup>791</sup> <sup>792</sup> <sup>793</sup> <sup>794</sup> <sup>795</sup> <sup>796</sup> <sup>797</sup> <sup>798</sup> <sup>799</sup> <sup>800</sup> <sup>801</sup> <sup>802</sup> <sup>803</sup> <sup>804</sup> <sup>805</sup> <sup>806</sup> <sup>807</sup> <sup>808</sup> <sup>809</sup> <sup>810</sup> <sup>811</sup> <sup>812</sup> <sup>813</sup> <sup>814</sup> <sup>815</sup> <sup>816</sup> <sup>817</sup> <sup>818</sup> <sup>819</sup> <sup>820</sup> <sup>821</sup> <sup>822</sup> <sup>823</sup> <sup>824</sup> <sup>825</sup> <sup>826</sup> <sup>827</sup> <sup>828</sup> <sup>829</sup> <sup>830</sup> <sup>831</sup> <sup>832</sup> <sup>833</sup> <sup>834</sup> <sup>835</sup> <sup>836</sup> <sup>837</sup> <sup>838</sup> <sup>839</sup> <sup>840</sup> <sup>841</sup> <sup>842</sup> <sup>843</sup> <sup>844</sup> <sup>845</sup> <sup>846</sup> <sup>847</sup> <sup>848</sup> <sup>849</sup> <sup>850</sup> <sup>851</sup> <sup>852</sup> <sup>853</sup> <sup>854</sup> <sup>855</sup> <sup>856</sup> <sup>857</sup> <sup>858</sup> <sup>859</sup> <sup>860</sup> <sup>861</sup> <sup>862</sup> <sup>863</sup> <sup>864</sup> <sup>865</sup> <sup>866</sup> <sup>867</sup> <sup>868</sup> <sup>869</sup> <sup>870</sup> <sup>871</sup> <sup>872</sup> <sup>873</sup> <sup>874</sup> <sup>875</sup> <sup>876</sup> <sup>877</sup> <sup>878</sup> <sup>879</sup> <sup>880</sup> <sup>881</sup> <sup>882</sup> <sup>883</sup> <sup>884</sup> <sup>885</sup> <sup>886</sup> <sup>887</sup> <sup>888</sup> <sup>889</sup> <sup>890</sup> <sup>891</sup> <sup>892</sup> <sup>893</sup> <sup>894</sup> <sup>895</sup> <sup>896</sup> <sup>897</sup> <sup>898</sup> <sup>899</sup> <sup>900</sup> <sup>901</sup> <sup>902</sup> <sup>903</sup> <sup>904</sup> <sup>905</sup> <sup>906</sup> <sup>907</sup> <sup>908</sup> <sup>909</sup> <sup>910</sup> <sup>911</sup> <sup>912</sup> <sup>913</sup> <sup>914</sup> <sup>915</sup> <sup>916</sup> <sup>917</sup> <sup>918</sup> <sup>919</sup> <sup>920</sup> <sup>921</sup> <sup>922</sup> <sup>923</sup> <sup>924</sup> <sup>925</sup> <sup>926</sup> <sup>927</sup> <sup>928</sup> <sup>929</sup> <sup>930</sup> <sup>931</sup> <sup>932</sup> <sup>933</sup> <sup>934</sup> <sup>935</sup> <sup>936</sup> <sup>937</sup> <sup>938</sup> <sup>939</sup> <sup>940</sup> <sup>941</sup> <sup>942</sup> <sup>943</sup> <sup>944</sup> <sup>945</sup> <sup>946</sup> <sup>947</sup> <sup>948</sup> <sup>949</sup> <sup>950</sup> <sup>951</sup> <sup>952</sup> <sup>953</sup> <sup>954</sup> <sup>955</sup> <sup>956</sup> <sup>957</sup> <sup>958</sup> <sup>959</sup> <sup>960</sup> <sup>961</sup> <sup>962</sup> <sup>963</sup> <sup>964</sup> <sup>965</sup> <sup>966</sup> <sup>967</sup> <sup>968</sup> <sup>969</sup> <sup>970</sup> <sup>971</sup> <sup>972</sup> <sup>973</sup> <sup>974</sup> <sup>975</sup> <sup>976</sup> <sup>977</sup> <sup>978</sup> <sup>979</sup> <sup>980</sup> <sup>981</sup> <sup>982</sup> <sup>983</sup> <sup>984</sup> <sup>985</sup> <sup>986</sup> <sup>987</sup> <sup>988</sup> <sup>989</sup> <sup>990</sup> <sup>991</sup> <sup>992</sup> <sup>993</sup> <sup>994</sup> <sup>995</sup> <sup>996</sup> <sup>997</sup> <sup>998</sup> <sup>999</sup> <sup>1000</sup>

**데 이 십 스 장**

을 보 지 못 호 야 <sup>1</sup> <sup>2</sup> <sup>3</sup> <sup>4</sup> <sup>5</sup> <sup>6</sup> <sup>7</sup> <sup>8</sup> <sup>9</sup> <sup>10</sup> <sup>11</sup> <sup>12</sup> <sup>13</sup> <sup>14</sup> <sup>15</sup> <sup>16</sup> <sup>17</sup> <sup>18</sup> <sup>19</sup> <sup>20</sup> <sup>21</sup> <sup>22</sup> <sup>23</sup> <sup>24</sup> <sup>25</sup> <sup>26</sup> <sup>27</sup> <sup>28</sup> <sup>29</sup> <sup>30</sup> <sup>31</sup> <sup>32</sup> <sup>33</sup> <sup>34</sup> <sup>35</sup> <sup>36</sup> <sup>37</sup> <sup>38</sup> <sup>39</sup> <sup>40</sup> <sup>41</sup> <sup>42</sup> <sup>43</sup> <sup>44</sup> <sup>45</sup> <sup>46</sup> <sup>47</sup> <sup>48</sup> <sup>49</sup> <sup>50</sup> <sup>51</sup> <sup>52</sup> <sup>53</sup> <sup>54</sup> <sup>55</sup> <sup>56</sup> <sup>57</sup> <sup>58</sup> <sup>59</sup> <sup>60</sup> <sup>61</sup> <sup>62</sup> <sup>63</sup> <sup>64</sup> <sup>65</sup> <sup>66</sup> <sup>67</sup> <sup>68</sup> <sup>69</sup> <sup>70</sup> <sup>71</sup> <sup>72</sup> <sup>73</sup> <sup>74</sup> <sup>75</sup> <sup>76</sup> <sup>77</sup> <sup>78</sup> <sup>79</sup> <sup>80</sup> <sup>81</sup> <sup>82</sup> <sup>83</sup> <sup>84</sup> <sup>85</sup> <sup>86</sup> <sup>87</sup> <sup>88</sup> <sup>89</sup> <sup>90</sup> <sup>91</sup> <sup>92</sup> <sup>93</sup> <sup>94</sup> <sup>95</sup> <sup>96</sup> <sup>97</sup> <sup>98</sup> <sup>99</sup> <sup>100</sup> <sup>101</sup> <sup>102</sup> <sup>103</sup> <sup>104</sup> <sup>105</sup> <sup>106</sup> <sup>107</sup> <sup>108</sup> <sup>109</sup> <sup>110</sup> <sup>111</sup> <sup>112</sup> <sup>113</sup> <sup>114</sup> <sup>115</sup> <sup>116</sup> <sup>117</sup> <sup>118</sup> <sup>119</sup> <sup>120</sup> <sup>121</sup> <sup>122</sup> <sup>123</sup> <sup>124</sup> <sup>125</sup> <sup>126</sup> <sup>127</sup> <sup>128</sup> <sup>129</sup> <sup>130</sup> <sup>131</sup> <sup>132</sup> <sup>133</sup> <sup>134</sup> <sup>135</sup> <sup>136</sup> <sup>137</sup> <sup>138</sup> <sup>139</sup> <sup>140</sup> <sup>141</sup> <sup>142</sup> <sup>143</sup> <sup>144</sup> <sup>145</sup> <sup>146</sup> <sup>147</sup> <sup>148</sup> <sup>149</sup> <sup>150</sup> <sup>151</sup> <sup>152</sup> <sup>153</sup> <sup>154</sup> <sup>155</sup> <sup>156</sup> <sup>157</sup> <sup>158</sup> <sup>159</sup> <sup>160</sup> <sup>161</sup> <sup>162</sup> <sup>163</sup> <sup>164</sup> <sup>165</sup> <sup>166</sup> <sup>167</sup> <sup>168</sup> <sup>169</sup> <sup>170</sup> <sup>171</sup> <sup>172</sup> <sup>173</sup> <sup>174</sup> <sup>175</sup> <sup>176</sup> <sup>177</sup> <sup>178</sup> <sup>179</sup> <sup>180</sup> <sup>181</sup> <sup>182</sup> <sup>183</sup> <sup>184</sup> <sup>185</sup> <sup>186</sup> <sup>187</sup> <sup>188</sup> <sup>189</sup> <sup>190</sup> <sup>191</sup> <sup>192</sup> <sup>193</sup> <sup>194</sup> <sup>195</sup> <sup>196</sup> <sup>197</sup> <sup>198</sup> <sup>199</sup> <sup>200</sup> <sup>201</sup> <sup>202</sup> <sup>203</sup> <sup>204</sup> <sup>205</sup> <sup>206</sup> <sup>207</sup> <sup>208</sup> <sup>209</sup> <sup>210</sup> <sup>211</sup> <sup>212</sup> <sup>213</sup> <sup>214</sup> <sup>215</sup> <sup>216</sup> <sup>217</sup> <sup>218</sup> <sup>219</sup> <sup>220</sup> <sup>221</sup> <sup>222</sup> <sup>223</sup> <sup>224</sup> <sup>225</sup> <sup>226</sup> <sup>227</sup> <sup>228</sup> <sup>229</sup> <sup>230</sup> <sup>231</sup> <sup>232</sup> <sup>233</sup> <sup>234</sup> <sup>235</sup> <sup>236</sup> <sup>237</sup> <sup>238</sup> <sup>239</sup> <sup>240</sup> <sup>241</sup> <sup>242</sup> <sup>243</sup> <sup>244</sup> <sup>245</sup> <sup>246</sup> <sup>247</sup> <sup>248</sup> <sup>249</sup> <sup>250</sup> <sup>251</sup> <sup>252</sup> <sup>253</sup> <sup>254</sup> <sup>255</sup> <sup>256</sup> <sup>257</sup> <sup>258</sup> <sup>259</sup> <sup>260</sup> <sup>261</sup> <sup>262</sup> <sup>263</sup> <sup>264</sup> <sup>265</sup> <sup>266</sup> <sup>267</sup> <sup>268</sup> <sup>269</sup> <sup>270</sup> <sup>271</sup> <sup>272</sup> <sup>273</sup> <sup>274</sup> <sup>275</sup> <sup>276</sup> <sup>277</sup> <sup>278</sup> <sup>279</sup> <sup>280</sup> <sup>281</sup> <sup>282</sup> <sup>283</sup> <sup>284</sup> <sup>285</sup> <sup>286</sup> <sup>287</sup> <sup>288</sup> <sup>289</sup> <sup>290</sup> <sup>291</sup> <sup>292</sup> <sup>293</sup> <sup>294</sup> <sup>295</sup> <sup>296</sup> <sup>297</sup> <sup>298</sup> <sup>299</sup> <sup>300</sup> <sup>301</sup> <sup>302</sup> <sup>303</sup> <sup>304</sup> <sup>305</sup> <sup>306</sup> <sup>307</sup> <sup>308</sup> <sup>309</sup> <sup>310</sup> <sup>311</sup> <sup>312</sup> <sup>313</sup> <sup>314</sup> <sup>315</sup> <sup>316</sup> <sup>317</sup> <sup>318</sup> <sup>319</sup> <sup>320</sup> <sup>321</sup> <sup>322</sup> <sup>323</sup> <sup>324</sup> <sup>325</sup> <sup>326</sup> <sup>327</sup> <sup>328</sup> <sup>329</sup> <sup>330</sup> <sup>331</sup> <sup>332</sup> <sup>333</sup> <sup>334</sup> <sup>335</sup> <sup>336</sup> <sup>337</sup> <sup>338</sup> <sup>339</sup> <sup>340</sup> <sup>341</sup> <sup>342</sup> <sup>343</sup> <sup>344</sup> <sup>345</sup> <sup>346</sup> <sup>347</sup> <sup>348</sup> <sup>349</sup> <sup>350</sup> <sup>351</sup> <sup>352</sup> <sup>353</sup>

를반드시죄인의손에내어주어십자가에못박혀죽었다가데삼일만에다시살니라하셨다  
 니 여인들이그말씀을싱각하고 무덤에서도라가열흐스도와모든다른이의게닐으니  
 여에막달네나마리아와요한나와야곱의모친마리아와밋다론한가지로간녀인들이스도의  
 게이러함을고하였더니 스도 그말을취단하다야밋지아니하나 베드로 니러나드  
 러가무덤에니르러굽흐려드려다보니뵈옷슬흔가지로둔거슬보고이에도라가본일을괴이  
 히녀이더라 ○ 그날그중에들히에마오라하는촌에가니여기가예루살렘에서이십오리쯤  
 되는지라 서로이본거슬의론하야 못참힐난흔새에예수 갓가히니르러한가지로히  
 시니 두문도의눈을희미케하야알지못하더니 예수 니를닐니 사디너희행할새에서로  
 무슴일을의론하야근심함이잇느냐 그들중하나일함이글료파 라하는사람이디답하야  
 글으되너 예루살렘에혼자잇서서근일스정을아지못하였느냐 글으되무슴일이료글으  
 디하는님과모든백성압해서말과일노권능이만호신선지자나사렛예수의일이니 우리제  
 스제장과유스가주기로결단하야주고십자가에못박고 우리논이사람이이스라엘백성을  
 구속할차되기를바라서이일이일운지임의사할이라 또한우리중에두어부녀 우리로하  
 여곰놀나게함은더들이새벽에무덤에가 그시례를보지못하고와고하야닐으되임의던스  
 가나타나예수 살았다하니 우리중에두어사람이무덤에가과연부녀의말하바와곳치보  
 고오직예수를맛나보지못하였다하니 예수 글으샤디미련하다선지의모든말씀을밋기  
 에모음이더된자여 그리스도가이런해를받고영화를얻는거시맛당치아니냐 이에모세  
 가지작하야모든선지에서성경글에쓴바조괴를막르천거슬다스제히분히시키고 가려하는  
 촌에갓가오매예수 더가려하는것곳치하시니 두사람이강권하야글으되우리와함씩류  
 하사이다저물어가고날이임의기우러스읍는다하니이에함씩류하러드러가니라 못참  
 자리에계서예수 썩을가져축슈하시고뻘여주시니 두사람의눈이곳분어져예수신줄

누가복음 一 데이십스장

이십팔

을알더니홀연이되지아니하는지라 서로말하야골으디길헤서우리도더브러말하고성경  
 을풀때에우라모음이쓰겁지아니하고 곳너러나예루살렘에도라가열흔스도와함  
 썩잇는사람을보니 못춤여러사람이말하기를유과연너러나고시문의게나타났다하거  
 늘 두사람이또한길헤서맛난바와섞을셀때에예수 산중을향하여닐니 이곳치말하  
 때에예수 친히그가온디서샤골으샤디너희들은평안하라 문도 놀나고무셔위  
 하야엇던신령을본줄아니 예수 골으샤디엇지두려워하느냐에의심하는나 내손  
 과발을보면나를곳알지나나를문지고또보라신령은새와살이업사디네나를본즉잇는니라  
 하시며슈족을뵈이시니 문도 깃버함을축량치못하야미지못하고또괴이히너일때에  
 예수 닐너골으샤디여괴먹을거시잇느냐 이에구은성션흔조각을드리니 예수 가지  
 샤그압헤셔잡스오시고 닐너골으샤디나 근본너희와흔가지로잇슬때에너희게말하  
 자는곳모세의률법과션지자와시편에나를근쳐기록흔거시다마즈니라하고 이에그  
 총명을열어모든성경을써듯게하고 또닐너골으샤디척에임의이러하게말하엿시니그  
 리스도맛당히난을밧으샤데삼일에죽음으로셔니라 그일함을인하야회기하야죄샤하  
 는도를전할시에루살렘으로시작하야만국에나를지라 너희무리이일에증참이되고 나  
 | 장춧내야바지의허락흔거슬너희게주리나네예루살렘에거하야우호로서올권능납히기  
 를기드리라 예수 잇그러빋단니에너러손을드러비시고 빌때에무리를써나승련하  
 시니 무리절하고심히깃버하야예루살렘에도라가 홍상성던에잇서하는님을찬송하며  
 감샤하야빌더라

30